



6

197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6호

(루게 356)



◆◆◆◆◆◆◆◆◆◆

차 례

◆◆◆◆◆◆◆◆◆◆

주체의 토지법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창작에 적극 구현하자!	2
위대한 수령님 우리러	5
영원히 수령님 모셔가는 길에	6
사랑의 지점에서	7
이 기슭에 서니	15
옛적전터를 투사는 거닐은다 (외 1 편)	16
곤장덕의 오솔길	17
련결원	18
첫출발	27
전선마을녀인들	30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외 1 편)	31
들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32
그날에로 가는 마음	32
두메의 깊은 밤에	33
내 마음을 적시며	34
한줌의 비료에 담아	35
이런 걱정 참말로 좋다!	36
해빛밝은 땅	37
이 궤도우에서	38
사랑과 증오	39
생의 마지막 기슭에	47
살구재언덕길에서	48
충성의 혁명전위-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자	49
혁명적시문학에 반제반미투쟁정신을 힘있게 구현하자!	54
사업 방법과 작품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일군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59
어지돈의 노래	60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전사가 우리 시대 주체형의 주인공이다	61
전국 군중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결과에 대하여	63

주체의 토지법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창작에 적극 구현하자!

지난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법을 새롭게 채택하고 그것을 이번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마련하여 주신 토지법은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발전시키고 국토건설과 토지보호관리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우리 조국강토를 인민들이 살기좋은 아름답고 문명하고 풍요한 락원으로 전면시킴에 있어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토지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온갖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영원히 벗어나게 하며 국토와 자원을 오직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잘 보호관리하고 계획적으로 개발 리용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토지법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토지는 조상때부터 물려받아오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밀천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천리강산 이외에 다른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잘 관리하고 개량하여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땅을 잘 리용만 한다면 전체 조선인민이 얼마든지 잘살아나갈수 있습니다.》

토지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생활밀천이며 물질적부의 중요한 원천이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국토건설을 잘해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맞게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계획적으로 꾸리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국토의 관리와 건설을 잘해야 또한 과거 사회의 유물인 국토의 낡은 면모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며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고르롭게 발전시키고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문명하고 풍요하게 개변시켜 나갈수 있다.

새 토지법은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에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보호관리와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토지법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토지문제, 국토건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완전한 해답을 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시기의 토지건설강령이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법전이다.

국토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 나가기 위한 혁명적방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는 주체의 새 토지법은 우리 나라 토지분야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을 뚜렷이 보여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힘 있게 과시하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김으로써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피눈물나는 고생을 다 하였으며 우리 조국강토는 황량하고 스산한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겨 피폐할대로 피폐하여졌다.

그리하여 당시 한 시인은 봄이 오는 푸른 들에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땅에 대한 간절한 념원과 울분을 참을길 없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몸부림치면서 땅을 빼앗겨 봄마저 빼앗긴 조선인민들의 비통한 생활감정을 절절하게 토로하였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압록강을 건너지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젠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과연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보습대일 한뼘기의 땅이 없어 대대손손 살아온 정든 고향땅과 고국을 하직하고 피눈물을 뿌리며 이 강을 건너갔던가.

압록강의 푸른 물과 조국산천을 목메이게 부르면서 망국의 슬픔을 안고 산설과 물설은 이국땅으로 건너가면서 우리 인민들은 내 나라를 찾고 서야 고향땅에 돌아가리라는 죽어도 잊지 못할 피맺힌 소원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절절하게 노래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난에 몸부림치던 조국땅의 이 참혹한 모습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주체의 기치밑에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던 그 나날에도 우리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조선을 건설하고 나라의 방방곡곡을 인민들이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실 때마다 몸소 나무씨를 뿌리시고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조국의 한줌 흙과 한 포기 of 진달래도 무시히 대하지 않도록 교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유격근거지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주는 토지개혁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시어 해방후 사회경제적변혁을 위한 첫사업으로서 토지개혁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오랜세월 가난과 천대 속에서 살아오던 우리 농민들의 땅에 대한 절절한 소원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전후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농촌에 사회주의 토지소유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시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어 토지에 대한 협동적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키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토지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오시였

을뿐아니라 나라의 만년대체를 위한 국토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새 조국 창건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제에 의해 벌거숭이가 된 조국의 모든 산밭을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게 할 웅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어 나무를 심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첫삽을 뜨신 때로부터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과 인민을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한길로 이끄시어 이 땅위에 천지개벽의 새력사를 펼쳐놓으시였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락탈과 미제가 도발한 가련한 전쟁에 위하여 피폐되고 무참히 파괴되었던 우리 조국강토가 오늘은 자연의 온갖 번덕을 다 이겨내고 해마다 대풍을 안아오는 풍요한 대지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새 토지법을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는 우리 토지를 오직 근로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위하여 리용하며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문학이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국토건설을 위한 거창한 우리 근로자들의 벽찬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건설에 대해서뿐아니라 도시건설에 대해서도 소설을 쓸것이 많습니다. 다른것은 그만두고라도 평양시 보통벌이 건설된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벌에 오막살이집들만 있었으며 그곳은 어지럽기로 소문난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통벌에 다층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짝 들어차고 현대적인 거리가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어지럽던 보통강도 아름다운 강으로 면모를 바꾸었습니다. ...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대해서도 소설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연풍호가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하는것만 가지고도 소설을 훌륭히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에 연풍저수지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내놓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맨주먹으로 그와 같은 대자연 개조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믿고 대중을 동원하여 이 저수지 건설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왜 소설을 쓰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왕가물과 큰 물에도 끄떡없이 해마다 높은 수확을 내는 관개의 나라로 논밭들이 날로 더욱 비옥한 규격포전으로 되고 버림받던 간석지와 야산들이 공고한 농업생산기지로, 충충다락밭과 과일동산으로 전변되는 나라로 되었으며 온 나라가 울창한 산림자원으로 뒤덮이고 정연한 도로망이 혈관처럼 뻗어가며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새 도시들과 아담한 문화농촌이 일떠서고 그 어디서나 공해를 모르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지난 30여년간 우리 인민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다할수 없었던 것처럼 많은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국토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과 같은 찬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날 압록강의 노래의 비장한 선율이 흐르던 이 땅에 오늘은 행복의 노래, 랑만의 노래가 흘러넘치고 창조의 노래, 충성의 노래가 소리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수령님 모시고 사는 이 행복
인민들은 이 영광 노래부르네
은혜로운 어버이 넓은 품속에
천리마의 조국이 꽃피어났네

이렇게 변모된 약동하는 우리 현실, 세기적전변을 두고 우리 작가들이 어찌 흥분하지 않을수 있으며 창작의 붓을 들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 작가들은 국토건설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보여줄뿐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주체의 새 토지법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토지법에 구현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과 숭고한 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정확히 해설선전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

새로운 토지법은 전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공지와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높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아름답게 전변될 조국땅의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과 신심에 넘쳐 국토건설사업에 일떠서도록 하여주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토지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보여주는 각종 형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토지법에 규정된 제 원칙과 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국토건설사업 분야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자들의 전형을 적극 탐구형상해야 한다.

최근 《로동신문》에 발표된 한 산림관리원동무의 애국적소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얼마나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는가.

그는 온 나라의 산을 기름나무와 경제림으로 뒤덮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20여년동안을 하루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성실히 일한 결과 참으로 큰일을 해놓았다.

바로 이러한 애국자들에 의하여 우리의 자연은 주체의 요구대로 더욱 훌륭히 개조되고 조국은 날을 따라 부강해지는데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와 같은 애국자들의 형상을 많이 창조하여 애국심은 허공에 뜬 추상적개념이 아니라 조국의 한평의 땅, 한줄기의 시내물,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의 자원을 늘이기 위해 몸과 마음 다바쳐 일하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애국자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땅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 진심으로 충실할수 있다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영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주체의 토지법을 철저히 옹호하고 창작에 훌륭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를 더욱 더 아름답고 풍만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차균호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김휘조

반아안은 은혜 너무도 크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 이 땅에 넘치여
거리에 가면 네거리 한복판에
공장에 가면 넓게 트인 정문가에...
어디건 하늘높이 탑을 세워 새긴 글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송이송이 꽃밭은 탑아래 만발하고
탑우엔 비껴간 푸르른 하늘
가슴에 행복이 차오를수록
하루에도 그 몇번 우러르는 글발이여

봄도 그 꽃을 제일먼저 피웠구나
해빛은 눈부시게 탑우에 내리고
수령님 모신 환희에 영광에
온 땅 온 하늘이 환히 웃는 산천이여

정녕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모시여
천만가락 울리는 자동화의 음향이
로동의 영원한 노래로 되고
주체농법이 하늘마저 길들이며
해마다 만풍으로 무르익는 이 강산

덧없이 세월을 싣고 흐르던 강물도
기쁨의 흐름이 되어 타빈을 돌리고
유구한 세월속에 잠자던 산들도
행복의 열매를 주렁지으며
《황금산》, 《기름산》으로 설레는 땅,
이 땅에선 이름가진 세상만물이
그이 계시여 인민의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
그처럼 눈부신 광채를 뿌리는것이 아니냐,

정녕 길가의 한그루 나무
그 어느 창가에도
그이의 사랑에 목메인 눈물은 어려있어,
오직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마음

쌀을 험하게 생산해야 마음 편하시다고
모내는기계앞에서 제일 기뻐하신분도 그이이신데
서느린 창가에 앉아 쇠물을 녹이니
이제야 마음놓으시겠다고
산업TV앞에서 제일 기뻐하신분도 그이이신데
아, 밤이 깊도록, 다 깊도록
그이 계신 사무실창가에
꺼지지 않는 불빛을 생각할 때면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며
오늘도 인민을 찾으시는 그이를 생각할 때면
오직 수령님 만수무강을 바라는 마음

그이는 언제나 인민을 위해 계시고
가슴에 고이는 뜨거운 눈물을
인민은 사품치는 쇠물로 터쳐가거니
이 땅의 마지막 다락밭을 적시며
관개수 푸른물로 쏟아가거니...

아, 그이는
꺼져가는 락조속에, 부모 잃은 고아처럼
대답없는 산천에 수령을 불러 가슴타던
이 나라 인민이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수령님
짓눌렀던 가슴에 자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 땅 이 하늘아래
가장 억센 인간으로 세워주신분

하늘땅 가득 그 은혜 넘치는 강산이여
해빛을 안고 행복에 한껏 웃는 강산이여
그이 계시여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곳이
그이 계시여 세상에 가장 부유한곳이
나의 조국이여라
그이 계시여 세상에 우리 인민보다
행복한 인민은 다시 없어라.

가슴속 소원도, 미래도 희망도... 모두다 말진
그이를 태양으로 모신 영광이여, 기쁨이여
그이의 만수무강은 끝없는 인민의 행복
세월과 함께 끝없이 번영할 미래

아, 이제는 더 바랄것 없는 이 땅에
간절한 하나의 념원만이 있나니-
백년을 열번 살아도 그분만을 모실 생각
한몸 다 바쳐도 그분만을 위할 마음

해가 갈수록 그 생각,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언덕으로 솟은곳에, 꽃바다를 이룬곳에
어딜 가도 아슬한 탑을 세웠구나
그 생각 그 마음이
세상 가장 빛나는 글발이 되었구나

아, 이 땅 모든 행복의 노래가
끝없이 끝없이 시작되는 글발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영원히 수령님 모셔가는 길에

한원희

어디를 걸어도 아름답구나
빛나는 태양아래 행복한 땅이여
누구와 만나도 다정하구나
하나의 뜻으로 숨쉬는 인민이여

창조의 노을비긴 저 하늘은
그이께서 얹어주신 조국의 지붕이여라
행복이 넘치는 락원의 강산은
그이께서 안겨주신 우리의 집이여라

빛나는 이 삶, 누리는 이 환희도
그 품속에서 받았여라
수령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아들딸로 살아가는 우리
받아안은 은혜는 하늘같고
목메여 흘린 눈물 바다같아라

주시고 주시는 그이의 사랑앞에
언제면 우리 그 은혜 다 갚으랴
한마음 바치고 바치여도
우리의 충성 미치지 못해라

세월이 흐를수록 못다한 그 충성을,
세월이 흐를수록 간절한 그 념원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자식에게
대를 이어 물려주고 물려받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모셔온 우리 인민

이 땅에 재가루만 흩날리던 나날에
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수령님 받들어 일어서던 사람들,
종파분자들이 어찌고 저찌고 해도
수령님 모신 인민은 승리한다고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던
어느 농촌할머니도 우리 할머니

학교를 갓나와 지은 첫해농사 분배몹을
그이께 모두 지성담아 드리며
아버지원수님 농사는 걱정마시라고

수령님께 편지를 올린 립석마을 처녀도
우리의 누이동생, 우리의 새세대

흐르는 세월과 세월을 이어
자라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수령님 모시는 마음 이리도 불타
하는 일 천만가지
그이 위해 있어라!

다함없는 그 마음이여라
아득히 뻗어간 두줄기 궤도우에
번개와 우뢰를 몰아가는 기적소리여,
이 땅 이 하늘에 가득차 흐르는
대자연개조의 우렁찬 동음이여,
오직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그 깨끗하고 열렬한 인민의 마음이
격동하며 솟구치며 도도히 굽이치며
3대혁명의 거세찬 폭풍을 불러와라!

오로지 인민을 믿으시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맡겨주시고
애지중지 인민을 아끼시여
일터마다 자동화의 노래를 주시며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

영원한 사랑으로 인민을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모셔가는
이 불멸의 신념우에 받들려
조선은 높이 솟아
찬란한 주체의 빛발을 뿌리여라!

아,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인민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일편단심 수령님을 모셔가는 길우에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고
민족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치나니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신 끝없는 영광이여
빛나라, 인민의 앞길에!
빛나라, 조선의 앞길에!

사랑의 지점에서

손권

이해 겨울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눈이 푸실푸실 내리던 어느날, 두사람이 령길을 돌아오고있었다.

뿌연 눈발속에 잠긴 모든 물체는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움직이는것은 다만 그들, 두사람뿐인듯싶었다. 그의 움직이는것이 있다면 뿌옇게 흐려진 공간을 뚫고 봄이라는것을 미리 예고해주기라도 하듯 누긋한 바람이 이따금 알릴듯말듯 불어오는것뿐이었다.

류희는 하얀 저고리고름으로 눈가를 문지르고 앞선 사람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설퍼진 눈발속으로 철민의 수긋한 머리가 얼핏 드러났다.

마치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서서는 안되기라도 하듯 줄곧 앞으로만 전진하고있었다. 얼핏 나타났던 철민의 모습은 인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다만 힘겨이 내디딘듯 큼직한 발자국이 두텁게 쌓인 눈우에 설퍼게 찍혀있었다.

어찌보면 그 발자국마다엔 철민의 고집이 온몸에서 뻗어내려 은연중 스며있는것처럼 느껴졌다.

오늘아침에 있던 일이었다.

유격근거지로 들어와 아동안사업을 맡아본지 몇달 안되는 류희에게 뜻밖의 임무가 차려졌다. 범포지구혁명조직들에 마련되어있는 원호물자를 운반하라는 인민혁명정부의 지시였다.

놈들의 수차례에 달하는 《토벌》로 어려워진 근거지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 원호물자가 필요했던것이다.

인민혁명정부회장이 류희에게 같이 가게 될 사람을 소개해주었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정치공작원 철민동무요. 이 동무의 지시대로 행동하시오.》

류희는 얼결에 머리를 돌려 철민이를 바라보았다.

류다른 광채를 띠고있는 눈이며 그와는 대조를 이루듯 빗장을 지른것처럼 굳게 다물려있는 두툼한 입모습이 인상깊게 비쳐들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런지 어디서 한번 본것 같기도 했다.

상대방도 언뜻 놀란 눈길로 잠간 지켜보았다. 류희는 인차 고개를 돌렸다. 회장아바이의 목소리가 그 무슨 생각에 잠길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듯 무겁게 울렸기때문이다.

그는 범포지구의 혁명조직들에 마련된 원호물자를 약속된 지점으로 운반하던 부녀회장 정송이 원호물자를 구출하고 희생되었다는것, 그때문에 적들의 경계가 심해진 정황과 임무의 중요성을

곱씹어 강조했다.

철민은 시종 머리를 수긋한채 듣기만 하였을뿐 한마디의 말도 비치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야기를 듣는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무언의 시사를 던져주는것 같았다. 하긴 자기가 말하는것보다 듣는것이 더 필요하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로정이 토의되었다.

그들앞에는 두개의 길, 운수가 좋으면 마차도 얻어탈수 있는 큰 길과 인가가 적고 산세도 험한 수림지대로 통한 길이 놓여있었다.

류희는 범포지구 첫어구에 자리잡고있는 배나무굴을 먼저 통과하게 되는 첫번째의 길이 좋을뿐아니라 빠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철민은 웬일인지 두번째길, 사실상 길이 없고 할수 없는 수림지대를 택하는것이였다. 하필이면 왜 이 길로 가야 하는가, 공작상 안전을 위해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류희는 말없이 철민의 뒤를 따라 걸었다.

류희에게는 어쩐지 지금도 인민혁명정부사무실에서 《떠남시다》라는, 글자로 센다면 녀자밖에 안되는 말을 한것외에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말 한마디 없었다는것도, 그리고 그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아직 한번 그들의 간격이 좁혀진적이 없었다는것도 모두 적후임무수행에 필요한것 같이 생각되었다.

다만 그는 철민이가 한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나 일정한 거리를 정확하게 트림없이 보장하면서 걷는다는것만을 뚜렷이 느낄수 있을뿐이었다.

길은 갈수록 험했고 뻣뻣이 들어찬 수림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때마다 류희는 철민이 그 뻣곡한 숲을 뚫으며 길을 내기 위해 애쓴 흔적을 발견하곤 했으나 그 어떤 자존심때문이었든지 그 발자국들을 애돌아 걷군하였다.

어느덧 뻣뻣이 들어찬 수림을 지나 야산둔덕에 올라선 류희는 저도모르게 호-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야산밑에 마을이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왼쪽으로 얼마쯤 떨어진곳에 철민이가 서있었다. 바위코숭이에 올라서서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고있는 철민은 류희의 존재를 잊어버린듯하였다. 그는 앞을 더 멀리 보기 위해서인지 이따금 그 큰눈을 이마우까지 끄집어올릴듯 치켜뜨고 마을을 바라보는것이였다.

류희는 자기들이 목적지에 거의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어느것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듯 마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어 오래도록 서있는 철민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문득 철민이가 류희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먼 길을 걸어온 류희에게서 그 어떤 피로의 흔적도 발견할수 없다는것을 느꼈음인지 철민은 빙그레 웃으며 말없이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알릴듯말듯 스치고 지나갔다. 목다리아래까지 눈이 게발러 얼어붙은 류희의 버선발에 얼핏 눈길이 미쳤던것이다. 철민은 묻는듯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왜 퇴워놓은 길루 오지 않고...)

철민을 바라보는 류희의 야릇한 눈길은 《공연한 걱정이예요...》 하고 대답하는듯했다.

철민은 입가에 너그러운 미소를 띠우며 땀발이 선 류희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우리는 이자 겨우 절반 좀 남짓한 길을 축냈을뿐이요.》 하고 중얼거리듯 나직이 말했다.

《아니 거의 다 오지 않았어요?》

철민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다시금 류희의 버선발에 눈길을 보냈다.

《마을에 도착한것으로 우리의 행군이 끝나는것이 아니요...》

류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다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었다.

류희는 다시금 마을을 주의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따금 그 마을을 지나 령너머 어디엔가를 더듬기도 했다. 그 령너머에 배나무풀이 있을것이다. 그 배나무풀에 류희에게 있어서 친언니나 다름없는 정송이 살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지금은 그가 거기에 없는것이다. 눈길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 그의 얼굴에는 쓸쓸한 빛이 진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정송이 없는 배나무풀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으랴싶었다.

문득 얼굴을 들었던 류희는 두눈을 쫓프리고 말없이 바라보는 철민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생각을 알아맞혀보려고 애쓰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묻는듯한 철민의 눈길을 피하며 나직이 말했다.

《고개너머 한 10리 떨어진곳에 배나무풀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 이름 그대로 돌배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그 마을에 부녀회장 정송동무가 살고있었어요. 전 언니라고 불렀지요.》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긴채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래전 봄이었어요. 제가 통신연락을 갔을 때

엔 마침 돌배나무에 하얀꽃이 탐스럽게 피었던군요. 그때 정송언니는 움속에 묻어두었던 돌배를 웅배기에 담아 내놓는것이 아니겠어요. 꽃피는 시절에 돌배를 보고 놀라는 나를 이윽히 바라보던 언니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 꼭 우리 고향으로 가요. 그때는 우리 고향의 참배를 대접할게요...>라고 하면서 고향에서 나는 참배자랑을 하며 어찌나 구수하게 이야기하는지 꼭 동화의 세계 같았어요. 그러던 그 언니가...》

류희는 말끝을 채 마무리지 못했다.

철민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뿐이었다. 그 모양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타성으로 되어버린듯하였다.

《물론 저도 알고있어요. 마을에 도착하는것이 곧 우리 행군의 시작이라는것을... 그럴수록 정송언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는것은 어쩔수 없군요...》

나직이 울리는 그의 어조는 담담하였으나 어쩔수 없는 서글픔이 스며여있었다. 그래서인지 머리를 수긋한채 두눈을 비스듬히 감고있던 철민은 거의 무뚝뚝하리만큼 《동무에게는 아마 친언니가 없었던 모양이구만?》 하고 말했다.

《아이참, 친언니만 언닌가요뵤.》

성급하게 말끝을 잇는 류희의 어조에는 어딘가 모르게 남다른 감회를 눌러버린 그에 대한 야릇한 반발심이 스며있었다.

《하긴뵤, 그렇소... 허허.》

꺄꺄 웃으며 자기의 실책을 이렇게 급히 년장자답게 시정해버린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처녀를 건너다보았다.

한동안 머리를 수그리고 발끝을 내려다보던 류희는 쓸쓸한 빛을 띠우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하긴 저한테 친언니가 없어요. 동생도 없고, 얼마전 왜놈 <토벌>에 어머니마저 잃고...》

류희는 자기의 음성이 저도모르게 떨리고있음을 느꼈다.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슬픔에 얼마전 왜놈 《토벌》에 어머니까지 잃은 슬픔이 겹쳐서인지 근래에 와서 자주 그 어떤 서글픔에 빠져버리곤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를 보기가 딱한 모양 측은한 눈길을 보내곤했다. 그는 그러한 눈길을 받는것이 싫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인민혁명정부 회장이아버이가 이따금씩 그를 만나 《류희, 좀 웃으라구!》 하고 말하곤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을 다잡을길이 없었다.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것이 사라져버린듯한 허전한 생각이 조수처럼 밀려드는것을 막을수 없었다.

그는 지금도 한가닥 그런 어린 마음이 가슴속에서 슬며시 머리를 चु켜드느것을 가까스로 녹잡하며 머리를 들었다.

《정충언니에게 아들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이번에 꼭 알아봐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어딘가 간절함이 어려있었다.

두눈을 비스듬히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철민은 아이라는 소리에 두눈을 번쩍 뜨고 곧바로 류희를 바라보았다. 그랬으나 여전히 말은 없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침묵을 지켰다.

철민은 잠시 미소어린 눈길로 류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일제놈들한테 부모를 빼앗긴 아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소. …참, 봉선이라는 애는 잘 크오?》

류희는 잠깐 어정쩡한 기분으로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동기 <토벌>때 어머니를 잃고 울던 그 계집애 말이요.》

《아니, 그럼?!》

《허허, 이제야 알아보셨소? 그래 애는 잘 크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여전히 놀란 눈길로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류희의 눈앞에는 저도모르게 지난 동기 《토벌》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해의 동기 《토벌》에서 놈들은 유격근거지를 봉쇄해보려고 술한 주검을 내면서도 미친듯이 덤벼들었다. 그만큼 놈들의 《포벌》은 집요한 것이었다. 그럴수록 **김일성**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인민혁명정부를 사수하려는 근거지인민들의 투쟁도 결사적인 것이었다.

전투는 간고하였다.

아이들을 안전한 지대로 한참 대피시키고있던 류희에게로 불쑥 총을 멘 자위대원 한사람이 웬 어린애를 안고 나타났다.

《이 애를 좀 말아주오. 애어머니가 놈들한테 잘못됐소.》

그러며 류희의 가슴에 아이를 안겨주고는 달려오던 때와 같이 급히 되돌아서는 것이었다. 급한 전투정황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지금 앞에 서있는 철민이었다.

류희는 선망어린 눈길로 철민을 바라보았다.

철민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산길을 내려기 시작했다.

떠나야 한다는 말없는 신호였다.

× ×

이론아침이었다.

하얀 봄서리가 얇게 깔린 길우로 류희의 발자

국이 도려낸듯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직은 그 누구의 발자국도 찍혀지지 않은 길이었다.

범포지구에 도착한지 벌써 보름가까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배나무골로 향하는 류희였다.

좀체로 시간을 얻지 못한 그였다. 또 일부러 배나무골에 들러볼수도 없는 것이었다. 물론 배나무골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었으나 철민은 멀리 떨어져있는 조직들과의 사업이 우선 급한듯 거기에 힘을 돌렸다. 하긴 류희의 생각에도 그것이 옳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곳 조직들이 나가 며칠씩 눌러있곤 하였다.

그들은 피복류와 신발을 비롯한 원호물자마련 사업을 조직하는 한편 그곳 조직들에서 무시로 제기되는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어떤 부녀회조직에서는 경향이 좋기는 하지만 땅마지기나 있는 집 딸을 부녀조직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해왔다.

이런 사정을 깊이 고려한 철민은 류희에게 짬 시간을 내어 부녀회사업에 대하여 주신 **김일성** 장군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해설해줄것을 부탁했다.

그러다나니 한곳에 이르면 자연 2~3일씩 묵기 마련이었다.

어제야 그들은 하촌마을로 돌아왔다.

밤이 이슬기 흘렀을 때 철민은 문득 류희더러 배나무골로 혼자 떠날것을 지시했다. 자기는 다른 일이 제기되어 가지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것이었다.

배나무골로 가보아야 할 절박한 심정을 알고있던 류희는 별다른 생각없이 임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임무를 주고난 철민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류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류희동무, 무척 힘든 모양이군.》

류희는 느닷없이 흘러나온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종잡을수 없어 잠깐 어리둥절한 기분에 잠겨있었다. 그러다가 당황히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예요.》

《동무의 얼굴이 그걸 말해주고있소! 물론 힘들어서 그러는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신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오. 우리 혁명가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오. 설사 가슴 아픈 일이 생겨도 그것을 새길줄 알아야지… 거기에 포로해서는 안되오.》

철민이 다심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기는 처음이었다. 그저 느닷없이 흘러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런만큼 류희도 신중한 빛을 띠우고 그를 바라보았다.

철민은 인민들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부드럽고 또 상냥해야 한다고, 그래서 류희동무가 더욱 필요한것이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타이르듯 부드럽게 울리는 그 음성은 어딘가 절절했다.

류희는 잠시 머리를 숙이고있다가 머리를 들고 가까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알고있어요. 그런데...》

《물론 쉽지 않지... 그러나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오. 래일 이른아침에 떠나시오.》

철민은 덧붙여 일이 끝나면 인차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렇게 떠난 걸음이었다.

아침해빛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하지만 대기는 아직 차가웠다.

배나무곶에 이른 류희는 집간 서서 마을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걸음을 옮겼다.

정송의 집은 배나무곶에서도 유촉진곳에 자리 잡고있었다. 집뒤에 돌배나무 두그루가 서있고 수수올바자밖으로 얼마 좀 떨어져있는 큰 버드나무아래에 박우물이 있었다. 하얀 눈속에서도 더운 김이 피어오르던 박우물이었다. 항상 정갈하게 다루군하던 그 박우물위에 고삭아버린 나무잎 몇개가 둥둥 떠다녔다.

류희는 서글픈 눈길로 잠시 박우물을 지켜보다가 물위에 떠있는 락엽을 건지려고 손을 물결위에 가져다댔다. 순간 그 어떤 짜릿한 느낌이 손끝을 건드렸다. 그는 저도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눌러버리려는듯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본후 집주위를 긴장한 눈길로 더듬었다.

부엌문이 열려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자 이제 곧 그 누구든 부엌문을 닫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 긴장한 눈길로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열려진 부엌문을 닫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다급히 집가까이로 다가갔다.

싸늘한 랭기가 집주위를 감돌고있었다. 집은 비어있었다.

(그렇다면 금룡이는 어디에 있을까?)

원호물자운반을 조직하는 동안에도 내내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이 짝 차있었다.

이곳 조직에서도 금룡이의 소식을 몰라 몹시 안타까와하고있었다. 지금 찾고있는중이라고들 했다.

무엇때문에 정송은 금룡을 데리고 떠났을까?

그는 상촌마을에서의 이번 공작이 위태로운것이며 따라서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것을 예견하고 금룡이를 데리고 떠난것이 아닐까? 필경 그랬을것이다.

류희는 좀 늦어지더라도 상촌마을에 들려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가면 어디서든지 소년을 만

날수있을것 같았다.

버들곶에서 처리해야 할것들을 마저 처리하고 난 그는 서둘러 상촌마을로 떠났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금룡이를 만나지 못했다. 알길이 묘연했다. 그는 철민이 기다릴것 같아 바삐 돌아서긴 했으나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지름길을 타고 산정에 올라서자 멀리 그들이 묵고있는 하촌마을이 내려다보였다. 그 마을위에 황혼빛이 고즈넉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어느덧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연하게 피여오르는 저녁연기를 바라보던 그의 눈길은 금시 하늘을 치받을듯 가지를 뻗친 돌배나무에 멎었다. 우듬지 한끝에 석양의 피빛노을이 붉게 물들어있었다. 정송의 집 배나무에도 저 석양의 노을빛이 붉게 물들어있을것이다. 그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저려나기 시작했다.

유격대원들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을 지켜 싸운 정송의 숭엄한 모습이 떠올랐다. 이 순간 금룡이의 소식도 모르고있는 사실을 그가 안다면 얼마나 원망하랴싶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덧 강변길을 에돌고있었다.

강변을 따라 이리 구불 저리 구불 뻗어올라간 산협에서 갑자기 소방울소리가 울렸다.

이윽고 등뒤에서 요란스레 소방울소리가 울리니 한 청년이 달구지에서 뛰어내렸다. 뒤로 고개를 돌리고 청년을 바라보던 류희의 눈가에 놀라움이 비끼었다.

《알아보았소?》

개털모자를 깊숙이 내려쥔 철민이 그것을 약간 이마우로 올리밀며 빙그레 웃었다.

《다른 정황은 없었소?》

《네, 없었어요. 무사히...》

《수고했소. 그런걸...》 철민은 달구지위에 실은 나무단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류희는 철민이가 자기자신을 각근히 뒤받침해주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가슴이 뜨거웠다. 자기를 근심하여 철민은 나무군차림으로 이곳에 와 나무를 했을것이 아닌가. 그러며 자기를 근심한 철민을 생각하니 그는 미안쩍은 생각이 들어 얼굴을 숙였다.

철민은 아무말없이 저녁해를 가늠해보더니 먼저 달구지위에 올라앉으며 고삿을 틀어쥐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말없는 신호라는것을 느낀 류희는 바퀴살을 쥐여잡으며 나무단에 손을 뻗치였다. 철민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쥐었다. 그러던 철민의 눈길이 축축히 젖어버린 류희의 버선발에 머물었다. 철민은 놀라운 어조로 물었다.

《길이 험했소?》

류희는 철민의 놀랍게 치켜뜬 눈길을 피하여 머리를 숙이었다.

《저… 사실은… 금룡이의…》

입을 꼭 다문 철민은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고도 알수 있는 문제였기때문이였으리라.

벗어섰던 달구지가 다시금 덜컥덜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달구지는 어느덧 하촌마을쪽으로 뻗은 길로 접어들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셈이다. 멀리 황혼 속에 묻혀있는 하촌마을이 바라보였다.

《첫째야!》

문득 저녁 먹으라고 아이를 불러들이는 녀인의 정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퍽 부드럽게, 아늑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류희는 아래마을 그 어덴가를 바라보는것이였다.

《첫째야-아!》

다시금 아이를 찾는 녀인의 목소리가 종전보다 조금 더 또렷이 들려왔다.

류희는 저렇게 황혼이 짙어갈수록, 저녁때가 되면 어머니와 함께 어디에 갔는지도 모를 동생을 찾아 헤매던 어릴 때의 일이 생각키웠다. 아니 그보다도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방황하는 금룡이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졌다.

저녁때가 되었지만 그를 불러들이는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이 가슴속을 콕 찌르는것이였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더욱 서글퍼지는것이였다. 철민이가 그토록 명랑해질것을 바랐지만 류희는 자신을 이겨내지 못했다.

철민이도 생각에 잠긴 눈매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따금 그의 눈에서는 어떤 섬광같은것이 번쩍이는듯싶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수 없었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공작지에서 긴장된 나날을 보내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윽고 생각에서 깨어난듯 철민이 얼굴을 돌리며 나직이, 그러나 힘들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곧바로 올걸 그랬소!》

그렇게 짧게 올린 그 목소리에는 몇백마디의 말에 비길수 없는 강한 질책이, 그리고 조금도 드팀없는 원칙적인 요구가 담겨져있음을 류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잠시 아무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있던 류희는 머리를 들었다. 철민을 이윽히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전, 어쩐지 그대로 올수 없었어요. 정송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렇다면 더욱 곧바로 올걸 그랬소.》

성이 난듯한 철민의 거친 음성에는 움직일수

없는 고집이 어려있었것 같았다.

그들의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고삐를 소잔등에 얹으며 앞을 바라보던 철민이 좀 누그러진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나도 알아보겠소.》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봉선이라는 애가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소?》

《어머니 생각을 가끔 하긴하지만 뭐 그래도 아이가 무척 명랑해요. 노래도 잘 부르구…》

류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노래두? 허허 어머니 생각때문에 슬퍼할가봐 걱정이였는데… 명랑하다니 얼마나 좋소! 하긴 그게 우리의 힘이구 기쁨이지…》

철민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달구지를 세차게 몰았다.

류희는 그가 봉선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묻는것이 아니였다. 그 애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기쁨과 행복을 찾고있는것이다.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는 철민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도 철민동지가 봉선이에게 기울이고있는만큼이라도 정송언니의 아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사랑을 기울이고싶어요!)

× ×

적후에서의 나날은 언제나 드바쁜것이였다. 긴장으로 한껏 헤워진 금선우에 그 어떤 시간적공간이 자리잡을 틈이 없었던 탓인지… 긴장된 시간 그 자체가 임무수행의 나날을 앞으로 앞으로 그러당겼던지…

파스한 봄별이 처마끝에 매달려던 고드름이며 개울옆에 드문드문 남아있던 얼음까지 말짱 녹여버리고 어느새 개울가에 버들개지를 피워놓았는지 류희는 알지 못했다.

가름한 고개턱에 손을 고이고 생각에 잠긴 그의 눈길이 저녁 봄별이 연하게 흘러드는 피창가를 물끄러미 지켜보고있었다.

래일이면 여기에서 그들의 임무는 끝나는것으로 된다.

한동안 아무말 없이 범포지구 조직들과의 사업정형을 총화짓던 철민이 우선우선한 빛을 띄우며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류희동무! 그동안 퍽 고생했지. 잠도 변변히 자지 못하고…》

그 음성은 퍽 부드러웠다. 철민의 웃음어린 얼굴을 바라보던 류희는 이 며칠동안 긴장한 나날을 보내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자 얼른 고개를 숙여버렸다.

무언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이였다.

그들은 서로 범포지구에서 지내온 날들을 더듬어보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이때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한 청년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철민에게 금촌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 왔다고 알렸다.

철민은 급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나간후에도 류희의 눈앞에는 철민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류희에게는 이때까지 임무수행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것은 철민이 그자신이였다는 생각이 짙게 갈마들었다.

상촌리에 들렀던 그날밤도 철민은 버들골 부녀회사업을 지도하느라 밤을 꼬박 밝혔다.

그것을 때늦게야 깨닫게 된 그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가!

그에게는 쏘아붙고 부어도 진할줄 모르는 어떤 힘이 있는것 같았다.

철민의 완강한 노력으로 임무수행은 끝난셈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물론 더없이 기쁜것이였다. 그러나 한편 그에게는 그 기쁨을 밀어내며 금룡이에 대한 생각이 가슴속에 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철민자신이 그것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만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한것 같았다.

어쩐지 모든것을 철민이에게만 의탁해버린 자기의 처사가 못내 안타깝게 여겨졌다.

그러니 어떻게 래일 그냥 여기를 떠날수 있을 것인가, 온 근처지사람들이 어머니를 잃은 금룡이가 홀몸으로 적 통치구역에 떨어져있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할 것인가. 더우기 아등단사업을 맡아보는 그자신이 어떻게 그 애의 행처도 알지 못한채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 하나만을 안고 돌아가랴, 그럴수록 정송언니의 얼굴이 그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은 저러났다.

그는 줄곧 이 하나의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다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나섰다.

어느덧 연한 빛을 뿌리던 한가닥의 해빛마저 사라졌다. 그러자 저 멀리 검스레한 산마루에 달이 올라앉아 마음의 이곳저곳에 빛을 뿌리며 엿보기 시작했다.

달밝은 밤이였다.

마을 곳곳에서 돌아치며 숨박꼭질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적통치구역에서 어렵게 살고있지만 그래도 저 애들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렇게 한때라도 웃으며 뛰놀수 있는것이 아닐가?)

그의 가슴속에서는 점차 이 밤안으로 금룡이를 찾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굳어져갔다.

그는 철민이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철민은 무슨 일때문인지 오래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조급한 마음을 안고 철민이 묵고있는 집으로 걸어갔다.

철민의 방에서 연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아직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모양,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잠시 기다려볼 생각으로 토방앞에 서있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저도모르게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속에 금룡이의 이름이 두간두간 섞여 흘러나왔던것이다.

류희는 세차게 뛰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참, 철민동무, 금룡이의 소식을 모르고있지요?》

금촌조직에서 찾아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철민은 대답이 없었다.

《아주머니가 놈들에게 체포되는 날 어떤 할머니가 그 애를 데리고 우리 있는곳으로 찾아왔더군요. 그 애에게만이라도 위험이 미치지 않게 하려구...》

금룡이를 우리 금촌조직에서 돌보구있지만뭘, 어머니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잠시후 철민의 떨리는 음성이 낮게 울렸다.

《이미 알고있었소.》

그러자 상대방의 놀란듯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예?! 그럼 알면서두 한번도 들려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철민의 켠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너무합니다. 그건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수 있어요? 더구나 아버지로서말입니다.》

《아버지?!》

류희는 저도모르게 입밖으로 이런 놀라움이 튀어나오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금시 온몸이 녹아버리는것 같은 착각에 그는 얼른 엇비스듬히 지붕을 버티고선 나무기둥을 붙들었다.

방안에서는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커다란 그림자가 방문을 가로막고 섰다. 가볍게 뒤집을 진 철민의 수곳한 모습이 담벽처럼 류희의 눈앞에 비쳐왔다.

잠시후 진정이 어린 철민의 음성이 숨새어나왔다.

《고맙소! 수영동무, 동무들의 심정을 내 왜 모르겠소. 그리구 왜 그 애를 만나구싶지 않았겠소. 허지만 그 애를 만나러 일부러 갈수는 없었소.

원호물자를 운반해야지요...》

《글쎄 저도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룡이는 어머니를 잃은 아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그 애에게 있지요.》

《어머니를 잃은 애가 어디 그 애뿐이겠소? 근처 거처에도 그런 애들이 많소. 애들뿐이요? 여기 같이 나온 류희동무도 얼마전 <토벌>에 어머니를 잃었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슬픔에 잠겨있을 수는 없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웃으며 전진해야 할것이지요. 우리가 모든것을 다 잃은것은 아니요. 우리에게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미래가 있는것이지요. 그러니 좀 참아야지요...》

철민의 음성은 낮게 울렸다. 그러나 그 음성은 무언지 모르게 격동적으로 울렸다.

《하긴 금룡이 그 애가 이제 배꽃이 피면 왜놈을 이기구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합디다.》

《배꽃이 피면?...허허.》

철민의 웃음소리가 낮게 들렸다.

류희의 눈엔 불시에 불안개같은것이 확 피여오르며 뿌옇게 흐려졌다.

물기를 머금은 그의 눈에 달이 퍼그나 작게 비쳐들며 떨고있었다.

그 달빛이 가까이에서 흘러드는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득히 저 멀리 어디에선가 희미하게 비쳐드는것 같기도 했다.

(철민동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류희는 이제까지 자기가 겪어보지도, 느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계가 있음을 비로소 느낀듯싶었다.

말이 적으며 지어 무뎡뎡하다고 느껴졌던 그의 심중엔 얼마나 숨엄한 세계가 깃들어있는것인가. 그것은 슬픔을 말없이 투쟁으로 이겨내는 참다운 세계였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스스로 찾아들고 누구나 선뜻 들어서게 되는 그런 세계는 아닐것이다.

《어쩌문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입속으로 가늘게 속삭이는 그 음성은 파르르 떨렸다.

방안에서는 둘다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지 아무말이 없었다. 이따금 높은 숨결소리가 흘러나올뿐이었다.

이윽고 철민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 친을 오늘밤안으로 운반해야겠소. 놈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동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련한 원호물자가 아니요. 같이 갑시다.》

《아니 뭐 저희들이 약속된 지점으로 운반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단순히 의무감때문만이 아니요... 우리 근처지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힌 소식을 들으시면

김일성장군님께서 얼마나 만족해하시겠소. 그게 어떤 애들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을 꽃봉오리라고 말씀하시었소. 그 귀중한 말씀에는 우리 혁명의 대를 역세게 이어나갈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있소.》

방문을 여는 기척소리가 났다. 그들이 밖을 나섰다.

류희는 잠간 비켜선채 멀어져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흰한 달빛속에 그들의 모습이 멀리에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비쳐드는것 같았다.

류희는 그 어떤 큰 결심을 지니였을 때의 그런 혼연한 낮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급히 울뺨을 나쳤다.

봄안개속을 휘저으며 희뵤한 달빛이 강물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있었다.

머리를 갓 내밀기 시작한 풀잎마저 깊이 잠들어버린듯싶은 밤이었다.

류희는 강 옷목쪽에 안타까운 눈길을 던진채 강가에 서있었다.

강기슭에는 원호물자를 만재한 한척의 나루배가 기슭을 치는 물결에 흔들리며 떠날 길을 재촉하고있었다. 그런데 버들골에 나가있는 철민이 편에선 아직 소식이 없다. 사방은 그저 고요할뿐이었다.

어서 빨리 떠나자고 조르는 금룡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류희는 어쩌면 그대로 날을 밝힐것 같은 초조한 마음을 가가스로 달래였다.

시간이란 참 묘한것이기도 했다.

길어질것을 바라면 그저 눈깜박할 사이에 달아나고 빨리 흘러갈것을 바랄 때는 지루하게 늘어지는것이 시간이다.

지금은 어쩐지 그 시간이란것이 물같이 자꾸만 흘러가는것 같았다.

문득 강 상류에서 발자국소리같은것이 소연하게 들려왔다. 그는 귀를 강구었다. 조용했다. 착각일까? 그렇게 얼마쯤 지나자 다시금 발자국소리가 더욱 뚜렷이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철민의 모습이 멀리에 보였다.

그 순간 류희는 자기의 얼굴에 달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 흘러드는것 같은 환희에 휩싸였다.

《철민동지!》

그는 나직이 그러나 힘있게 부르짖으며 마주 달려갔다.

《떠날 준비는 다 되었소?》

《네! 전부 배에 실었어요!》

《수고했소! 그런데 동무가 먼저 떠나야겠소. 조직의 통보에 의하면 놈들이 인차 이리로 밀려들

것이 예견되오. 저쪽 대안에 우리 동무들이 대기하고있을거요.》

《아니 그럼?...》

《내 걱정은 마오. 어떤 일이 있어도 원호물자는 안전하게 도착되어야 하오.》

류희는 시간이 촉박했음을 느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연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저, 금룡이를 데리고 떠났어요...》

《금룡이를?...》

《네, 이건 그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놀랍게 치쁜 철민의 눈길에 곧바로 류희에게 던져졌다.

입을 꼭 다문채 아무말 없이 안개속을 뚫고 주절거리며 흘러가는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섰던 철민은 몸을 뒹 돌려 먼발치에 서있는 금룡이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희미한 달빛에 반사된 금룡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마치 그 모습을 오래도록 새겨두기 위해서인듯.

금룡이는 앞에 다가와 선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거나 하듯 흘금흘금 류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저 애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것이 아닌가?)

류희는 급히 금룡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다.

《금룡인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나요?》

금룡은 그의 얼굴을 힐끔 바라보았다.

《물라-울 아버진 배꽃이 필 때, 일본놈을 이기 구 해방이 돼야 온댔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운 아들을 얼싸안을듯 두팔을 벌리고 다가서던 철민이 아들의 말이 뜻밖인듯 무뚝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동안이었다.

철민은 아들을 한품에 그러안고 머리위로 추켜올리며 껄껄 웃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의 아버지는 일본놈을 다 없애구 해방이 돼야 돌아온단다. 꼭 돌아오구 말구.》

철민은 자기자신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열기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류희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었다. 맑은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다.

철민은 아들을 땅에 내려놓으며 혼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허, 그 놈 별스레 눈이 큰걸!》

《행- 아저썬 잘 몰라, 눈이 커야 앞을 잘본댔어.》

《허허, 하긴... 눈이 커야 앞을 잘 보구말구...》

철민은 껄껄 웃으며 급히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곱에서 무엇인가 달빛에 번쩍-하고 빛나는것이 있었다.

류희는 그대로 서있을수 없었다. 그는 금룡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가슴속에서 뚫어번지는 격정을 이겨내기에는 그의 가슴이 너무나도 작았다.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벅찬것이기도 했다.

잠시후 등뒤에서 철민의 음성이 울렸다.

《자 그럼 류희동무! 어서 떠나시오!》

결연히 나무배있는곳으로 힘있게 걸음을 옮기는 그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렇게 걸어가는 철민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금룡이를 이끌고 나무배 있는곳으로 다가갔다.

철민이 그들쪽을 향해 돌아섰다. 웃음어린 그의 모습이 달빛속에 우뚝이 드러났다.

류희는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슬픔을 웃음으로 빛내며 억세게 투쟁해나가는 참된 사람의 빛나는 삶을 보았다.

웃고있는 이 순간도 철민은 원호물자의 안전을 위해 적을 따돌릴 생각을 할것이다. 그의 앞길에 어떤 위험이 덮쳐들지도 모른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런 빛이 추호도 없지 않는가. 그는 혼연한 빛으로 자기들을 바래우고있지 않는가!

류희는 비로소 자기의 가슴속에 서려돌던 한가닥의 서글픔을 밀어던지고 웃으며 전진할수 있을것 같은 신심이 온몸에 스며드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웃을수 없었다.

가슴한복판에서 뜨거운 생각이 굵이치고있었다.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개인적감정을 내려버려야 한다는것을 깊이 체험한 이 순간 그는 자기도모르게 개인적감정에 지고 말았던 자기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슬픔을 마를줄 모르는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친혈육에 대한 육친의 감정도 혁명에 대한 사랑으로 바꿀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필요하다면 웃을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적후임무를 수행하면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는 그 진리를 체득하게 된 기쁨이 그에게는 참으로 큰것이였다.

얼마나 혁명의 품이 고맙고 또 것처럼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들먹이 차오르는 감동을 안고 배에 오른 그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참다운 진리를 깨우쳐준 사랑의 지점, 범포지구를 깊이 새겨두려는듯 오래도록 눈길을 보냈다.

이 기슭에 서니

김재윤

여울져 흐르는 압록강의 물결도
그날의 회고에 잠겨서인가
조용히 기슭을 스치며 내리는
오, 구시물동, 구시물동...

항일의 투사들
장군님 따라 올 때에는
못내 그리웠던 조국의 첫 기슭이어서
도하의 그 짧은 시각에도
가슴에 넘치는 조국의 훈향에
눈시울 젖던 이 기슭이여

보천보의 밤하늘에
민족재생의 서광 펼치고
다시금 또다시
떠나가야 하던 때는

여기가 조국의 마지막 기슭-
차마 발걸음 떼지 못하던 대원들은
네 기슭의 한줌 흙
가슴에 안고 떠나갔다.

이름없는 조국의 복변 이 기슭에서
온 조국땅을 끌어안을듯
한줌 흙 움켜쥐고
굳은 맹세에 불을 적시던 그날의 그 뜨거움
내 가슴에 넘친다
-조국이여! 다시 돌아오리라!
장군님 모시고 영원히
네 품에 돌아오리라!

눈물속에 손저으며 따라서던 인민들-
조국을 두고 가던 투사들
그 불같은 신념
여기에 남기고 갔으니...

오오, 세월은 흐르고
옛 기억은 사라져가도
행복한 이 나날에
내 언제나 잊지 못하는 이 기슭-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영원한 환희에 끓는 오늘의
이 땅, 이 기슭에 서니
내 가슴에 서리는
뜨거운 생각이여

떨어지기 아쉬운 길을
떠나야만 했던
그날의 발자국들
이 기슭에 찍혀져있기에
내 삶이 한순간도 조국을 떠나
떨어짐 없이
이 땅에 꽃피었구나!

아, 조선의 새세대
축복받은 나의 삶
조국이여, 어머니 땅이여
그대와 떨어져 살지 않는 나의 행복이
충성의 길우에서만 더욱 아름다움을
이 기슭에서 뜨겁게 받아안노라

옛격전터를 투사는 거닐은다 (외 1 편)

전병구

보천보 보천보

싸움의 옛거리를 더듬으며

가림천기슭을 투사는 거닐은다

어제날 전우들의 목소리 들려오는듯

곤장덕을 굽이도는 물결소리, 물결소리-

도하지점의 그 기슭을 따라

투사는 걷고 또 걷는다,

수리개 한마리 깃을 펴고 날으는

곤장덕-

푸른숲에 묻힌 아슬한 벼랑길,

싸움의 발자취 력력한 그날의 오솔길은 어디이나

말하라 설레는 물결이어

어둔 밤의 고요속에

별목부들의 한숨소리도 꺼져가고

술취한 왜놈들의 허까부러진 소리

거리우에 어지럽던 그날 그밤

곤장덕을 넘어 가림천 물결을 건느던

전우들의 목소리 들려와라

-동무들! 여기가 보천보요!

진두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태양처럼 환한 그 영상을 우러르며

감격에 젖어 부르던 대원들

-조국땅이요!

아, 조국땅

얼마나 그려보던 그 이름이었던가

어머니의 등에 업히어

깃을 헐린 새무리처럼

눈덮인 광야로 정처없이 떠나갔던 날이여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투쟁을 시작하고

난생처음 조국땅을 밟아보기에

싱그러운 풀향기에

뜨거운 눈물로 불을 적시던 전령병

더없이 소중한 그 이름을 오늘도 조용히

불러본다

-조국!

잃어버린 조국이어서 그토록 귀중했던 강산

투쟁으로 찾고 꽃피운 조국이기에

더없이 귀중한 그 이름을 되뇌인다

아, 조국! 조국!

그립던 땅을

그리움의 눈물로 적시던 투사

행복이 꽃핀 이 기슭을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적시여라

아, 가림천

투사는 옛 격전터를 걷는다

조국땅우에 해방의 총성을 울린 영광의 기슭!

귀밀머리에 흰서리를 엮었어도

끓었던 시절에 밟아본 이 땅을

투사는 한생토록 걷고 또 걸으리라

곤장덕의 오솔길

하늘끝에 닿은듯
이팔나무 그늘속에 곱이쳐간
곤장덕의 오솔길,
오솔길이 가파로와
발걸음 이리도 더딘것인가

적정을 살피던
망원초의 신호소리처럼
빠꼭, 빠꼭...
구성진 그 울음소리도
깊고깊은 생각을 불러내는 길

오늘도 빛나는 불멸의 그 자옥우에
산국화 곱게 핀 언덕
발걸음도 승엄히 멈추어 서본다.
그날의 전령병 강대를 두드리는듯
이팔나무숲속의 휴식터자리-

잡초 무성한 세월의 숲을 헤치시며
수령님께선 이 길을 내시였구나
별처럼 빛나는 그 자옥을 따라
보천보로! 조국으로!
대원들도 폭풍처럼 달려 넘어왔구나

보리고개우에서 한숨짓는 농군들에게
발같이 좋은 땅을 안고 오신 길
फल의 그 소년들에게도
배움의 넓은 문을 열어오신 길,
어두운 구름장이 뒤엎었던 이 땅에
조국을 안고오신 역사의 길, 해방의 대통령-

이 길로 우리는 달려 넘는다
길 아닌 이 길로 안고 오신 조국
조국의 그 모습이 백두의령봉에 새겨있기에
걸음마다 뜨겁게 밟아보며
구시물동, 구시물동으로
온 나라의 발걸음을 합쳐간다
아, 천년만년 넘고넘어도 끝이 없을
곤장덕, 곤장덕의 오솔길이어!

런결원

김영길

혁명소조원 조순복의 경력을 글로 적는다면 아
지 백지 한장을 채우지 못한다.

철도대학으로 추천받아 가기전까지 어느 자그
마한 역에서 런결원으로 일했다.

런결원이 되어 처음으로 몸을 반쯤 땅으로 제
끼고 화차공무니에 달려다닌 날 팔과 어깨박죽이
시큰하고 웅글은 차소리가 침대를 그냥 흔들여
대는듯하여 제대로 자지 못했던 조순복이었다.

3년후 대학으로 갈 즈음에는 야들야들하던 팔
에 닭알같은 근육들이 울퉁불퉁 배이고 다치면
텅겨날듯 앞가슴까지 불룩 나왔었다.

조순복의 육체적준비-그것은 시간이 더해준것
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만 되면 달
리는 차에 오르내려야 했으므로 조순복자신이 산
발을 치달이기도 하고 땀뿜기를 하노라 매일아침
물주머니가 된 런닝그를 갈아입으면서까지 끈덕
지게 한 덕분인것이였다.

어느 초겨울 퇴근하던 역장이 얼음구멍이에 사
람이 빠져 허우적거리는것을 발견하고 달려갔을
때 이를 떡떡 쫓으면서 히죽 웃고있는 사람, 조
순복런결원을 발견하고 혀를 내둘렀다는 이야기는
그 산간역에 남겨놓은 일화들중에서 오늘까지
도 남아있다.

겨우내 쌓인 눈이 봄별에 야금야금 소리없이
녹아 땅으로 잣아들듯 런결원생활로 이루어진 매
듭들이 몸에 스배여 그것은 조순복에게 투지와
강의성을 주었던것이다.

거기에 대학과정은 과학기술의 기초지식과 사
람을 중심에 놓고 엮혀진 사회의 제관계를 고찰
할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었고 지성이라는 자양분
까지 주어 조순복은 말 한마디 한 발자국의 움직
임에도 의의를 부여할줄 알았고 그러면서도 과단
성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우리 시대의 청년인테리
로 자라났던것이다.

항상 무엇인가 찾고있는듯 약간 날카로울사하
게 살아난 코마루 량쪽에 깊숙이 박힌 자그마한
조순복의 눈은 낮에도 별처럼 빛나고있었다.

조순복은 벌써 소조생활현지로 떠나기전에 철
도의 현실태에 대한 일반묘해를 했었다.

어렵듯하나마 조순복은 자기의 구상을 가지고
기차에 올랐었다.

...걸린것이 화차라고들 했다. 게다가 국가의
재산치고 주인 없이 떠다니는것이 화차라고들 했
다. 《주인없다》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조순복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청년이 바로 어제저녁 밤차로 《ㅅ》철도분
국 혁명소조원으로 새로 배치받아온 조순복이다.
소조종합실을 나온 조순복은 역장실을 찾아가고
있었다.

맑고 따스한 초여름의 아침해살은 구내를 골고
루 비쳐주고있었다.

역장실은 2층 제일 안쪽에 있었다.

역장실에 첫발을 들여놓은 조순복은 자못 놀랐
다.

회의중이 아닌가싶게 사람들이 많았던것이다.
사람들은 들어온 차제인듯 벽가에 붙여놓은 장의
자에 촌촌히 박아앉았다.

문소리에 송수화기를 든채 엉겨주춤 일어섰던
역장은 천천히 도로 앉았다.

역장은 아까부터 풀먹인 깨끗한 보위색작업복
에 모자만은 모표자리가 또렷한 까만 대학생모를
썼을 새 혁명소조원이 나타나기를 이체나저체나
기다리고있는참이였다.

전화기를 든채 상대방을 기다리느라 한참 덤덤
히 앉아있던 역장은 곤색 홀쏘옷에 눈이 시게 하
얀 와이샤쯔 앞가슴으로 푸른 점이 오솔오솔한
넥타이를 내리드리운 조순복이 책상앞으로 다가
서자 조급히 말을 꺼냈다.

《화물지도원실로 가보시우.》

《예?-》

《차방통때문에 오시지 않았소?》

《아닙니다. 전 바쁘지 않습니다. 어서 전화를
받으십시오.》

조순복은 조용히 뒤걸음질로 물러섰다.

《후...후-객화차대장이요? -역장 문제오라니까.
소석회 긴급수송이 제기된걸 아는가말이요?-모
른다- 하긴 거야 우리 역의 일이니까. 그런데 화
차가 께진게 많아서 곤란하단말이요. 이거야- 우
리 상하차반장이 내열에 와있소...》

역장은 재빨리 한 손으로 송수화기를 감싸쥐더
니 반장에게 불량화차의 번호를 묻는것이였다.

이때 또 다른 전화기가 따르릉- 하고 우는바람
에 량손에 송수화기를 든 역장은 눈짓으로 독촉
했다.

역장의 역양은 특징적이였다. 상대방에게 성내
야 할 대목에서도 조잘거리며 흐르는 시내물소리와
같이 거의나 고저가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질
에 몹시 찌든 사람이 틀림없었다.

조순복은 뒤더수기를 굵적이는 반장과 역장의
량미간에 붙어있는 기미가 푸릿한 빛을 내며 도

드라지는것을 보았다.

역장은 한쪽 전화통에는 웃는 소리로 말하면서 객화차대장과는 여전히 피대는 돈구지 않으면서도 사업상한계와 책임문제여부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선을 긋고있었다. 과연 전화의 능수였다.

《...앉아서 번호나 따질게 있소- 나와서 보라니까. 뭐-? 바지에 실밥이 터진것두 피복공장으루들구 가는가구? 어?- 이달에두 화차수리계획을 125,3프로 했다- 잘하오, 잘해. 객화차대장이 그따위로 배포가 유하니 화차가 그냥 딸리지. 짐이 늘어난다는걸 알란말이요. 짐이- 여보시오-시간이 없어서 긴 말 못하겠는데요- 판자를 가지구나와서 박든지 다른 화차를 내든지 합시다예-》

역장이 잠깐 말을 끊고 숨을 돌리는 때였다. 말한마디 없이 조용한 방안에 푹푹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기에 지친 사람들이 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조금조금 꺾어서 문이 열리더니 철도제복을 입은 처녀가 사뿐히 들어섰다.

처녀는 문턱을 넘어서자 한손을 들어 귀가에 살짝 붙이며 인사를 했다.

역장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턱으로 조순복의 열자리를 가리켰다.

처녀는 처음 선자리에서 좀체로 움직이지 않았다.

조순복은 생활습관대로 새로 들어온 처녀를 여러모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방안에 들어선 처녀가 눈을 가느스름히 뜨는것으로 보아 출표원이나 안내원 같지는 않고 밖에서 일하는 전철원이 아닐가싶었다. 그렇다치고는 얼굴 살갗이 너무도 맑고 부드러워보였다.

몸에 꼭 맞는 연회색제복과 금박지로 멋을 낸 석줄박이령장의 빛갈때문인지 처녀의 몸 전체가 환해보였다.

무엇인가 안타까움을 호소하려는 사람처럼 처녀의 눈은 설새없이 깜빡이고있었다. 아마 말할 기회를 엿보는 모양이었다.

끝났는가 했던 전화가 또 이어졌다.

《여보시오. 그렇게 걸구채지 맙시다예- 그래 화차 깨여진건 우리 기중기가 다 한 노릇이겠소- 좌우간 알아는 봅시다.》

역장은 랑손에 갈라쥐였던 송화기를 겨끔내기로 절걱절걱 놓더니 상하차반장을 일으켜세웠다.

《반장동무! 기중기가 화차를 다 마사먹는대구 또 걸구드오. 세찬이 그 동무 왜 그 모양이요, 사상에 걸렸소, 기술부족이요, 어느쪽이요?-》

《역장동지! 바가지가 크다구 전번에도 제기했는데 해결 안됩니까?》

역장은 사업업지를 절반 쪽 갈라 펼치더니 상

대방의 의견을 적는것인지 말이 시작될 때부터 몇자 부리나케 쓰더니 원주필을 놓았다.

화차. 여기서도 역시 화차문제가 제기된다는것을 조순복은 무심히 들어넘길수 없었다.

조순복의 앞에 선채로 몇번인가 움지락거리던 처녀가 역장앞으로 다가섰다.

《역장동지! 절 북쪽초소로 옮겨줄수 없습니까?》

《아니, 선우금녀동무가 갑자기 초소를 옮겨달라는건 뭐요. 왜- 짐이 그쪽이던가-》

《아닙니다.》

《그럼 뭐요. - 남쪽초소가 어디 몇천리라도 되나- 얼어지면 코당을덴데. 제자리가 좋아. 초소도 잘 꾸렸더구만.》

금시 무슨 말인가 하려고 입을 벌리던 처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입술을 오무라뜨렸다. 한참만에야 처녀는 입안의 소리로 말했다.

《필요해서 그럼니다.》

《누구나 제기할 때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지. 그런데 자기하나만 생각하면 되나- 큰걸 봐야지. 그렇지 않나-》

역장은 알만하다고 하면서 웃었다.

조순복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도 알수 없는것이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처녀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역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해했을까?...

도톰한 입술을 곱게 깨물고 말없이 서있던 처녀는 《조용한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했다.

꼭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처녀는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를 하고는 인차 돌아서 나갔다.

문닫기는 소리가 나자 반장이 혼자소리로 말했다.

《요새 세찬이와 자주 만나더니...》

그 소리에 역장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뭐요- 련애걸이를 하는게 아니요?- 큰일나겠소.》

역장은 문쪽을 한참이나 훑어보았다.

역장은 두명이 동시에 내여미는 문건을 받아놓고 천천히 안경을 꺼내었다.

조순복의 차례가 왔다.

조순복은 성큼 일어서서 역장앞으로 다가갔다.

《인사가 늦어 미안합니다. 같이 사업하게 될 혁명소조원 조순복입니다.》

《예?!-사람단련에 눈이 다 어두워졌군, 허...》

역장은 계면쩍은듯 낯을 붉히면서 조순복의 손을 마주 잡았다.

《가만, 복잡해놔서 처리 소조실로 갑시다.》

조순복은 역장을 따라 나섰다.

역소조실은 복도로 조금 가다가 맞은쪽에 있었

다.

역장은 소조실로 들어서면서 창문들을 열어놓았다. 역장은 얼굴에 너그러운 웃음을 띠우며 마주앉았다.

조순복은 역장에게 사업조직을 마저 하라고 몇 번이나 권했다.

《그럼 오늘은 짐이나 풀어놓고 사무실이나 익히십시오. 인차 오겠습니다.》

역장이 나가자 한참후 조순복도 사무실을 나섰다. 조순복의 마음은 벌써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다.

역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려니 웬일인지 도수를 넘게 뜨거운 물속에 든듯 가슴답답하던것이 밖으로 나서는 몸가짐이 한결 편했다.

조순복은 한참동안 2층 홀에서 서성거리며 거창하게 펼쳐진 조차장과 역구내를 내려다보았다.

《X》역은 비교적 큰 기술역들중의 하나였다.

눈길이 모자라게 넓은 조차장에 수백갈래로 뻗어간 철길들은 마치 조용히 흥떡이는 호수면과도 같이 반짝반짝 해빛을 반사하고있었다.

소리없이 큰쪽으로 굽히는 그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듯 가운데의 철길로 비단원료인 황금빛 갈을 산더미처럼 실은 열차가 쭈욱 췌고지나간다.

한낮의 쟁글쟁글한 해빛이 한껏 달아난 유조차의 둥근 몸통들에서는 마치 꿀벌떼가 덮석운듯 아지랑이 아물아물 타오르고있었다.

서있는 사람, 잡념에 잠긴 사람들을 깨우쳐주듯 갑자기 뿜- 하는 전기기관차의 짧고도 웅골찬 기적소리가 여운있게 구내의 상공으로 울려퍼졌다.

혹시 깨어졌다는 화차가 남쪽초소쪽에 있지 않을까. 조순복은 알아보고싶었다.

조순복은 숨을 들이긋고 그 처녀가 있을 남쪽초소를 향해 계단을 내리었다.

조순복은 역장으로부터 《통》을 맞고간 처녀의 어깨가 얼마나 처졌으리란것을 짐작해보았다.

너성들, 특히나 나 어린 처녀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꾼들을 찾아가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타산과 생각을 하며 지어 몸단장에까지 신경을 썼을것인가... 분명히 안고 모대겨야 할 무엇이 있을것이었다.

초소앞에는 방금 김을 맨듯 도도록이 돌구어놓은 귀가 반듯한 화단이 있었다. 톱날식으로 박아세운 벽돌테두리안에 볼록볼록 망울이 한창인 채송화꽃들로 《확인!》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았다.

철도의 초소마다 대개 그러하듯 그 처녀가 있을 남쪽초소도 사방 유리창이어서 구래여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조순복은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발끝과 손으로 장단을 치고있는 처녀를 들여다보았다.

손기척을 낸 조순복은 초소로 들어갔다.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한참동안 바라보던 처녀는 낮다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동무를 좀 만날가해서- 새로 온 혁명소조원입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전철원 선우금녀입니다.》

처녀는 병사의 제식동작처럼 몸을 빠딱 펴면서 레절을 차리었다.

아까 역장이 말한것처럼 초소안은 정말 흠잡을 데없이 깨끗했다. 화분에 떠올린 홍초에서인지 알릴듯말듯 연한 향수내까지 풍겨오는것이였다.

창턱우에는 방금 꼭 쥐어짜놓은듯 물기를 머금은 하얀 걸레가 마치 담쭈담쭈 빗어놓은 깨묵처럼 손자국이 아롱아롱한대로 놓여있었다.

행동가짐을 조심하느라고 퍼그나 애를 쓰던 처녀는 갑자기 《호...》 하고 웃으면서 손등으로 입을 가리는것이였다.

금시에 얼굴까지 빨갛게 익는것이였다.

《?...》

조순복은 어리둥절해졌다.

《아까 역장실에서 볼 땐 기자동진줄 알았습니다.》

《하... 그렇소, 뭘 중요한걸 제기하고싶은 모양이더구만.》

《아닙니다. 소조원동지! 저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소.》

《아이, 어찌나-초소에만 오면 집처럼 자연스럽고 궁리가 잘 떠오르는데... 정말.》

무엇인가 역장실에서 다 털어놓지 못한것이 아쉽다는 투였다.

조순복은 좀체로 처녀의 마음속을 리해할수가 없었다.

초소를 옮겨달라더니 이제 와서는 초소가 자기 집같다고 한다. 또 그렇게 알뜰히 꾸렸다.

《그런데 북쪽초소로는 왜 가려고 했소?》

조순복은 웃음을 띠우며 물었다.

《소조원동지! 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할 일이라면 역장동지두 보내줄거요.》

《첫 부탁입니다. 소조원동지! 그 동무 있지 않아요. 박세찬 그 동무와 혼성2중창을 합니다. 우리 본국 기동대 고정프로입니다. 노래를 자주 바꿔야 하는데 연습하러 왔다갔다하기두 곤란하구... 가까이 있으면 서로 좋은 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처녀는 제판에도 말하기가 멧적은지 할 말을 다하고도 우물우물하는것이였다.

《?... 2중창을-화차를 깨먹는다고 신소를 받

던 그 동무하구말이요? 하...》

《벌써 다 아십니까. 아이 속상해.》

처녀는 호- 하고 가볍게 한숨까지 짓는 것이었다.

《금녀동무! 정말 깨어졌다는 화차는 어디 있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순간 조순복의 얼굴에는 근심이 실리는 듯 어두운 빛이 어리는 것이었다.

한동안 잠잠해있던 처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소조원동지! 안되나요?》

조순복은 실로 난처해났다.

사실 이 순간 조순복은 처녀더러 아까 역장실에서 2중창련습문제를 안꺼내길 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꺼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을 것인가. 기대와는 너무도 어그러졌다.

《금녀동무! 초소가 서로 먼곳도 아닌데 꼭 옮겨야만 하겠소. 그런 식으로 저마다 초소를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소. 안그렇소?》

처녀는 그래도 또 무슨 답변인가 할듯하더니 아예 단념해버리는 것이었다. 거의 입속말로 알만 하다는 것이었다.

조용히 내려간 처녀의 눈동자는 무엇을 찾는 듯 한곳만을 집요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무릎우에 두손을 올려놓고 방정하게 앉은 처녀는 땅바닥에 채닿지 않은 발끝을 바짝 퍼서 말끔한 세면바닥을 허비적거리는 것이었다.

한동안 숨소리마저 없이 조용히 앉았던 처녀는 고개를 반짝 들었다가 얼른 떨구는 것이었다.

조순복은 아무말 없이 더 앉았기가 거북해났다. 조순복은 박세찬이 일하는 곳을 물었다.

《북쪽 초소 앞입니다. 상하차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소!- 금녀동무. 다시 오겠소.》

처녀는 문밖까지 나와서 조순복을 바라주었다.

조순복은 깨어졌다는 화차가 바로 북쪽 그 상하차장에 있으리라 짐작했다.

수심어린 처녀의 얼굴을 볼수록 조순복은 처녀와 기증기운전공사이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게 느껴졌다.

조순복은 훌륭한 동무, 전철원처녀와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기증기운전공을 알게 된 것이 기뻐했다.

조순복은 차갈이하는 차들이 무시로 땅을 쿵쿵 울리며 옆으로 지나가는 구내를 천천히 걸어가 고있었다.

점차 생각키우는 것이 많아졌다. 마음도 무거워졌다. 웬일인가...

조순복의 눈앞에는 말과 행동가집이 그렇게도 순직하고 친근하게 안겨오는 전철원처녀의 모습이 떠날줄 몰랐다.

처녀의 구김살 없는 웃음소리와 은근히 열정을 내뿜는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는가?... 조순복은 기어코 그 대답을 찾고야 말았다.

처녀는 아직도 무엇인가 할 말을 삼가했으며 소조원에게 의문만 남겨주었던 것이다. 하기가 초면에 제 속을 다 털어놓는 사람이 쉽지 않다. 무엇을 품고있는가? 겉으로 표현한 말만 알고 한뼘 깊이도 못되는 심장의 말을 한마디도 들을 줄 모른다면 그를 어떻게 3대혁명소조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처녀는 자기의 초소를 무한히 사랑하고 있다. 일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도 사랑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초소를 내놓고 그렇게 단순한 목적밑에 초소를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처녀도 역시 나와 같은 동시대의 청년이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초소를 제집처럼 사랑하고 정을 붙인 그 처녀가 그래 단순히 노래한 프로를 위하여 초소를 훌훌 뜨겠다고 할 수 있을까? ... 혹 세찬이와 《련애결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면 처녀는 아직 곧 그 뜻을 리해하지 못할 나이이다. 그러나 우정이 사랑의 싹이 되고 장차 열매를 맺는다 한들 역장이 그다지 놀랄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전철원처녀와 기증기운전공총각이 우정을 나눈다고 하여 철도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될 것도 없다.

조순복은 단박에 웅달샘같이 깨닫하고 깊은 처녀의 마음속을 알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좀더 잘 대해줄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후회도 해보았다.

처녀들의 가슴속에 올라리가 많다는데 과연 이 전철원처녀와 어떻게 하면 될수록 빨리 그 올라리를 더놓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데 역장은 왜서 그렇게 단순한 대답마저 받아내지 못했을까? ... 역장도 선우금녀가 자기의 초소를 알뜰히 거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언제든 한바퀴 돌면 그것은 눈에 띄우는 것이다. 초면인 나처럼 역장은 처녀와 다만 직무상으로만 련결되어 있을 뿐이지 그의 심장속은 손바닥 두께만 큼도 깊이 알고 있지 못했다. 또 역장과 객화차대장은 수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철도라는 한집안에 살면서도 화차를 놓고 서로 담장밖의 사람과 이야기하듯 따지고 호통질이다... 사회생활이란, 인간들의 호상관계란 이렇듯이 복잡한가...

《파다당...》

갑자기 어디선가 차들을 련결하는 소리가 들렸

다.

조순복은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보안경을 낀 조차공이 푸른 기발을 짧게 흔들며 기관차를 몰아오고있었다.

방금 서로 짓찜은 화차를 재빨리 련결한 련결원이 두손을 머리위로 쳐들고 엇가로 흔들었다. 기관차가 다시 앞으로 나가자 이미 속력을 내기 시작한차에 획- 몸을 올려실은 련결원은 팔을 휘 휘 내저으며 벌쭉 웃는것이였다.

차갈이를 하는 련차를 바라보는 조순복은 금시 지난시절로 되돌아온듯한 기분이 들었다.

《파다당-》 하더니 또 하나의 화차를 련결해가치고 내달렸다.

《련결원!...》

부지중 조순복의 입에서 련결원이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련결원!...》 하고 조순복은 생각했다. 나도 한때는 저 청년처럼 뛰어다니면서 화차와 화차를 련결하여 련차를 편성했다... 그런데 오늘 구내에 다시 온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다시 련결원이 되어야 하는가? 그전날과 같은 련결원으로?... 아니다.

역장과 전철원처녀, 전철원과 상하차기증기운전공, 역장과 객화차대장... 이 땅위의 모든 련차들이 두줄기의 궤도우에 수송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서로 련결되어있듯이 이들의 심장과 심장을 련결하는 련결수-심장의 련결원이 있어야 한다! 누가-

조순복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역장이 아우성치는 화차문제도 이들이 한집안 식구로 될 때만 풀릴것이다!...

《파다당...》

조순복은 자기도모르게 낯을 찡그렸다. 그전날에는 차들을 련결할 때마다 응당하게 들리던 이 소리가 오늘은 마치 자기의 몸을 찡는듯한 아픔을 느끼게 했던것이다.

《화차도 련객차를 다루듯 해야겠소. 련결원동무! 좀 살살 유도하시오. 아무리 쇠덩이라두 견디여내겠소?》 하는 말마디가 목구멍안에서 뱅글거렸다.

조순복이 무슨 생각을 하건말건 조차공과 련결원을 태운 련차는 쿵당거리며 달려갔다.

조순복은 멀어져가는 련결원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혁명소조원 조순복은 이윽하여 북쪽초소에 닿았다.

조순복이 찾아간 기증기에는 운전공이 없었다. 아마 역장실로 불리워간 모양이였다.

석회를 한입 무드기 문채로 허공에서 데룡거리는 바가지이새로 눈같이 흰 가루가 술술 새어나

와 실오리같이 날리고있었다.

든것을 쏘을 궁리도 안하고 련락받은 즉시 문을 박차고 뛰어갔을 운전공의 불같은 성미가 느껴졌다.

기증기계단으로 오른 조순복은 살그머니 운전실문을 당겨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훑 몰아들더니 기증기실안에는 금가루같은것이 반짝 반짝 떠다녔다. 시창유리 한귀가 깨어져있었던것이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바람뽕이 관통되면서 먼지가루가 일군할것이였다.

습관된 운전공은 문소리가 날 때마다 눈을 깜짝일것이고 그 순간에 바가지가 화차를 향해 내려가고있었다면 찡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조순복은 짐을 실은 기증기바지를 운전하여 부리우고 빈 바가지를 석회무지에 박아놓았다. 그리고 운전칸을 내리며 바가지를 살펴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2톤 규격바가지로밖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

조순복은 한참동안이나 운전공을 기다리면서 석회를 무득무득 실은 화차들을 살펴보았다.

문득 생각이 미친 조순복은 건너편에서 무연탄을 부리고있는 시 연료사업소 기증기운전공을 찾아갔다. 거기서도 같은 규격바가지를 쓰고있었다.

그 운전공아바이는 단번에 한개 화차씩 퍼내게 바가지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것이였다. 조순복은 기증기로 되돌아왔다.

끝내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려니 걸음이 잘되지 않았다.

조순복의 머리에는 아까 역장이 표현한대로 사상, 기술? 어느쪽에 걸렸는지 풀지 못한 두개의 의문부호가 뒤엉켜돌아갔다.

정오의 태양은 머리우에서 빛났고 생활의 첫 목표를 잡은 조순복의 마음은 흐뭇해졌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도 조순복은 목표를 잡은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속다짐을 든든히 했다.

사무실로 올라가려던 조순복은 청사의 끝방에서 방금 자재출고를 끝내고 손을 문다지는 창고장아바이가 눈에 띄었다.

조순복은 발길을 돌렸다.

《수고하십니까!》

《예-》

《아바이! 미안하지만 저 끝쪽에 있는 두꺼운 유리 한장 얻을수 없을가요.》

《얼다니요? 출고서가 없이-》

대답에 궁해 머뭇거리는 조순복을 여러모로 살펴보면 창고장은 도시 리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자네 철도종업원인가, 시내루 걸어가던 사람

인가?)

《아바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로 온 소조원 조순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혁명소조원이요! 아- 이거 몰라봤수다. 그런데 책상우에 유리가 없습디까-》하면서 아바이는 누구를 나무라는데 허까지 차는것이였다.

조순복은 아바이가 골라주는 유리 한장을 옹구리에 단단히 끼고 두계단 세계단씩 성큼성큼 뛰어넘으면서 사무실로 올라갔다.

× ×

오후였다.

유리 한장을 옹구리에 낀 조순복은 밖으로 나섰다.

(...직무에 성실한 사람, 남에게서 정면으로 비판 받는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

역장에 대해 들은 말이였다.

조순복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미소가 어리였다. 어찌 보면 자신의 성격과 일맥상통하는데가 있는것 같았다.

조순복이 상하차기중기로 다가갔을 때였다.

전철원처녀 금녀와 운전공인듯한 청년이 이마를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청년은 자주 허리를 굽적거렸다.

까만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조순복을 뒤늦게 알아본 처녀는 두손으로 붙들고있던 판자에서 허리를 펴면서 청년에게 재빨리 눈짓을 하는것이였다.

《세찬동무! 소조원동지야요.》

《안녕하십니까?》

한손에 량면톱을 든 청년은 끄덕하고 인사를 했다.

《세찬동무! 뭘 만드오?》

혁명소조원이 첫마디부터 마치 친구지간에 말하는투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것에 흡족했던지 청년은 톱끝으로 모자채양을 슬쩍 올리밀면서 병싯 웃었다.

땅우에는 싸락눈같이 하얀 톱밥들이 여기저기 뿌려져있었다.

입술에 웃음을 남실남실 담은 전철원처녀는 대답을 재촉하듯 동그란 눈을 깜빡이면서 운전공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괜히 모자를 벗어들고 짧게 깎아 풋밤송이처럼 까시시한 머리털을 앞뒤로 슬슬 쓸어만 지였다.

《호... 세찬동무, 어떻게 마름질했는지 벌써 두번이나 다시 잘랐는데두 또 클것 같아요.》

《뉘데 그리 까다롭소?》

《아닙니다. 저- 이 금녀동무가 판자 하나 얻어가지구 왔길래 켜진데다 대보냈습니다.》

조순복의 가슴은 흥분으로 울렁거렸다. 조순복

자신이 바로 이것을 위해 나온것이 아닌가.

《세찬동무 마순거요?》

청년의 얼굴은 금시에 벌거우리해났다.

처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닙니다- 오늘은 한번도 찢지 않았대요.》

《그렇소?!...》

그렇다면 깨어진 화차를 수리하고있다는 말인가!

조순복은 그 누가 이들을 여기로 이끌었는지 몰랐다.

《동무들은 나보다 한발자국 앞섰구만.》

《호... 소조원동지가 저의 초소에 와서 깨어진 화차를 찾지 않았더라면 이 화차가 오늘 이대로 떠날번했어요. 그러니까 소조원동지가 떠밀어준 거지요뭐-》

《아니요!...》

조순복은 불시에 코마루가 찌릿하여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조순복은 판자를 만져보며 앉았다. 객화차가 전문인 조순복은 화차의 한 경골구간의 치수쫘는 눈을 감고도 재어낼수 있었다.

조순복은 뿔을 한껏 벌리어 콤파스처럼 척척 자신있게 재어나갔다.

《내 한뿔은 어김없이 22.1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구 이 손가락 한매듬은 2센치... 아직두 톱 넓이만큼 더 잘라야겠소.》

조순복은 땅바닥에 널려있는 못 하나를 주어 흰금을 쭉- 가로 그었다.

《좀 짧아진것 같은데.》

청년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자 처녀는 판자를 냉큼 들고 화차로 뛰어갔다. 가듯마듯 처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마나- 세찬동무, 빨리 오라요.》

《영?- 짧지-》

운전공청년은 쥐였던 톱을 쟁그렁 소리나게 동댕이치고 달려갔다.

조순복은 달려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웃었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사상- 기술- 어느 하나의 부족으로 하여 화차를 깨어먹는줄로 알았던 세찬이였다. 역장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있듯이 좀 덤비는 축이기는 하나 이 청년의 가슴속에 야말로 얼마나 뜨거운것이 굵이치고있는것일까...

청년은 아마 지난날 자기가 화차를 깰것을 가슴아피 후회하면서 수리를 시작했을것이다. 저 처녀의 텅김으로...

이 청년에게서 부족한것은 사상도 기술도 아니다. 역장이 아까 전철원처녀의 심정을 물리해했듯이 청년도 기중기운전공으로밖에는 알지 못한 역장자신의 낡은 사업작풍의 결과라는것을 조순복은 짚어서 말할수 있었다.

금너는 세찬이를 화차로 불러다세우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동무는 어떻게 쟈거야요.》

《됐어, 됐어. 그래두 짧게 잘라 못쓰게 만든것 보다는 낫단말이야. 괜히 앵앵거려.》

그들의 말이 끝나는 때를 기다렸다가 조순복은 툽을 들고 다가갔다.

금너와 세찬이 판자를 눌러잡고 조순복이 쓰루쓰루 툽질을 하였다.

《자- 이번에는 나하구 금너동무가 잡을테니 세찬동무 못을 박소.》

세찬은 망치를 휘둘렀다.

《짱- 짱- 짱-》

조순복의 눈은 황홀히 빛나고있었다.

조순복은 이제 온 나라 곳곳에 울려 퍼질 망치질소리를 듣고있는듯하였다.

조순복의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마냥 쿵쿵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전철원처녀와 운전공청년이 지금 화차 한량을 수리하고있다. 역장과 객화차대장이 네밀락내밀락 뿔대기를 하던 그 화차다. 철도일군들마다 주인이 없이 떠돌아다니는것이 화차라고 걱정하는 그 화차 한량이 주인을 만난것이다! 이것을 하나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백개의 철도역을 걸쳐 수천수만의 손과 눈을 걸쳐 오가는 화차이다. 때로는 1분, 때로는 1시간씩 중간역들에서 쉰다. 시간이 되어 《덜컹》하고 떠나면 벌써 그 화차는 《우리 역》의 것이 아니었다...

조순복은 왜서인지 이 청년들과 오래 이야기하고싶고 함께 일하고싶었다.

조순복은 이들자신은 아직 다는 모를 그 훌륭한 발기에 그만 반해버렸던것이다.

문득 혁명소조원 조순복은 언제인가 《동맥의 주인들》이라는 책에서 본 하나의 실화가 생각났다.

조순복은 스스럼없이 말을 꺼냈다.

...전쟁때였다. 캄캄한 밤인데 어느 한 역으로 피복을 실은 군수열차가 들어섰다. 급수중이던 군수열차는 놈들의 야간폭격을 받게 되었다. 한 유개차의 천정판자가 깨여진것을 발견한 그 역련결원아바이가 울타리너머에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아바이는 말할새도 없이 부엌시렁에서 함치며 그릇가지들을 와락와락 주어내리고 안해의 손때묻은 노랑고 반들반들 윤기도는 판자를 걸어안고 역으로 달렸다 한다.

아바이는 이미 떠나기 시작한 차에 겨우 몸을 실었다. 다음 역까지 가면서 깨여진 유개차 지붕에 그 판자를 쳤다. 사람들이 물어보니 아바이는 대답했다. 관절이 심한 다리가 뜨겁거리는걸 봐

서 인차 비가 올것 같았다고. 군복이 비에 젖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폭격에 깨여진 화차인데 하면서 아바이는 한마디 보태기를 우리 역에서 깨여진것을 그대로 보낼수 없었소! 라고 말했다는것이였다...

이번에는 소조원이 자기의 말을 보탰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이 하나의 사상과 지향-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관철으로 몸과 마음들이 합쳐져있었다는것이였다.

모든 철도일군들이 복구대원이 되고 선로공이 되고 수리공이 되고 기관사가 되였었다.

소조원 조순복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동무들이 한량을 수리한것처럼 철도종업원 모두가 화차 한량씩만 자기의것으로 책임진다면 화차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것이요. 계산이 맞소? 정말 세찬동무와 금너동무는 오늘 큰일을 하였소!》

《아이참. 소조원동지! 또 부끄럽게 그러네.》

처녀는 귀밀으로 흘러내린 굵실굵실한 머리를 살레살레 저었다.

머리를 들고 소조원을 바라보면서 동안이 뜨게 눈을 껌뻑거리던 세찬이 벌떡 일어섰다.

《금너동무, 내 밥곽-》

한마디 던진 세찬이는 어디론지 횡하니 달려가기 시작했다.

《호... 도망치는줄 아세요. 아까 공구를 좀 갖추자고 토론했어요. 저 동무네 맏형님이 <리>기 제공장 공구실장이래요. 거길 갈거예요.》

《하...》

조순복은 웬 영문인지 마음이 흥겨워졌다.

《아니, 허풍이 아닙니다. 세찬동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냐 하구야합니다. 꼭 해결해올거야요.》

《나도 믿소. 금너동무는 세찬동무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 잘 알수 있소?》

《아이참, 한아빠트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뭐.》

처녀는 괜히 썰쭉한척했다.

조순복은 소리없이 웃었다.

《아- 이거 화차에 색동저고리를 입혔군. 칠을 해야겠소.》

《정말-》

하면서 발딱 일어선 처녀는 객화차대쪽으로 달려갔다.

할일없는 조순복은 기증기의 창유리를 갈아넣었다.

처녀는 막대기끝에 몽그린 걸레몽치에 타르를 잔뜩 묻혀가지고 왔다.

조순복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제가 합니다.》

《처녀 손에 타르가 떨어지면 야단이요 잘 지지 않소.》

《호… 소조원동지 손에는 안떨어지나요워-》
 《나야 전문가 아니요. 그런데 금녀동무! 하나 물어봐도 좋소?》
 《예.》
 《동무가 초소를 옮기자는 진짜 목적이 뭐요?》
 《웃지 마십시오. 세찬동무를 좀 교양줄려고 그러합니다.》
 《하… 그래- 결함이 있으면 교양개조해야지.》
 《어마나, 소조원동지! 개조는 아닙니다.》
 처녀는 덴갑을 하며 소조원의 말을 시정시켰다.
 《그 동무말입니다. 기증기 하나 운전하는것이 무슨 장한 일처럼 괜히 큰소립니다. 언제 봐야 옷단추는 열어놓고 다닙니다. 사실 기증기도 닭알바구니 다루듯 살살 물면 되겠는데 욕심만 가지고 욕욕거리다가는 찢어놓고 욕을 먹습니다. 온 철도적으로 화차 화차하는데 하나라도 마스면 되겠어요. 한 사로청단체에 있으면서 왜 그런지 전 그 동무 비판받는것이 막 싫어요. 이번에 2중창을 하면서 보니까 제 말은 고분고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호…》
 《아침에 그 사정을 다 말할걸 그랬소.》
 《아이참, 역장동지한테 별걸 다 말하겠어요.》
 처녀는 쑥스러운듯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는 것이었다.
 조순복은 순간 세상을 향해 자랑하고싶었다. 역장동무! 보시오. 우리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고 고상하며 또 얼마나 겸손하고 웅심깊습니까? 그래 아직도 이들의 초소를 합쳐주지 않으시렵니까, 이들에게 날개가 돋치는것을 보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조순복은 옆에 전철원처녀만 없다면 코노래라도 부르고싶었다.
 백설같이 흰 석회를 차랑마다 무득무득 싣고 편성된 열차를 끌어내기 위하여 내연기관차가 빵- 빵- 기적을 울리며 다가오고있었다. 발밑이 흠뻑 젖었다.
 조순복은 불시에 머리속을 번개치듯하는 생각이 있어 처녀를 남겨둔채 사무실을 향해 달려갔다.
 혼자 남은 전철원 금녀가 톱을 거두고 세찬의 밥판을 찾아 가방에 넣는데 열차 꼬리쪽으로부터 두사람이 걸어오고있었다.
 금녀는 유별나게 타번지는 해질녘의 금빛해살에 눈을 쏘프리고 바라보았다. 직속상급인 역장과 객화차대장이 멍멍한 얼굴들을 해가지고 화차를 살펴나오고있었다.
 《아니, 동무는 어떻게 여기 와있소?》
 《근무를 마치고 가다가 들렀습니다.》
 《세찬이 어데 갔소? 오늘은 방통 깨놓은게 없

구만.》
 역장은 객화차대장이 물으란듯이 말했다.
 《역장동무 꿔졌다는 화차는 어데 있소?》
 《가만 있소. 어데 있겠는데…》
 《저- 방금 혁명소조원동지가 와서 수리했습니다.》
 《소조원이라니? 어느 소조원동무말이요?》
 《우리 역에 새로 온 소조원동지말입니다.》
 《우리 역 소조원이- 아침에 온 동무가?!…》
 역장은 혀아래소리로 웅얼거렸다.
 두사람은 서로 쳐다보다가 얼굴을 돌리었다.
 《어떻게 되어 여기까지 왔겠는지 모르오? 그래 다른 말은 없었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전쟁때 철도일군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쟁때 이야기를?... 알수 없겠는데…》
 《재미나는 이야기건게로군.》
 이번에는 객화차대장이 궁금스러운듯 말참네를 하였다.
 처녀는 한마디라도 덜세라 충기를 모아 이야기를 했다. 오래동안 철도에 근무하면서 역장은 그러한 책이 청년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것은 수없이 보았지만 어찌하여 그러한 내용은 모르는지 뻥뻥스러웠다.
 사실 그때는 사람마다 한가지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 엄혹한 전쟁을 책임진것도 자신이였으며 따라서 모든것을 자신이 해야 했다.
 세월은 흘렀다. 어느 한 분기점의 반장이였던 문제오는 간부양성학교를 다녔으며 역장이 되었다. 객화차대장도 바로 그렇게 된 사람이다.
 오늘은 철도의 규모가 커져 객화차대요, 역이요, 전철대요, 기관차대요, 철길대요…하고 뜯어말았다. 그런데 머리속에까지 그만 칸막이가 생긴것이 아닌가? … 우리의 임무는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수송이다-혁명소조원이 왜서 화차수리를 했으며 이러한 말까지 청년들에게 주었을까?... 그래 아침에 전화를 들었지…
 전쟁때 한역에서 검차공으로 함께 일했던 객화차대장도 깊은 생각에 잠긴듯 통나무우에 걸터앉아 담배만 빨고있었다.
 그때는 정말 네일 내일이 없었고 저 문제오가 부상당했을 때 뼈와 살도 함께 나눈 친구지간이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 우정마저 묵살해버리게 되었는가…
 두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자 처녀는 서둘러 말을 끝내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었다.

《역장동지! 우리 역 종업원들이 화차 한량씩 책임지자고 했습니다.》

말없이 처녀를 바라보던 역장은 객화차대장쪽으로 몸을 돌렸다.

《소조원동무가 아침에 우리 전화질을 들었네.》

두사람은 동시에 일어섰다.

처녀도 따라 일어서면서 말했다.

《소조원동지는 근심했습니다. 현재 우리 역에 휴양 3명, 산전휴가 1명, 건설 5명, 강습 1명, 화물에 있는 강동무가 결혼식 간것까지 다 알구요. 그러면서 로력사정이 딱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이였다. 역장까지 미처 모르고있는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있는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한 실정에서 생동같은 화차수리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소조원과 역장은 첫발자국부터 얼마나 호홉이 가뻔을것인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소조원을 안다는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소조원과 처녀는 벌써부터 알고있는 사이일까?... 아니다, 하다면 소조원은 어떻게 하여 온 첫날 이들과 이렇듯 깊어질수 있었을가... 첫날인데... 그들은 아직 사업상-직무상으로든 련결되기전이다... 나도 그렇고 또 나는 어찌하여 아침까지는 전철원으로밖에 몰랐던 이 처녀에게서 화차를 위해 애쓰는 그 깨끗한 심장을 보게 되였는가... 기름방울처럼 우에 뜰것이 아니라 소조원처럼 사람들속으로 심장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역장과 객화차대장은 거의 동시에 눈길을 마주쳤다.

그들의 심장은 점차 고르롭게 뛰기 시작했다.

역장은 처녀가 들을세라 조용히 말했다.

《난 이런 비판을 처음 받아보오.》

《정말 뜨겁소. 역장은 복이 있소.》

《이게 어디 한사람에 한한 문제요?!》

철각, 철각, 철각 하더니 기관차가 석회렬차를 끌고 떠났다.

서로서로 튼튼히 련결된 하나의 렬차가 두줄기의 궤도우로 천천히 미끄러져가고있었다.

두사람은 말없이 쳐다보면서 그 렬차의 뒤를 따라 나란히 걸어갔다.

× ×

역구내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조명등이 켜지자 구내는 또다시 대낮을 맞은듯 환히 밝아졌다. 역명을 알리는 빨간 장식등 불빛이 무대조명등처럼 흘렀다.

역장은 석회를 실은 긴급렬차를 떠나보내기 위해 구내로 나왔다.

출발을 알리는 푸른 신호등이 반짝 켜지였다.

이때였다. 렬차뒤로부터 웬 청년이 달려오고있었다.

혁명소조원 조순복이었다.

조순복은 오듯마듯 손에 든 두루마리를 쭉 펴쳐 화차에 대더니 네귀에 잔못을 박는것이였다.

역장은 웬일인가싶어 천천히 다가갔다. 불빛에 번들거리는것으로 보아 곁에다 비닐박막을 씌운것이 분명했다.

빨간 선으로 레를 두르고 제일 밑에는 내용을 축하하는 꽃다발 삽화까지 그려졌다.

역장은 글줄을 더듬어보기 위해 한발자국 다가섰다.

화차수리 및 책임자

전철원-선우금너!

기증기운전공-박세찬!

※우리 역을 통과하는 화차는 우리가 책임지겠음.

1977년 X월 X일

《X》역.

긴급렬차는 떠났다.

소조원 조순복은 화차를 따라 몇걸음 가다가 우뚝 멈추어서는것이였다.

역장의 눈앞에서 꽃다발밑에 두른 붉은 땀기오리가 마지막으로 너울거렸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았다. 역장은 실로 춤추며 타오르는 하나의 불꽃을 보는듯했다.

사람들은 놀랄것이다.

전철원처녀와 기증기운전공이 화차의 주인이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이제 저 렬차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주인은 아마 넷이 되고 열, 백이 되리라. 몇분을 멎는 간이역마다에서 망치질소리가 울릴것이다. 그 망치질소리는 공장과 기업소의 전용선들에서도 높이 울릴것이다. 온 나라에 울릴것이다.

이제 누가 우리의 화차에 주인이 없다고 말하랴.

역장은 앞에 서있는 혁명소조원의 손을 쥐여보고싶었다.

이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무서울것이 없을것이다.

역장은 하늘빛 제모를 눈덕까지 꼭 박아쓰고 한발자국 나섰다.

《소조원동무!》

역장은 소조원의 두손을 부여잡았다.

힘찬 박동이 끊임없이 느껴졌다.

《역장동지!》

《금너동무, 초소를 옮기도록 합시다.》

소조원은 미소를 그려보였다.

그들은 함께 구내를 걸었다.

아직은 혁명소조원 조순복이 해놓은 일이 없다.

그러나 그가 뻔 첫발자국이 얼마나 큰것인지-역장도 그 누구도 아직 알수 없었다.

첫출발

김청남

밤이었다.

공장지배인실로 퇴근차림의 한 청년이 들어왔다. 가공직장 선반공 영민이었다.

창문들을 닫으며 퇴근차비를 하던 지배인 최진수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지배인이 놀란것은 청년이 밤늦게 찾아온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은 표정때문이었다.

한손에 종이두루마리를 말아쥔 청년의 숙인 얼굴에는 웬일인지 고심의 흔적이 진하게 그려져있었다.

지배인 최진수는 빠르게 눈빛을 바꾸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영민동무, 웬일이요?…》

청년은 잠시 주저하듯 머뭇거리다가 얼굴을 지배인쪽이 아니라 종이두루마리를 말아쥔 자기의 왼손쪽으로 돌리면서 말했다.

《지배인동지, 저… 이걸 좀 보아주십시오.》

《그건 뭐요?》

《도면입니다. 좀 생각해보았는데…》 청년은 고개를 들고 주저하는 눈빛으로 말이 적고 엄격한 지배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선반기에 설치할 새 지구를 창안해보았는데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줄 알면서두…》

《새 지구 창안이라…》

이마를 닦은 청년의 곱슬머리를 바라보면서 지배인은 가볍게 미소했다.

《봅시다!》

지배인은 청년쪽으로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지배인은 엉겨주춤하고 선 청년에게 의자를 밀어주고 책상우에 도면을 펼쳤다.

청년은 도면우에 고개를 숙인 엄격한 지배인의 반백이 된 머리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부족점이 많을겁니다.》

지배인은 점과 선들로 이어진 도면의 내용속에 끌려들면서 말이 없었다. 넓은 방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면을 마지막까지 오래동안 간간히 보고난 지배인은 굵혔던 허리를 폈다. 그리고 놀란 시선속에 청년을 끌어넣으면서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이건 동무 혼자서 창안한거요?!》

청년은 지배인의 놀란 시선과 엄격한 어조에

어리둥절해하면서 조용히 대답했다.

《예… 제가 좀 생각해보았는데…》

방안을 걷던 지배인은 도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예리한 눈길로 도면을 다시 보면서 지배인은 붉은색 연필을 들었다. 했으나 지배인은 무엇때문인지 곧 붉은 연필을 놓고 또다시 방을 거닐었다.

《동무 지금 몇살이요?》

《열아홉입니다!》

《열아홉?… 첫 창안이지?》

《네!》

《음…》

지배인은 의미있게 미소하면서 사랑스런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이십칠년의 로동생활경력을 가진 지배인 최진수역시 공장생활의 첫 창안을 열아홉살에 했었다. 지배인의 머리속으로 오랜 로동생활의 나날들이 피땀피땀 지나갔다. 첫 창안이후 기억할수 없으리만큼 많은 창안을 해온 지배인이었다.

수많은 표창과 꽃다발… 그래도 역시 열아홉살에 첫 창안을 하고 축하를 받던 때를 가장 감명깊게 회상하는 최진수였다. 지금도 잊을수 없는것은 첫 창안의 도면을 보아준 영보아바이의 포옹이었다.

작업반장이었던 영보아바이는 청년 최진수가 들고온 도면을 오래동안 보았었다. 그리고 최진수를 끌어안으면서 뜨겁게 고무해주었었다.

《훌륭해. … 자넨 앞으로 박사가 될수 있겠어!》

청년 최진수의 창안을 두고 온 공장이 떠들었다. 작업반들에선 그의 뒤를 따라 새 창안운동이 벌어졌고 모두들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그랬으나 청년 최진수만은 모든것을 알고있었다.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도면, 제작된 창안품은 공장기술부의 어느 기사에 의하여 가공된것이였다.

했으나 그는 온 공장이 떠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나큰 충격을 준 그 청년 최진수가 되리라 결심했다.

그후 청년 최진수는 첫 창안의 충격을 안고 두번째, 세번째 창안을 성공했었다.

영보아바이의 뜨거운 포옹, 온 공장의 고무와 격려-이것은 그가 활짝 나래를 펴고 날으게 한 힘이었던것이다...

지배인 최진수는 지금 자기앞에 서있는 영민이라는 이 청년이 그때의 자기와 꼭 같은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청년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훌륭하오. 아주 훌륭한 창안이요!》

지배인은 사랑스럽게 청년의 어깨를 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만족이요. 난 의견이 없소!》

어떤 일이나 요구성이 높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지배인 최진수가 지금까지 숨김없이 만족감을 표시한적은 대단히 드문것이었다.

《뭐, 아직... 지배인동지!...》

지배인의 성격을 잘 알고있는 청년은 뜻밖의 높은 찬양에 못미더운 눈으로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오! 이제 이 새 지구를 도입하면 양수기 추가공에서 높은 능률이 담보될것이요!》

지배인은 흡족한 기분으로 밤을 거닐었다.

공장생활을 시작한지 일년도 못된 열아홉살 청년이 이런 창안을 생각한 그자체가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지배인의 얼굴엔 그냥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랬으나 청년은 무엇인가를 끝없이 궁리하는 눈길로 책상우의 도면을 보고있었다.

《지배인동지! 도면은...》

《도면은 그대로 기술협의회에 넘기겠소!》

지배인은 수화기를 들고 기사장을 찾았다.

《내 지배인이요. 기사장동무요? 음, 지금 내 그리로 가겠소. 새 지구 창안이 나왔소. 래일아침부터는 제작에 착수해야겠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

지배인은 수화기를 놓고 도면을 말아 청년에게 주었다.

《감시다. 곧 기술협의회를 열기로 했소!》

지배인은 청년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자기의 첫 창안 시절을 즐겁게 회상할수 있게 해준 열아홉살 청년의 래일을 생각하는 지배인과, 무엇인가를 더 찾아내고싶은 안타까운 생각에 골똘한 청년은 밤의 공장구내길을 나란히 서서 걸었다.

《저... 지배인동지...》

《왜?...》

지배인은 청년의 팔을 끼고 걸으면서 말했다.

《동무는 아주 좋은 창안을 했소. 앞으로 더 좋

은 창안을 계속해주길 바라오!》

지배인은 청년과 나란히 걸으면서 공장의 수많은 기사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다. 어느 기사에게 약점있는 이 청년의 첫 도면을 완성시킬 것인가... 박기사, 재능이 뛰어난 그는 빠르게 이 청년의 도면을 훌륭히 수정할것이다! ... 지배인은 흡족한 미소를 띠고 박기사의 얼굴을 그려보며 걸었다.

요란한 기적을 울리며 구내차가 그들의 앞을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지배인은 집을 나섰다. 그는 어제 저녁 일을 생각하면서 좋은 기분으로 공장 정문으로 들어섰다.

(음, 아직 속보가 나불지 못했군. 이제 크게 떠들게 되겠지...) 지배인은 어제밤의 사랑스런 청년의 얼굴을 다시 보고싶었다.

(재간이 비상한 청년인데...) 지배인은 도면을 맡아진채 엉겨주춤하고 섰던 소박한 청년의 이마에 내린 곱슬머리가 떠올라 빙그레 웃었다. 긴장한 년말전투를 앞둔 때에 좋은 창안을 들고나와 생산을 높일수 있게 해준 청년의 얼굴이 그냥 지배인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공무동력직장앞에 이른 지배인은 직장안에 누구도 없음을 보고 놀랐다. 그는 여기 저기를 살폈다.

(음, 내가 이렇게 일찍 나왔으니까-)

지배인은 어이없이 웃었다.

《아니?!... 지배인동지가 어떻게 이 새벽에...》

등뒤에서 울리는 말소리에 지배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공무동력 직장장이었다.

《새 지구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러 왔소!》

《네?!... 아니 도면이 왔습니까?》

《도면이라니?!...》

지배인은 놀라 소리쳤다.

《아직 가져오지 않았단말이요?!》

더욱 놀란것은 공무동력 직장장이었다.

《어제밤에 영민이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뭐요? ... 영민이가?...》

지배인은 알수 없는 일이라는듯 이마에 주름을 지으면서 강한 의혹의 표정을 지었다.

《난 지배인동지와 토론이 있을줄로 알고...》

《참, 모를 일이로군...》

지배인은 근방에서 청년을 찾아내기라도 할듯 옆을 바라보았다.

공무동력직장장도 지배인의 시선을 따라 그쪽을 보았으나 영민이는 없었다.

《정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지배인동지가 다 검토하고 기술협의회에서까지 통과한건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공무동력 직장장은 지배인앞이라 욕을 삼가면서 지배인의 표정을 살피었다.

《아침에 도면을 꼭 받을줄 알았는데... 그 동무가 영 책임성이 없군.》

지배인은 어제밤 청년의 기분이며 얼굴표정을 기억해보면서 공장 정문쪽을 살폈다.

(청년이 무엇때문에 도면을 찾아갔을까?!...)

지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면을 찾아간 청년의 의도를 알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한 공무동력직장장은 허둥거리면서 지배인앞을 떠나려 했다.

순간 지배인의 눈앞에는 끝없는 탐구의 눈으로 도면을 보던 영민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붉은 색 연필을 들었다가 놓을 때의 나의 표정을 영민이는 보았구나!... 지배인은 불쑥 이런 생각을 했다.

(역시 훌륭한 청년이군...)

지배인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직장장을 향해 말했다.

《그만두오. 내가 찾아가보겠소!》

지배인은 급히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다.

《웁니다. 영민입니다!》

초조해서 정문쪽을 바라보던 공무동력직장장이 소리쳤다.

지배인은 급히 정문쪽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급히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몹시 피로한듯했으나 눈은 불타듯 빛나고있었다.

《직장장동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는 지배인쪽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다.

《어째서 도면을 찾아갔더랬소?》

지배인은 엄격한 시선으로 청년을 주시했다.

청년은 지배인의 엄한 시선을 피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보니 고쳐야 할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새 지구도입에서 전기를 덜 쓸것 같아서...》

청년은 어제밤보다는 훨씬 유쾌한 기분으로 지배인에게 도면을 내밀었다.

《전기를 덜 쓰게 된다?!...》

지배인은 급히 도면을 펼쳤다. 새 지구의 설계가 약간 변경되어있었다. 지배인이 우려했던것중의 하나가 수정되어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결

함들은 그냥 남아있었다. 했으나 지배인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속에 높이 뛰기 시작했다.

(자기가 해놓은 일이 아무리 크고 훌륭한것이라 해도 만족을 모르고 조국과 시대 앞에 무엇인가를 더 바치고싶어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 영민이 - 이런 청년에게야 무슨 요구인들 못하겠는가!)

지배인은 끌어안고싶은 충동을 누르면서 머리를 들었다.

《지배인동지!... 도면을 오히려 망치지나 않았습니까?》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민이!...》

지배인은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감격에 목이 짹 메여 한동안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땡!... 땡! ... 멀리에서 들려오는 철판 두드리는 소리, 뒤이어 세찬 바람에 창문들이 부딪치며 닫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걸 보오!...》

잠시후 지배인은 도면을 펼치면서 청년을 가까이 불렀다.

《내 높은 요구를 제기하겠소!》

《네?!...》

청년은 불안한 눈으로 엄격한 지배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제밤 동무가 가한 수정은 좋소.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도면이요.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겠소. 동무가 이 도면에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곳은 바로 여기요!》

지배인은 도면의 한곳을 힘있게 짚었다.

《그리고 이쪽은...》

지배인은 스스로없이 엄격한 어조로 도면의 약점을 짚었다.

《만약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엔...》

지배인의 가혹한 마지막 이 말은 끝맺지 못했다.

갑자기 청년이 환성을 올렸던것이다.

《지배인동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고치겠습니다!》

흥분한 청년은 도면을 말아치며 급히 설계실쪽으로 뛰어갔다. 맨머리바람으로 달려가는 그를 맞받아 회오리바람이 불어왔다.

지배인은 청년이 떨구고간 모자를 들고 생각깊은 눈으로 말없이 청년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열아홉살 첫 창안

때의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그저 철없이 축하와
꽃다발에 어깨를 으쓱거리던 모습이였다.

《열아홉살의 첫 창안, 시작은 같은데… 시작은
같은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청년의 모자를 전혀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있는
지배인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던 공무동력직장
장은 지배인결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지배인동지, 우린 이젠 어떻게 하릅니까?》

《도면은 곧 완성될것이에요!》

지배인은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직장장동무, 공장신문에 특보원고를… 특보원
고를 써야겠소! 훌륭한 새 인간들이 탄생하고있
소!》

환희에 넘친 지배인은 공장신문주필실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빨간 잠자리 한마리가 지배인의 손에 들린 청
년의 모자우를 맴돌면서 따라갔다.

전선마을녀인들

최준경

저녁상을 물리고 모여앉은 녀인들
날 새면 전사들이 결전으로 나간다고
마음 서로 속삭이며 이 밤도 지새워라.
포화속의 등근달을 창밖에 얹어놓고
공화국기 무어가며 잠들줄 몰라라

비단필에 담아볼가 옥당목에 담아볼가
주먹밥 빚어가던 할머니도 한뜸
금실로 무어볼가 은실로 무어볼가
다리복구 마치고 온 처녀들도 한뜸
불같은 사랑을 고지로 안고가던
전선원호 손길들이 바느실을 잡았다고

아래목엔 인심좋은 배나무집 만동서
무슨 사연 그리 많아 빙그레 웃음짓나
장군님 혜택아래 머슴살이 끝장내고
땅받은 그해 봄엔 누렁소를 사매던 일
저녁이면 남편과 《가가거저》 배우던 일…
오리오리 그 생각도 기폭우에 누빈다오

웃구들엔 마음착한 우물집 새각시
무슨 사연 따로 있어 귀밑까지 붉어졌나

시집올 때 입고온 약산단치마 한벌
장농속에 포개여둔 연분홍빛 저고리
승리의 날 다시 입고 정든님 맞으리라-
별러오던 그 소원도 기발로 못는다오

종구나 이런 마음 종구나 이런 밤은
님을 그려 간절하던 아낙네들 그 심정이
전사들을 생각하는 한마음 되였다고
창너머 하늘가엔 새별도 총총총
구름노전 넓은 방엔 웃음도 활짝.
아름다운 그 마음에 달이 지고 동이 트오.

아, 장군님 세워주신 고마운 주권아래
행복을 맛본 사람 한돌이 아니였기에
전선원호 한마음을 기폭우에 새기며
조국 위해 전사들과 함께 사는 녀인들,
람홍색 바탕우에 그 정성 물이 들고
찬란한 오각별에 그 웃음 꽃피어나니
승리의 새날이 령 넘어 밝아오네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외 1편)

김종백

천둥소리 하늘을 구르고
호두알 비방울이 창문을 치는 밤
우리모두 잠자리를 차고 달려나가
바람받이 강냉이밭과
논벌의 보록을 돌아보고
방금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기다린듯 다급히 울리는 전화종소리-
경황없이 수화기를 든 나는
그만 선자리에 굳어지고말았네

수화기에서 울리는 다정하신 음성은
자나깨나 그립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
수도의 대화강 계단을 함께 내리시며
우리 손 뜨겁게 잡아주시던
그날의 자애로움이 흘러들어

옷에선 차거운 비방울이 흘러도
가슴속엔 뜨거움이 넘쳐
어버이수령님의 물으심에
-저는 3대혁명소조원...
더는 말을 잊지 못하는데

-오, 동무들이구만,
곳은 날씨에 밤늦도록 수고하오!
방금 북방의 한곳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소조원동무들이 있더니...
조용히 뇌이시는 수령님

아, 그이께 차례질 한초의 휴식이
우리예겐 더없이 소중한 념원이였건만
오히려 우리를 념려하시며,
이 밤도 지새우시며
온 나라의 논벌을 다 보살피시는 어버이수령님
정녕 나는 이 밤 몇번째로 그이의 전화를 받는것
인가
이제 다시 그이께서
찾아주실 농장은 그 얼마이신가

창문을 씻던 비줄기는 그치고
송수화기 받쳐든 두손 눈물로 젖어라
보록은 성벽같이 튼튼하여
무더기비가 와도 끄떡이 없고
바람받이 다락밭에 강냉이대는
대나무처럼 억세다는
내가 이제 올릴 말을 찾는데

벌써 다 들으신듯
다정히 말씀하시는 수령님
-무더기비, 태풍이 휘몰아쳐도
동무들이 있어 내 마음이 놓이오!...

사랑이여 믿음이여
끓어오르는 감격의 물결이여
태풍이 몰아치던 이 밤에
태풍을 막는 산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
큰비 퍼붓던 이 밤에
큰비를 태워버릴 불길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아, 3대혁명소조원
그 이름은 믿음과 사랑
그 이름은 승리와 영광
그 순간 나는 알았네
혁명전위, 우리의 가슴에
수령님 안겨주신 거대한 힘이 용솟음치고있음을,

샘솟는 눈물을 씻고 창문을 바라보니
때구름도 저 멀리 밀려간 하늘에
총총 못별이 빛나고있었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모두를
하늘같은 가없는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행복의 별, 영원한 충성의 별로
빛내어주시네, 빛내어주시네

들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논벌에서 바라보는 내 마을은
꽃속의 마을, 숲속의 마을
올해 새로 받은 우리 집 창문은
우리 아기 눈처럼 곱게 웃고
포도넝쿨 오르는 유치원프락에선
바람결에 실려오는 손풍금소리

보아라, 읍에서 마을로 오는 버스
누가 또 오는가
대학을 졸업한 방아간네 순희가 오는구나
수도에서 온다던 신문기자도...
동구밖 수양버들 언덕길로 들어서네

노루목 고개길을 넘어오는 이동판매차,
돌다리 건너 마을길 나무그늘로 사라지는
우편통신원의 자전거도 반갑다,
기다리지 않아도 마을로 찾아오는 새라새
기쁨이여
자라는 벼포기마냥

나날이 커가는 우리의 행복이여

정말로 마을에 있을 땐 미처 몰랐네
창문에 스적이는 꽃나무의 아름다움도
웃는 내 아기 예쁜 얼굴도
때없이 마을로 찾아오는 고마운 정도

논벌에 나오노라 비워둔 내 집 방안에
병아리 모이 쫓던 내 집 프락에
누구도 모르게 새복을 부리우며
찾아오는 자동차, 찾아오는 사람들

마을에 넘치게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혜
꽃이 되어 웃고, 숲이 되어 설레여
내가 사는
논벌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을은
꽃속의 마을, 행복한 마을

그날으로 가는 마음

윤승흠

밤이 깊어
창의고안 도면을 들고왔던
용해공청년도 돌아가고...
밤이 깊어
사람과의 사업을 두고 새 결의 다진
압연직장 직장장도 돌아가고...

창가에 별무리 흐르는 깊은 밤
용광로가 바라보이는 소조실에서
어버이수령님 초상화를 우리러
나는 하루의 전투를 총화짓는다.

그러면 몽클! 가슴에 뜨거워오는 생각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감격도 새로운 잊지 못할 그날,
혁명소조 우리들을 파견하시며
승리하고 돌아오라 손저어주시던
아, 어버이수령님의 그 영상이여!

별 많은 수도의 하늘아래서
수령님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하고

다시 만나자, 손과 손을 굳게 잡으며
공장으로, 농촌으로, 파도높은 먼바다로
웃으며 헤어진 혁명의 전위들아

눈내리는 구내길에서 첫 한해
농장원들속에서 또 한해
기적을 떨치며 다시 한해...
우리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생각은 오직 하나
우리 마음 달려가는 만수대언덕-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흐르듯
바라는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
승리의 보고 올릴 감격의 그날에로!-
마음속깊이 충성의 한결음...
가슴 설레이며 영광의 또 한결음...
조국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으며
그날에로 우리는 가까이 다가섰거니,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처럼

웃는듯 속삭이는듯 반짝이며
정답게 안겨오는 다정한 모습들아
높아진 생산량과
성장한 용해공들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발판개를 다그치며 토지를 개량하며
변모되는 산촌의 새 모습을 두고
우리가 바란것은 정녕 그 무엇이었던가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 또하나 풀리면
로동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그날에도 가까이 다가선 마음이었고
수령님께 큰 기쁨을 올린 날이면
강냉이숲 우거진 다락밭을 바라보며
또 그만큼 가까이 옮긴듯싶어

감격의 그날도 멀지 않은듯...

가자, 그날에로
용해공들과 함께
농장원들과 함께

아! 모든것이 주체의 요구대로
이 땅우에 활짝 꽃피여난 그날,
안기고싶던 그 품에 얼굴을 묻고
혁명의 전위들아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에
3대혁명소조원 우리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모습이 비끼게 하자!
빛나는 강산이 비끼게 하자!

두메의 깊은 밤에

허관일

두메에 밤은 깊어
은하수 기우는데
두메산촌을 뒤흔드는 시추기소리
이 밤이 새도록 울려
아득히 땅속에서 들려오는 물노래인듯

하지만 가슴에는 가깝구나
잠 못드는 이 밤
꿈많은 가슴들을 흔들어놓는
거세찬 시추기의 동음을 타고
땅우로 지하수 솟구치는 소리

수백리 머나먼 길을 흘러
두메에도 관개수 출렁이건만
한랭전선에 땅이 타는 왕가물
이 강산에만은 영원히 없으라고
위대한 수령님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로운 손길에 지하수 솟구치는 소리

깊은 밤 정적을 흔들며
쇠돌을 찾는 땅울림같이
급맥을 두드리는 탐사와도 같이
물, 물... 솟구치는 물줄기를 이끌어
땅속 깊이 마중해가는 시추의 밤이여

지도우엔 점으로도 없는
여기는 심심두메-
허나 수령님의 손길은 그 어디나 가닿아

지하의 천리대하 이 땅우로 길을 여는
전변의 새날이 동터오리라

흔해저도 귀한 물
흔할수록 아끼 물
찾고 또 찾아
물풍년에 쌀풍년 들어
두메마을 해마다 풍족해지려니
사회주의 이 강산에 다시 없을
행복한 고장이여

세계를 휩쓰는 한랭전선인들
이 땅에야 어찌 가물을 몰아오리
수령님 손길 따라 이 땅우엔
지하의 보화 또 하나 늘어난다
물풍년에 쌀풍년 따라오리라

아, 시추의 이 밤-
땅속에서도 만풍을 찾아내는
잠 못드는 탐사의 밤은
두메산촌에 깊어깊어가고,

가슴속엔 건듯 높이 트인
가을하늘 비끼여
동트는 아침을 맞는듯
시추공도 농민의 마음으로 만풍을 안아보며
땅속의 천리대하 이 땅우에 새겨가는
시추의 밤이여!

내 마음을 적시며

황승명

물길 천리...

내 마음도 천리...

발판개공사장에 펼쳐나서

이끌며 따라서며

꿈결에도 반기던 물줄기...

오늘은 내가 어느만큼 서서 보면

소리치며 번쩍이며

다락밭으로 바빠 오르는

자랑찬 이 흐름을

다 헤아려볼수 있으랴

물이 날개를 달았네

8단 9단 양수로 까마득히 치달아오르며

일구는 물보라속에

해맑은 한낮에도

칠색무지개가 아롱지네

싱싱한 오곡이 기쁨에 설레여라

함초롬히 스며드는 단물이 좋아

히죽히죽 웃으며 춤을 추는듯

나도 가슴을 벌리고 이속에서

우썅우썅 키가 크는듯...

좋아라 웃고 떠드는 동무들아

립하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늘을 쳐다보던 순이 아버지

오늘은 분수관의 꼭지를 여닫으며

어찌면 저리도 태연스레 말이 없을가

다박술도 말라 타던 여기가 아니었던가...

산기슭 물고에 흘러드는 물조차

꿈만 같다고

떠서 보고 마셔보며

눈시울이 뜨겁더니

이제는 대자연개조로

온 하늘과 땅을 길들이시는

우리 수령님 뜻대로만 하면

세상천하 무엇이건 못할것 없다는

크나큰 믿음에

천리장강을 이끌어

왕가물에

다락밭에도 철철 물을 대면서도

태연스레 새 일감을 찾누나

참으로 귀한 물이

포기포기 고랑따라 땅을 적시고

이 가슴에도 속속들이 스며들거니

은혜받은 이 땅우에 어찌

알곡 850만톤고지가 솟아오르지 않으랴

촉촉히 내 마음을 적시며

한없이 부푸는 이 가슴에도

신념의 뿌리가 내리고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의 꽃이 피네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네

한줌의 비료에 답아

김송남

전화에 끄슬린 눈발이랑에
봄이 좋아 머리 드는 봄싹들을 부르며
류안비료 처음으로 폭포치던 날
어버이수령님 여기에 계시었다

농민들의 마음이 되시여
그처럼 기뻐하시며
숫아오르는 비료산에
해빛같은 웃음을 엮어주시던 수령님
한줌의 비료를 손에 드시고
뜨겁게도 남기시던 그 말씀

《...이게 쌀이요,
쌀은 공산주의요!》
아, 뭇눈길들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숫아오르던
비료산, 비료산이여!

어서 첫 비료를 내자고
복구의 낮과 밤 불같이 이으면서도,
평양을 찾아 시운전의 기쁨을 아뢰이며
수화기 든채 목메이던 순간에도
정녕 다는 몰랐던
비료의 뜻...

이게 쌀이라지
한생을 비료에 절어온 하조공들도
처음인듯 신기하게 비료산 바라보던 그날,
그제사 미국놈들이 파괴한것보다 더 크게 세우자시며
재가루 날리던 이 구내길을 걸으시며
어깨우에 손 엮어주시던 그 뜻을 알았다.

쌀은 곧 사회주의라지
비료와 얹혀 빛나오르는

삶과 투쟁의 보람을 다시 새기며
어린애들처럼 가슴 뛰던 그날,
복구와 건설의 넓은 전선을 안으시고도
깊은 밤 전화로 이 기슭을 찾으시던
그 심려의 뜻을 다시금 깨우쳤다.

아, 이 세상의 생각을 모으고 모아도
그이의 생각의 한갈피에 이룰수 있으랴
오늘에 와서도 못다 헤아리는
그날의 새로운 구상이
끝없이 빛나시는 그 안광을 타고
또다시 은빛 비료산너머 끝없이 달릴제,

마치도 그 순간에 철기가 바뀌어
무겁게 고개 숙인 금나락의 물결이
비료의 구내길에 파도쳐오는듯
도시와 함께 사회주의로 가는 풍요한 농촌,
미래의 조국의 푸른 기슭이
그날에 벌써 눈앞에 이어지는듯...

세월은 흘렀어도 그 뜻은 빛난다.
비료도시의 거창한 숨결을 지켜
일하고 일해도 또 일하고싶도록
한줌의 비료에 답아 길이 남겨주신
한생을 지니고 살 영예와 사명

아, 쌀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인류의 리상이 꽃피는 래일의 하늘가로
비료산은 그날 은빛 거룩한 머리를 들었거니
언제나 주체농법의 대풍을 부르며
퍼내여도 퍼내여도 줄어들줄 몰라라
끝없이 끝없이 숫구쳐올라라!

이런 걱정 참말로 좋다!

계훈

에헤라 또 나간다
시뻘건 강피덩이-
압연기로루사이로 뛰어들고 뛰어나오며
쭉쭉 허리를 편다.

강편의 불줄기는 저 한끝에 뻗어가고
기증기는 뚱뚱 강편더미 물고날은다
적재장엔 어느덧 차고넘어
다급해진 제품관리원처너-
《아이참, 쌓을 자리 없대두요!》

빙그레 웃는 압연공들
벌써 그 몇번 듣는 저 목소리인가
장중한 압연기의 음향속에
맑게 들려오는 걱정 많은 웨침소리
《아이참, 쌓을 자리 없대두요!》

좋다! 이런 때가
아득히 펼쳐진 제품장-
흠뻑히 잘 익은 강편무지사이로
재빠르게 달려오는 애티어린 처너-
울듯이 웃을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불러 제 걱정을 터놓는 때가...

좋다! 이런 때가
처너의 청맑은 노래마냥
걱정 많은 웨침소리에 어울려
봄날의 흰구름같이 피어오르는

압연장의 기쁨이여, 경사여!

아아, 진정 어쩔수가 없구나
3대혁명의 큰 숨결속에 키를 솟군 강철산악-
강편의 불바다우에 우리 등실 떠가는가
공칭능력 짓부시던 12만톤의 그날이
떠나온 저 기슭에 아득히 멀구나!

쌓을 자리 없으면 덧쌓아가라세
압연장에 빈 자리가 있으면
압연공의 마음속에도 빈구석이 있는거지
콕콕 덧쌓아가라세
아무렴, 땅이 꺼지기야 하겠나

에헤라, 또 뽑읍세 뽑고만보세
처너의 저 걱정은
압연장의 기쁨을 미쳐 다 못받아안아
그래서 그래서 온 걱정!
더 높은 강철의 황금메부리 우리 타고 앉는 날-
그 누구보다 먼저 바로 저 처너가
남몰래 피워둔 꽃송이를 안겨주며
웃어주지 않으랴, 축하해주지 않으랴!

좋다! 이런 때가
발구르며 소리치는 처너를 향해
빙긔 손들어 웃음을 보내는 때가,
그 목소리 울려오면
압연장의 기쁨이 구름처럼 비껴오르는
걱정도 이런 걱정 참말로 좋다!

해빛밝은 땅

리동후

기차로 하루길,
배스로 하루길,
번화한 시가에 살아도
농가며, 숲이며, 시내물이
언제나 눈앞에 어려와
마음속 가까이 정깊더니

오늘은 몇해만인가
그리움에 찾던 마음 후련히
구름피는 령길을 넘어서니
고향아, 너무도 전변된 네 모습앞에
황홀한 꿈길에 이끌린듯
홍분의 물결 가슴에 설레누나

층층 산기슭 다락밭에
《전진》호는 기세차게 달리고,
다래풀어구에
흰연기 서려오르는 지방공장들과
해빛 웃는 학교와 병원의 은빛지붕들,

어디에나 번뜻하게 길은 뻗어
떠들썩 노래하며 걸어가는
저 아이들의 활기찬 물결,
경적소리 경쾌히 울리며
랭동차, 꽃배스도 령넘어 들어서니
문화주택 창밖은 번화한 마을은
마치 도시의 일각인듯

마음은 그지없이 환희롭네
...제가 바로 류량의 쪽박이
가산의 전부였던 두메사람들
질병과 주림에 울며
한줄기 해빛도 없이 시들던
궁벽한 고장이었던가

흘러간 수난의 옛세월,
아버지 따라 부대농사에
피터진 맨발로 오르던 벼랑길은 어디나
토스레 누데기도 가리우지 못한채
문풍지 우는 겨울의 긴긴 밤을
한숨과 탄식으로 찌들던 《하늘아래 첫 동네》
그 모진 가난의 자취 영영 가셔진
축복받은 영광의 땅이여

고미탄 막바지 부대농사에
피눈물 삼키며 살아온
어제날의 수모받던 《촌바위》 이고장 본토배기
가슴속 뜨거이 고여오는 눈물을
내 진정 감출수 없었나니

아, 어버이사랑이 넘쳐흐르는
이 행복, 이 고마움,
너무도 은혜로와,
너무도 파사로와
취한듯 마음 즐거이 걸을수록 목메이는
산상의 도시, 해빛밝은 락원의 땅이여!

이 궤도우에서

오대석

남으로 북으로
달려가고 달려오는 렬차들을
손저어 바래우며
땀젖은 얼굴에 웃음떠운
그대들의 모습을 본다

전진하는 조국의 걸음발앞에
수송전선을 먼저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두줄기 궤도를 지켜선
철길원들의 그 마음을 안다

나날이 꼬리 긴 렬차들에 실리는
나라의 억만무계를
드림없이 받들자고
로반을 다지고 나사를 죄여가는 사람들...

하늘을 지붕으로
온 나라를 하나의 일터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궤도우에서 떠날줄 모르는 사람들

낮에 밤을 이어 다루는 철길이
제 한몸이나 다름있던가

언뜻 스쳐지나는
바다가 외진 산굽이
눈에 쉽게 띄우지 않는
락석감시원의 안전신호에서도

기관사들은 어찌하여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적소리를 울렸던가,

낮에는 웃음띤 얼굴들이
밤에는 순회원의 불빛이
철길은 넘려말라고
말없이 믿음을 안기는 이 궤도우에
높이 울리는 만족력 기적소리,
렬차들을 맞고보내는
정시무사고의 신호기들!

비료와 광석,
새 농기계들과 건설기재들을 싣고
달아오른 차륜들이
폭풍같은 진동을 울리며 물결치는
이 궤도우에서
쇠물이 끓는 강철고지,
비료산의 황금메부리...
날마다 더하는 부강조국의 무게를
한가슴에 안아보는 철길원들의 그 마음이어!

아, 그 마음으로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렬차들을 맞고보낸다
어버이수령님 부르시는
영광의 이 궤도우에서
조국의 대수송로를 열어간다!

사랑과 증오

김원복

로치국씨!

당신의 원고독촉을 나는 네번째로 받았다. 나의 어머니에게 회유와 협박을 들이댄 사실에 대해서도 수삼차 들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약속했던 원고를 써보낼 수 없었다. 아니 쓸수가 없다. 만일 내가 원고를 보낸다 해도 당신이 요구한대로 내용이 씌여지지 않을것이니 이 글이 기필코 편집되지 못할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로치국씨.

당신은 원고를 독촉할 때마다 나를 두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진심으로 동정하는듯이 달콤한 말로 회유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교활한 술책에 더는 넘어가지 않을것이다. 도리어 나는 당신의 면상에 거담을 뱉을것이다.

나도 인간이다.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기때문에 당신이 진정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나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위하여 이처럼 동정하였다면 나는 목놓아울고말았을것이다. 정다운 벗, 삶의 은인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인간이 아닌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권고에는 철면피한 위선과 기만이 숨어있고 민족을 팔아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반역의 맥박이 뛰고있음을 알게 된 나는 끝없는 증오가 솟구쳤다.

로치국씨. 당신은 나를 잘못보았다. 나는 당신의 노복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론고장을 송달하면서 당신과 처음 만나 홀리웠던 나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생활에서 사랑과 증오의 그 어떤 운명이 지어질 순간이었기때문이다.

로치국씨, 당신이 정녕 인간이라면 나에게 대한 무서운 악의를 품고 제소할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되찾아 깨끗하게 살것을 이번에는 내가 권고한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온 민중이 저주하고 증오한다는것을 상기시킨다.

× ×

로치국씨, 세상에서 이 설음 저 설음해도 배고픈 설음처럼 슬프고 야속한것은 없다. 나는 그날

도 배고픈 설음을 이겨보려고 서울거리를 헤매며 신문팔이를 했다.

몹시 무더운 날씨였다. 가물이 여러달째 계속되어서인지 뜨거운 피약벌에 폐부까지 말라드는 것 같았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훗훗 뿜겨올라 숨까지 가빠왔다.

좁은 거리에 어깨를 맞비벼대며 오가는 수많은 인생들사이로 신문을 높이 쳐들고 나는 고래고래 《싸구려》를 불렀다. 나의 얼굴에서는 불이 날것 같았다.

원래 명동이라 함은 서울에서 양풍이 가장 짙은 변화가의 하나이다. 하기에 명동을 가리켜 남조선에서 류행의 최첨단을 걷고있는 거리라고 《조선일보》도 썼던바 있다.

좁고 길다란 길 양쪽에는 술집, 료정, 다방, 양풍점들이 어깨를 비비고 끼여있다. 거리의 양쪽의 변화한곳들에는 뉴욕제과, 켄프랜시스코, 모나리자, 바카스 등 가로세로 씌여진 영문자, 일문자 간판들이 알락달락하게 붙어있다.

퇴폐와 탄식, 눈물과 비애를 자아내는 《코스모스탄식》, 《사랑의 길은 멀고...》와 같은 낱아빠진 류행가들이 기타와 섹스폰으로 늘어지게 흘러나왔다.

《자 서양개 찾습니다. 사례금 2만원, 2만원 손쉽게 2만원이 굴러오는 새 소식...》

나는 창피도 무릅쓰고 신문 《싸구려》를 목청이 쉬도록 불려댔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배에서 나는 조르락소리를 멈출수 없고 어머니의 약값을 구할수도 없었다.

당신은 대학 재학당시에도 내가 이런 노릇을 했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다. 그때도 학비때문에 찬물을 쥐어먹으면서 눈물로 살았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2년후인 오늘에도 나는 《싸구려》를 불려야 했다. 실로 명줄이 길어서 어머니와 나는 죽지 않고 살아왔다...

이젠 맥이 너무 진하여 《싸구려》도 부를 힘이 없었다. 나는 오뎅집옆에 맥을 놓고 주저앉았다. 갑자기 현훈증이 일어났던것이다. 저절로 눈이 감겼다. 아, 숨소리마저 말라버리려는가...

이러한 때였다. 나는 나의 앞으로 다가오는 발자국소리도 듣지 못했다. 놀라는듯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것도 미처 알지 못했다. 말라버린 나의 어깨를 흔들어서야 나는 겨우 눈을 떴다.

《아니? 이게 누군가? 형범군이!...》

나의 앞에 허리를 꺾고 들여다보는 사나이가 있었다. 밀짚중절모를 눌러쓰고 로이터안경을 낀 혈색좋은 사나이다. 그의 목에는 사진기가 걸려 나의 코앞에 데롱데롱 매달렸다.

《누구이신지요?!》

《날세. 나야 로치국이...》

사나이는 로이터안경을 벗으며 말이빠디를 드러내며 웃었다.

《아니 로형!》

그제야 나는 당신을 알아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너무도 놀라와 소리치듯 부르짖으며 일어났다.

《자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은 나의 주체를 훑어보며 유감스럽다는 듯 말했다. 당신은 물날은 교복을 아직도 그대로 입고 신문구레미를 엮구리에 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로형이 어떻게...》

《허 그사이 충청도에 내려가 있었네. 올라온지 얼마 안되네, 그런데 자네 신상이 이게 뭔가?》

《.....》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말을 못했다. 너무도 다정히 동정해주는 당신의 목소리가 고맙고 또 고마왔기때문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거머쥔다고 나는 당신의 말에 이끌려 골목길로 따라갔다.

두 그림자가 자글자글 쫓는 아스팔트길 위에 움직여갔다.

《그래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배달을 한단말인가?》

《어디 나뿐인가요. 거리에 밀물처럼 밀려다니는 실업군을 보세요...》

당신은 나의 말에 비명같은 소리를 내었다.

우리는 네거리 종각뒤에서 동쪽으로 뚫린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키낮은 처마가 잇대여있는 짬으로 걸자니 마치 무슨 나락으로 굴러들어가는 것 같았다.

구두담기소년의 귀따가운 웨침소리, 광주리장사군의 《짜구려》의 숨넘어가는듯한 목소리가 이 좁은 골목에도 처량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넓은 공지로 나와 비교적 조용하다는 빼오홀(맥주다방)앞에서 멎었다.

이윽고 우리앞에는 맥주컵이 놓이고 비싸지 않

은 음식접시가 쟁겨졌다. 풍성한 식탁도 아니었다. 값비싼 요리도 없었다. 맥주 네컵과 오뎅, 아이스크림, 그리고 밀가루부치개 두접시가 전부였다.

《어서 들라구, 자.》

당신은 나의 앞으로 맥주컵을 내밀며 친절히 권하였다.

아, 그때 나는 음식을 들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맹물 한사발을 보아도 주름덜인 어머니의 얼굴이 안겨오는데 이것이나마 보는 순간 목이 껍 메여 말조차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자식으로서 나는 아직 한번도 따듯한 입쌀밥 한그릇을 어머니에게 듬뿍이 대접해보지 못한 것이다.

꿈많은 대학시절을 간신히 넘겼건만 차레진것이란 실업과 굶주림뿐이었다. 어머니에게 것처럼 고소하게 미래를 속삭였던것마저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다. 눈물과 한숨뿐이었다.

어찌 그렇지 않았으랴. 나의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만을 믿고 온갖 설움도 괴로움도 그리고 몸부림치게 안타깝던 꽃다운 젊음마저도 세월속에 고스란히 묻어온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슬퍼한 적이 없었고 나의 앞에서 눈물을 보인적이 없었다.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리라는 하늘보다 높은 희망을 안고 살았기때문이다.

나도 어머니에게 늘 그렇게 말해왔던것이다. 우리라고 늘 이렇게만 살겠는가 대학만 졸업하면 경치좋은 한강기슭에 그럴듯한 양옥도 한채 사고 자가용승용차까지는 힘들어도 밥술이야 놓겠는가. 그때는 나도 장가를 들고 어머니는 무릎위에 손자를 앉히고 새며느리가 쟁겨다주는 상을 받으며 지나온 고생 많던 나날을 옛말처럼 이야기 해주시라고... 하기에 어머니는 룽순이 가까와도 광주리장사와 녀마주이를 하루처럼 해왔던것이다.

그랬으나 그 달달한 리상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정말 고생이 많았겠구만.》

당신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주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왔던지...

한탄이 섞인 나의 말을 듣고있는 당신은 얼굴의 근육을 이상스럽게 히물거리고있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지만 아마도 당신은 (그날에 내가 진심으로 느낀것은) 때국이 낀 나의 물결이 가련하게 보였기때문이었을것이다. 이마

에 길게 흠어져내린 머리카락, 그밑에 우묵하니 패인 눈확속에 생기를 잃은 눈, 꺾어진 볼, 날카롭게 여위고 검실한 수염이 뽀죽뽀죽한 턱, 송장처럼 (나 자신에게도 너무 혹독한 말이지만)꺼렇게 땀에 뜬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을 연상시켰으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살기 위해 무엇인들 가렸겠나요, 이제는 정말 지치고 지쳤습니다.》 ××신문사 기자를 한다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 형범군을 보니 괴롭구만, 우리 신문사에서 도 기사를 탐문중이긴 하네만...》

《그래요. 어떻게 힘을 좀 써주세요.》

《노력은 해보지. 그러자면 기사를 써서 그 재능을 보이는데 중요하오. 원고만 잘 쓰면 다 그 값이 계산되오.

그런데 지금 군의 형편이 딱하군그래. 방법은 우선 원고를 몇건 써보게, 발표하는건 내가 책임질테니...》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야말로 구세주가 나를 도와 당신과 만나도록 해준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당장 쓰겠어요. 신용있게...》

《쓰게.》

당신은 확신성을 가지도록 나를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실상 형범군을 보니 군의 어머니가 불쌍하군, 어떻게 도와주어야 좋을지...

형범군, 그 신문을 나에게 팔게, 내가 다 사주지.》

당신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여 세여보지도 않고 나에게 주었다. 그 액수는 신문을 여러날동안 목줄이 서도록 《싸구려》를 웨치면서 판것보다도 더 많았다.

《아니! 신문값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게, 작지만 쌀봉지라도 사다가 어머니에게 따듯이 대접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네.》

나는 울었다. 피가 배인 눈물을 팔팔 쏟았다. 가슴이 미여지도록 고마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당신은 먹지 못한 음식을 신문지에 싸서 나의 옆구리에 찔러주었다.

우리는 뽀오홀에서 나왔다. 당신과 헤어진후에도 나는 오래도록 목석처럼 서있었다.

생각해보라, 난생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더운밥

을 대접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나는 그 걸음으로 짜전으로 달려가 입쌀 두봉지와 소고기 반근과 우동 한통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내가 귀인을 만났어요, 이제 멀지 않아 배고픈 세상을 잊을 때가 되겠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굶었던 배를 실컷 채워보지요.》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집에 다달았다. 날아왔는지 달려왔는지 나도 알수 없다.

× ×

로치국씨!

세상에서 무슨 고통 무슨 고통 해도 직업없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것은 없다.

그사이 나는 원고를 두건이나 썼고 당신은 나의 원고를 ××신문에 조석간으로 한자의 수정가필이 없이 내주었다.

나의 이름으로 원고가 세상에 발표되는것도 반가웠지만 나는 그보다 거액의 원고료를 받는데서 끝없는 기쁨을 느꼈다. 나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당하고도 며칠간식은 밥술을 먹었다.

물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원고료가 그렇게 많은줄로만 알았다. 나는 당신이 원고료라고 준 그 돈에 분간 못할 다른 명색의 돈이 끼여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었다. 다만 기사 《청계천의 흐름은 맑아지리》를 비롯한 내 원고의 사회적반영이 좋다는데로부터 웅당히 받아야 할 보수로만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던지 원고를 더잘 써서 ××신문사의 신용을 얻어 취업해야겠다는 결심뿐이었다.

당신도 알지만 나는 원고를 써가지고 뽀오홀을 찾아가갈 때마다 《로형-나에게 일자리를 주소서.》하며 녀불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언제면 나를 취업시켜주겠는가, 언제면 안정된 직업을 가지며 고생속에 묻어둔 희망을 꽃피우겠는가... 나는 당신만을 믿었다. 아마 하느님을 이만큼 믿어도 나의 희망은 성사될것이다.

우리는 만났다.

당신은 이미 단골집이 된 그 뽀오홀의 그 식탁에로 나를 데려갔다. 식탁에는 흑맥주와 음식이 올랐다. 당신은 어느때처럼 음식들을 권했다.

《자, 형범군, 군을 우리 신문사에 받도록 토론을 했소. 신용도 있고 재능 또한 뛰어나니 군을 기자로 받는것은 큰 행운이라고까지 말들을 했소. 허허허...》

《고맙습니다. 그게 다 로형의 덕분이지요.》

나는 너무도 감사하여 이렇게 거둬 외울뿐이었다.

《나도 반갑네. 나는 형범군을 믿기때문에...》

당신은 《파랑새》를 한대 꺼내어 나에게도 권하고 자신도 피워물었다. 담배는 랑끝이 다 빠지며 종이껍대기만 남아 비가처럼 된것이어서 두어모금을 빨자 벌써 손끝을 태웠다. 당신은 담배를 내던지고 맥주를 시원스럽게 들이키더니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군도 아는바와 같이 지금 유능한 문필가들이 로두를 방황하는게 얼마나 많은가. 그레 확고한 신용이 필요하다네. 신문사에는 영입이 중요한걸세. 그래서 기사를 한건 더 써야겠네.》

나는 당신의 요구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완전취업만 시켜준다면야 멩에를 벗고 도살장이라도 들어갈 처지였으니까...

《자 이걸 받게, 취업전기자증명서와 카메라네.》
《고맙습니다.》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길것처럼 덥석 받아쥐었다.

《나는 형범군을 형제처럼 생각하기에 모든 보증을 서기로 결심했네, 이런 용단은 솔직히 말해서 힘든 일일세.

언젠가 나에게 리순철군이 찾아왔었지. 아마 자네도 알텐데?》

《예, 4월의 정신을 들고 데모에 나섰다가 체포령을 받았던...》

《웁소, 그 분별없는 친구말이네. 바로 자네와 같은 처지더란말이야. 그때 좀 도와주고싶었지만 그럴수가 없었지. 그후 순철군이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그 친구가 지금은 어디 가있는지.》

나는 한해 옷학년이었던 순철군과 이야기도 별로 나눈적이 없고 또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같은 처지로서 동정이 갔다. 불쌍하고 선량한 젊은이들이 값없이 시들어버린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서글퍼졌던것이다.

《명심 하오. 한미친선이 영원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잘 씌여지면 틀림없이 자네에게 영광이 차례질걸세.》

나는 무엇인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응, 잘 써보게.》

우리는 밖으로 나와 헤어졌다.

밖은 이미 어두웠었다. 어디선가 자즈곡이 능글맞게 흘러나왔다. 알록달록 네온싸인이 명멸했

다. 나는 넋잃은 사람처럼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아, 그 별들의 반짝임은 나를 두고 조소하였던 것이 아니었는지, 조각구름이 하나 둘 별빛을 가리우자 오만가지 생각이 수레바퀴처럼 한데 엉켜 빙글빙글 돌아갔다. 귀에서는 실업자들의 아우성소리가 모기소리처럼 들려왔다.

아, 실업, 지긋지긋한 무직자, 텅마주이로 늙어 버린 어머니, 인간이하의 굶주림, 천대, 눈물조차 말라버린 삶...

(다행이다. 천행이다. 쓰자. 취업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자...)

나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한후 오늘까지도 취직 못했던 직업을 얻기 위해 약속한 날자에 기사를 쓰리라는 생각을 굳게 하였다.

× ×

로치국씨!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량심을 속이는 사람은 안긴이 아니다. 사람, 민족을 모르는 사람은 량심이 없는, 량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동물과 같다. 나는 이때까지 이런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니와 생각해본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번 취재의 길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다.

내가 당신의 의뢰원고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역을 떠나 ××땅에 도착한것은 진한 피빛의 노을이 우중충한 공장건물에 무겁게 내리덮여있는 저녁무렵이었다.

공장은 대단히 큰 부지면적을 차지하고 그 밖으로는 가시돌친 철망으로 울타리를 둘러쳤다. 요소마다에는 《썰! 들어오지 말것!》이라고 영어와 국문으로 쓴 패쪽지들이 매달려있었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두개나 있는 큰 공장이었다. 공장울타리안에는 아카시아나무가 빙 둘러있어서 더욱 어둡침침하게 보였다. 일정한 연혁을 말해주듯 건물은 어둡침침하였다.

이 공장은 《유세이드》(주한미국제개발처)를 끼고 미국인 콜드의 수하에 리모라는자가 명색상 경영하고있었다.

가시철망안을 들여다보며 걷는 나의 마음은 어쩐지 불안하였다. 처음으로 취재길에 올랐던 관계도 있겠지만 실은 공장이 주는 알수 없는 위압감때문이었다.

한적한 신작로를 혼자 걸어가는데 열여덟살이나 났음직한 계집애가 어린애를 업고 서성서성

나타났다. 등에 얹힌 어린애는 잠들었는지 방금 떨어질듯이 머리가 왼쪽으로 늘어졌고 계집애는 울었는지 눈이 툭툭 부어있었다.

뒤늦게 나를 발견한 계집애는 겁먹은 까투리처럼 비실비실 피해서는것이였다.

(무엇이 무서워서 피할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장정문에 들어섰다. 공장안은 어쩐지 쓸쓸하였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지심을 구르며 고르롭게 울려왔다.

이때 마침 교대를 바꾼 직공들이 공장뒤문으로 쏟아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웁지!...)

나는 뛰어가 그들을 향해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었다. 퇴근길에 나선 직공들의 웃음 비낀 얼굴을 렌즈속에 담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샤타를 누를수 없었다. 순간을 놓친것도 아니다. 원고내용에 맞는 웃음 담긴 직공들의 얼굴을 찾아낼수 없었던것이다.

철창에 갇혀 14시간내지 16시간동안이나 고역을 치른 직공들은 모두 증병을 앓고난 환자들 같았다. 여기에 웃음이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직업을 가지면 만사가 풀리고 기쁨이 샘솟을것 같던 나의 생각은 의심을 사게 되었다. 직업없는 나의 고통이 제일 큰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일터를 가진 저 직공들의 처지가 또한 제일 고통스러운것이 아닌가... 그들의 얼굴에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말해주고있다. 불안과 공포, 적의에 찬 눈빛과 하늘에 사무친 저주와 증오, 이것이 바로 고통이였다.

나는 우두커니 서있었다. 머리가 착잡했다. 현실은 이렇진대 과연 이들속에서 《한미친선》의 열을 어떻게 찾아낸단말인가. 미국의 사심없는 원조에 부흥하는 한국이라는 내용의 원고를 어떻게 쓰겠는가?...

난처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순한 사고를 버리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것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나는 걸음을 돌려 광고판이 세워져있는 뒤문구내로 가다가 우뚝 서버렸다. 광고판에 붙은 공시문이 눈에 띄운것이다. 그 내용인즉은 직공들을 위해 미국제통줄임을 반값으로 배급한다는것이였다. 이것이 콜드각하의 사심없는 혜택이라고 써있었다.

나는 이것이나마 찍자고 공시문에다 사진기를 대었다.

이때 렌즈앞으로 담벽처럼 우뚝 막아서는것이

있었다. 나는 와플 놀랐다. 렌즈에서 눈을 들고 돌아보니 나의 주위에 네댓명의 청장년들이 둘러서서 경멸의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당장이라도 나를 엎어놓고 짓밟아버릴듯한 위용이였다.

《이따위는 사진찍어 뭘 할테요?》

한 청년이 격분하여 주먹을 들어쥐였다. 나는 무엇을 훑히려다 붙잡힌 사람처럼 몸을 웅송그리고 머리를 숙였다.

《할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구려!》

그 청년은 공시문을 와락와락 찢어 땅바닥에 던지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짹짹 밟아버렸다.

로치국씨, 아 이때 당하는 모욕감, 나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이 처지에 직면했다면 어떠했겠는가... 나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국민들의 바로 이 감정대신에 거짓말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 아니 의무감이라기보다 나의 처지가 오늘 우리 언론인들의 처지라면 문필가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다.

나는 그들이 사라진뒤에도 된경을 치른 사람처럼 광고판에 머리를 틀어박고 소리없이 울었다. 부끄럽고 창피하여 울고 또 울었다...

로치국씨, 그러나 광고판앞에서의 나의 울음은 한갓 위선이였다고 할수 있다. 나의 눈앞에는 구세주로 생각해온 당신의 얼굴과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돈이 엇바뀌여 나타났다. 당신의 느슨한 웃음속에는 가식이 없다고 생각했다. 말년기의 어머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약이라고 생각했다. 참말로 나의 생각은 얼마나 단순했던지 천진란만한 아이와도 같다 할가...

나는 사진찍기를 단념하였다. 하지만 원고를 써야 하겠다는 그 생각때문에 나는 작업현장으로 찾아들어갔다.

작업장에는 축수낫은 전등이 수수떡처럼 매달려있다. 무슨 시약을 다루는지 코를 찢러 명치끝이 꼭 막히는것 같았다. 눈알이 쓰리고 재채기까지 나왔다. 마치 독가스에 중독된 사람처럼 눈물 코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머리가 핑 돌았다.

수수대처럼 강마른 직공들이 맥없이 손을 놀리고있다. 그들은 이 유해가스에 익숙되었는지 아무런 보호대책도 없이 일하고있다. 일하다가 숨이 막히면 밖으로 뛰어나와 밖의 공기를 욕심스레 마시고는 또 들어가 일하고, 일하다가는 또 뛰어나가군했다. 이 공장의 주인 콜드는 공장이 돌아간이래 아직 한번도 작업장에 들어와본적이

었다.

방독면을 쓰고 고무장갑을 낀 감독과 기술고문은 직공들이 밖에 나가 숨돌리는 시간을 분과 초로 따지며 계산한다. 거기에다 변소가 시간. 물마시러 가는 시간 그리고 간혹 출근이 늦어지는 시간까지를 합하여 계산하면 하루 스무시간을 일했다해도 결국 실로력 다섯시간을 넘기기 힘들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것 같아 더 있을수 없었다. 당장 전신이 마비되는것 같았다. 나는 쫓겨나오다싶이 밖으로 나왔다. 밖의 공기도 오염은 되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시원한지 몇었던 심장이 새롭게 뛰기 시작하는것 같았다.

제놈들은 방독면을 쓰고 고무장갑을 끼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다.

아, 정말 값죽은 노동력, 불쌍한 인생이 아닐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이번 원고를 본때있게 써보려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이였는가를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넋잃은 사람처럼 실망하여 걸었다. 이때 등뒤에서 약- 하는 녀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섰다.

어떤 녀인이 작업장에서 약 스무발자국 떨어진 자그마한 집의 문턱에서 꼬꾸라졌다. 뒤따라 그 기술고문이라는 미국놈이 뛰어나왔다. 그놈은 쓰러진 녀인을 구두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밖에서 공기를 갈아마시던 직공들이 아우성치며 발을 굴렀다. 돌발적인 아우성소리에 노동자들이 달려나왔다. 겹겹이 담을 쌓고 돌아갔다. 나도 그쪽으로 달려갔다. 사람들 틈으로 쓰러진 녀인을 알아보았다. 세멘트바닥에 었어진 녀인의 입과 머리에서는 선지피가 흘러내렸다. 고무신짝은 저만치에서 딩굴었다. 녀인은 실신되어있었다. 누군가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저놈이, 미국놈이...》

기술고문놈은 비실비실 뒤걸음질쳤다.

《죽여라!》

직공들이 와- 하고 다쫓아가자 그놈은 사무실 쪽으로 줄행랑을 놓았다. 직공들이 노한 사자마냥 다쫓아갔다. 앞서 달려가는 청장년들, 와-와- 소리치며 뒤따르는 녀공들... 일하던 노동자들이 몽땅 뛰쳐나왔다. 참고참아오던 울분의 폭발이었다. 돌아가던 기계들도 멎어버렸다. 공장의 숨결은 싸늘해지고 직공들은 공장구내로 가득찼다. 화산이 터진듯 노동자들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무실로 달려갔다.

나머지 몇몇 사람들은 실신된 녀인을 업고 달렸다. 나도 따라가려는데 쫓기운 고문놈이 승용차를 타고 정문으로 빠져나가는것이였다.

《저놈을 잡아라!》

노동자들이 죽기내기로 달렸으나 그놈은 뽀얀 흙먼지를 휘뿌리며 쏜살같이 도망쳐버렸다.

나는 치가 떨려 견딜수 없었다.

(아, 내가 왜 저놈의 먹살을 거머쥐고 후려치지 못했단말인가! 나는 바보다, 바보...)

나는 내가 무엇하러 여기에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도 통절하게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번에는 계집애의 찢어지는 듯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녀인을 업어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어린 계집애가 녀인에게 었어졌다.

나는 이 공장으로 오면서 보았던 그 소녀임을 알아보자 가슴이 몽클했다.

《수향아, 어찌면 좋냐! 네 어미가...》

누군가 소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원통하게 울었다.

사실은 명백하였다. 소녀는 배고파 우는 동생에게 젖을 먹이려고 철망울타리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던것이다. 그런데 어찌되었는가. 소녀는 절망하였다....

아! 짓밟힌 조선사람, 속절없고 죄없이 매를 맞아야 하고 무참히 죽어야 하는 기막힌 처지... 참으로 가슴터질 현실이 아닌가.

× ×

로치국씨, 나는 지금 격랑속에 있다.

직공들의 등에 업혀간 실신한 수향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처럼 눈앞에 더욱 삼삼해졌다.

미국놈들은 1분을 늦어도 9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임금에서 빼낸다. 배고파우는 아이에게 젖 한번 먹이다가 들켜난 수향이 어머니는 보름동안의 일값을 삭제당했다. 놈들은 수향이 어머니의 한달 임금에서 공기갈아마신 시간으로 열흘분의 값을 또 공제했다. 수향이 어머니는 너무도 억울하여 기술고문놈에게 사실을 밝혔다. 고문놈은 대들었다고 그를 사정없이 때렸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들었다. 순종하리라고만 믿었던 그놈은 겁을 먹었다. 직공들은 기술고문놈을 죽여버리자고 했다.

노동자들의 뉘은 역시 죽지 않았다. 승고한 일이 살아있는것을 보는 순간, 아 나는 얼마나 기

했는지 모른다.

현실은 직업을 구걸하고 배고파 눈물짓고 권세 없어 머리숙이던 나에게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 사실앞에서 내가 어떻게 한미친선에 관한 글을 쓰겠는가, 거짓을 꾸며내란말인가... 나는 이때야 비로소 당신을 의심하게 되었다.

로치국씨,

나는 자기자신을 속이는 조선사람으로는 결코 되고싶지 않다. 붓을 꺾을지언정 허위를 꾸며낼 수 없다.

지난해 민주학도들의 투쟁을 사실대로 보도했다고 하여 해고당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민중들로부터 구원금을 받아가며 연금속에서 살던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광경을 나는 보았다. 그래도 나는 거짓을 꾸며내고싶지 않았다.

인간이 참다운 리성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무엇보다 더 큰 죄악과 반동의 길에 떨어진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꼈다...

밤이 깊어가고있다. 나는 복잡한 생각을 안고 한적한 길을 걸었다. 나의 앞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청년들이 마주오고있었다. 나는 그들이 공시문을 찢어버리며 나에게 덤벼들었던 직공들임을 알아보았다.

《낮에는 정말 미안하게 댔습니다.》

《아... 아닙니다.》

나는 당황하여 변명하듯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여!》

《김형이?!》

너무도 뜻밖이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김형은 이런데서 만났다. 반갑고 기뻐다. 김형은 나의 손을 힘있게 잡고 오래도록 흔들었다.

나는 부끄러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러고보니 정말 미안하게 댔군.》

《아니, 아닙니다.》

《그래 어느 신문사에 있나?》

《저...》

나는 말을 못했다. 나의 심정을 당신도 알것이다.

《그래 어디를...》

《병원에 가네, 수향이 어머니가 입원해서 좀 가보자구...》

《그럼 이 공장에 있습니까?》

《아니네, 용무가 있어서 왔다가 그만...》

《몹시 다쳤습니까?》

김형은 겨우 정신을 차린 수향이 어머니에 대

해서 말하고 이어 콜드눔에게 항의하여 사례금과 입원금을 받아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얼마나 교활한놈인가, 하느님의 명목으로 기도를 한답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를 부르더군, 하하하...》

청년들은 김형의 말에 모두 웃었다. 나도 웃기는 했지만 죄지은 마음이어서 인차 머리를 숙였다.

《저 로치국을...》

《로치국?! 아니 그놈을 어디서 봤나?》

《서울에서, ××신문사 기잡니다.》

《기자라니?! 아니야. 그놈은 중앙정보부의 과견원이야. 더러운놈일세, 그놈이 장태선교수를 묶어갔네.》

《뭐라구요?! 과견원?!》

《그렇게, 그 자식이 순철군을 잡겠다고...》

《순철군을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당신한테 속은것이 분하고 억울했다.

그들이 병원으로 갈 때까지도 말 한마디 못했다.

김형은 당신의 의뢰원고를 쓰려고 내가 여기에 왔다면 아마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분노를 취재하러 온줄로 믿었을테니 얼마나 난감한가? 나는 가슴을 쳤다. 가슴을 터쳐놓고 붉은피를 팔팔 쏟고싶었다.

(로치국이, 로치국이 그런 인간이었구나. 나를 기만하여 리용하려고...)

아! 내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어디로 발길을 돌리고있는가...

× ×

로치국씨!

인간이 인간의 버림속에 산다는것처럼 고통스럽고 혐오한 삶은 아마 없을것이다. 당신은 나를 속였다. 당신은 나를 반동의 길, 돈과 취업으로 기만하여 반역의 길로 몰아가려고 했다.

당신이 처음으로 나와 만났을 때 자비심을 베풀어 팔아준 신문을 청계천에 집어넣었다는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원고료라고 내준 그 돈에 미끼가 숨어있었다는것을 알았다.

순철군을 동정하듯이 말하던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를 류치장으로 묶어가지 못한 몸부림이었다는것도 똑똑히 알았다.

당신은 기자가 아니었다. 당신은 물리학교수 장태선선생까지도 묶어간 중앙정보부 과견원이다.

당신은 민족반역자이며 숭미주의자이며 역적으로서 겨레들을 잡아내려고 기자로, 상인으로, 공무원으로 때로는 거지나 실업자로 가장하고 여기저기 나타나군하는 더러운자이다.

당신은 우리 노동자들을 무서운 유해가스속에 몰아넣고 피를 빨아내는것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첩조망을 늘이고 친우도 스승도 가림없이 묶어갔다. 때문에 나는 당신앞에서 김형의 이름을 밝힐수 없다.

아, 거리를 방황하는 나까지도 기만하여 끌어들이려고 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는가...

로치국씨,

당신의 죄과는 천추에 용납할수 없다.

나는 자신도모르게 당신의 마수에 걸려들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된다. 이미 세상에 발표된 두건의 기사에서 우리 민중을 홀시한것은 없는가... 우리 민중의 존엄을 손상시킨 구절은 없었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족적 긍지와 존엄, 조선의 열이 살아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린다. 이것은 단지 취엽하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로부터 심사숙고하지 못한 죄이다.

당신도 돌이켜보라, 당신은 우리 민중의 지향과 참된 삶을 알려하지 않는다.

맑은 하늘을 보라, 하늘은 푸르다. 당신이 딛고선 거리를 보라, 실업, 굶주림, 죽음으로 가득찬 수난의 거리다. 보이지 않는 첩조망으로 뒤덮인 이 땅 전체가 감옥이고 암흑이다. 그러니 어찌 푸른 하늘아래 펼쳐진 세상이라고 하겠는가...

나는 암흑속에서 반생을 무직으로 살아왔다. 죽지 못해 살았다. 나의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있다. 설사 일어난다 해도 엉마주이를 또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나는 권세없이 신음하는 한국국민의 무서운 고통을 말하고싶지 않다. 그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한국땅의 첩조망을 밝혀내고싶다.

두사람만 마주서도 서로 경계하도록 수족을 잃어매는 최극단의 정보정치는 참을수 없다.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입을 가지고도 말 못하는 정보사회, 친구간에, 이웃간에, 사제간에, 지어는 한집안안의 혈육간에도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묶어가는 정보정치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당신은 그 정보정치의 하수인이다. 나는 당신을 증오한다. 당신은 역적이다. 당신같은 인간은 알고있는것만도 수치스럽다. 당신은 이 무시무시한 정보정치로써 순박한 민중의 넋을 엿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땅을 마음대로 뜯어가도록 미국놈에게 내어맡기려 한다. 이것이 얼마나 절통한가.

그러나 당신은 오산하고있다. 우리 민중의 넋을 엿어낼 죄사슬은 이 세상에 없다. 민중은 정보정치의 하수인인 당신을 불태워버릴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이 땅은 불바다로 될것이며 인민들은 암흑천지를 가지고 푸른 하늘아래 새세상을 찾게 될것이다.

로치국씨,

당신의 죄과는 용서할수 없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 직공들은 콜드놈을 굴복시켰다. 참되고 깨끗한 새세상을 위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우리 민중은 투쟁의 대오에 설것이다...

아! 당신을 경멸하기에는 나의 어휘가 너무나 부족하다. 나의 목소리가 너무도 가냘프다. 가슴만이 미여질뿐이다.

× ×

나는 창창한 밤하늘에 무수히 뿌려진 별들을 바라보며 걷는다.

하늘의 별들은 무엇을 속삭여주는듯 반짝인다.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나는 유표하게 큰 북극성을 알아보았다.

별!

《이 땅을 우리 손으로 구원하자구...》

언젠가 박정희파쑈정권을 반대하는 데모를 준비할 때 순철군이 저 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했다.

웁다. 북극성을 등대로 통일혁명의 위업을 위해 가야 한다.

나는 하루아침 단두대의 이슬이 될지언정 정의의 필봉을 들고 사랑과 증오를 갈라내여 온 세상에 고발할것이다.

나는 김형과 순철군을 따라 통일혁명의 의로운 대오에 나설것이다.

로치국씨,

할 말은 다했으나 그래도 무엇인가 더 쓰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다. 당신에 대한 저주의 론고와 우리 민중의 굶핍 없는 투쟁과 존엄을 두고...

생의 마지막 기슭에

김재원

철의 사단, 철의 대오 이끌고
남으로 남으로 내달던 투사,
아쉬워라
다도해의 물결 기슭을 치는데
혈전의 언덕에 쓰러진 투사여

더는 일지 못하는가,
땀에 젖고 포연에 그슬은
끓디끓은 투사의 이마,
그우에 군기는 흐느끼듯 날리고
진격의 대오, 걸음 멈추려는데.

인간이 최후에 남길수 있는
그 귀중한 말 다 어디 두고
투사는 조용히 너군외에게 속삭여라,
-5분간, 5분간만
내 심장 고동치게 해다오!-

오오! 불붙는 경상도의 대숲을 거머쥐고
당원, 투사가 일어섰던 5분간이며,
질벽히 피흐르는 군복단추를 세우며
장군님 그어주신 붉은 화살표
진격의 대오에 새겨주던 5분간이며.

그 어떤 강대한 신념이
그대를 일궈세웠던가,
생의 마지막 기슭에서 바라본
우등불이 타오르던 혁명의 첫 저녁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오오! 장군님께서 활달하신 글씨체로
《조국!-》

백두밀영의 보라불빛과 함께
가슴속에 새겨주신 첫 글자
승엄하신 그날의 장군님 영상이여!

그 위대한 영상앞에 다시 선듯
떨기지는 피방울에
장군님 뜻을 담아
투사는 철의 대오에 명령을 내렸어라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그 명령 피방울과 함께
흘러들어,
전사들 가슴에 흘러들어
군기를 날리며 사자같이 내달던
철의 전선, 조국해방전선이며!

오오! 장군님 뜻으로만
그 몸이 약동했기에
명령을 못다하고 명령을 못다하고
추호도 고동을 멈출수 없었던
항일투사-당원의 심장이며!

인간의 한생에 5분간은
5분간은 너무도 짧은 시각이었건만,
그렇건만 무궁한 세기를
그속에 휘여잡은
충성의 심장.

만년을 살아 그 생이 기억되는것이라
짧게 살아도 마지막 그 기슭이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 위해 충성에 빛날 때
그럴 때 그 삶은
당원-투사로 영원하더라.

살구재언덕길에서

-남녘땅 누이가 부른 노래-

김정춘

북두칠성 정답게 반짝이는 밤
살구재언덕길 바람부는 마루에
오빠, 분이가 서있어요
조직의 연락임무 안고 여기 설 때마다
아, 오빠의 그 모습이 그리워져요

...그날 멀어져가는 인민군대오를 바빠 따라서며
푸른 배낭 짊어진 오빠는 내게 말했지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철없이 눈물짓던 나에게
길센의 싱아대도 꺾어주면서...
-분이야, 오빠는 인차 온단다

철부지 그 시절엔 내 미처 몰랐어요.
어머니와 나, 모지랑 호미 들고
손끝에 피지도록 지주놈 발길을 땔 때에도
왜 오빠가 빨리 못오는줄...

이 길우에 달이 뜨는 그 밤이면 더욱 그리워
시름 많던 어머니도 나를 꼭 껴안고 말했지요
-통일되면 오빠가 꼭 올테니
분이야, 우리 고향에서 이사도 가지 말자...
그런 밤이면 금시 웃으며 오빠가 달려올듯
아,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던 이 길...

이 길을 갈아내며 미국놈 땅크가 닥쳐들어
여름이면 비새던 이영 작은 초가마저 짓이겨놓고
이 길에서 어머니가 놈들총에 피 토하며
숨지고...
이 길우로 내 동무 복희가 통곡하며
남아메리카주로 팔려가던 날
아, 오빠, 나는 똑똑히 깨달았어요

인차 오마, 오빠의 푸른 꿈이 비껴오는 이 길을,
어서 만나요, 달려가며 오빠를 마중할 이 길을
어느놈이 가로막아섰는가를-
인차 온다던 때로부터 이 길우에 흐른

오래인 세월의 그 공간을
어떤 악마들이 락탈과 살륙의 피로 메꾸어놓았는
가를,

아, 그래서 분연히 일떠섰어요, 분이는!
앞아서 굴종하며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일어나 싸우다 죽을것을,
악마의 이 세상 뒤집어엎을
보복의 불길을 안고, 끓는 피를 안고,

오빠, 나는 가요. 저기 방직회사 교역장으로
저기선 복희와 같은 애들이 시들어가요
그들에게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려, 어제는 《혁명
전선》
오늘은 오빠의 그 심정도 함께 담긴
북녘형제들의 련석회의 편지도 안고가요.

미제와 박정희피뢰의 총칼이 목숨을 노려도
오빠, 분이는 무섭지 않아요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밝은 해빛 뿌려주
시기에,
내가 가는 이 길에 자주통일 봄빛이 따스해...
분이는 그 봄빛을 뿌리며 가요

비오고 눈오고 폭풍 몰아쳐도
광산으로 부두로... 투쟁의 전구를 넓혀나가며
분이는 곱힘없이 가고갈래요
오빠와 나와 헤어진 살구재언덕이
아버이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기어이 모실 그
길로,
갈라진 민족이 감격의 환호속에 다시 만날 그
길로
아, 오늘 나의 앞에 피타는 소원을 안은채
펼쳐져 있기에
죽어도 끝까지 이 길로 갈래요.

충성의 혁명전위-3 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치 세차게 휘날리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오늘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문학앞에 나선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들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주체의 작품창작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주체의 작품창작을 의미하는것이며 3대혁명을 떠나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시대정신도,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성격도 생각할수 없다.

특히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을 적극 반영하며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은 3대혁명운동의 본질과 그 원동력을 밝히며 시대의 참된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것은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중요한 목적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가려는데 있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영예로운 전초선에 선 혁명전위들이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무조건성의 원칙으로 관철해나가는 우리 당의 친위대, 근위대이다.

공장과 농촌, 광산과 어촌 그 어디에서나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혁명의 기수답게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와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전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는 우리의 혁명문학이 당정책을 구현하고 시대에 민감하려면 응당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3대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그 앞장에서 전진하는 시대의 전위투사-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하는것이다.

1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와 혁명문학건설의 필연성을 옹계 구현하여 최근 단편소설분야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그린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있다.

우리 단편소설문학에서는 지난해만 하여도 《기쁨》(정성훈), 《해빛을 안고 온 청년》(리종렬)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작품들에서 작가들의 지향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혁명적세대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미와 혁명적풍모를 밝히는데 돌려졌으며 이 면에서 새로운 창조적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충성의 혁명전위로서의 그들의 성격적미를 시대적높이에서 훌륭히 천명하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작품의 종자도 옹계 설정되어야 하며 거기에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집중되고 통일되어 궁극적으로는 혁명전위들의 새로운 성격적풍모가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져야 하는것이다.

《기쁨》과 《해빛을 안고 온 청년》을 비롯한 최근시기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 거둔 중요한 성과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쁨》에서 작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 특히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이며 그들의 삶의 보람과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는것을 기본과제로 내세웠다.

...온 나라의 들판을 덮을 황금물결을 그리시며

새로운 다수확품종의 발견을 두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아버지수령님, 우리 농민들이 수십세기를 두고 꺾지 못했던 허리를 영원히 꺾게 할 모내는기계의 완성을 두고 기쁨과 만족의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수령님! 주인공 은희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기쁨을 느끼시는 자애로운 영상, 그러한 감격적인 순간을 가슴뜨겁게 느끼는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으며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일에 자기 한몸을 바쳐 싸우는것을 떠나서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생각할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기계로 더많은 논에 모를 내는 일박의 돌림길이란 생각할수도 없었으며 그 일에서 한걸음의 양보는 백걸음의 퇴보라고 간주하였다.

하나의 생각을 하고 일을 하여도 그 모든 생각과 일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신념으로 관통시키며 그 길에서는 조그마한 돌림길, 한치의 드림도 있을수 없다는 철석같은 의지로 억세게 전진하는 이것이 주체형의 새세대-3대혁명소조원 은희의 새로운 성격적품모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은희가 친 긴 전보문의 첫머리에 씌여진 이 뜨거운 글발,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있으며 주인공의 사상정신적높이와 숭고한 품모가 있다.

우리는 《기쁨》의 주인공 은희의 형상을 통하여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을 보며 그들이 지닌 충성심의 높이와 열도를 가슴뜨겁게 느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 그 한길에서 청춘을 꽃피워가는데가 충성의 전위-3대혁명소조원들의 전형적인 성격적특질이며 참다운 모습인것이다.

《기쁨》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자면 3대혁명의 불길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들의 성격적특징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주인공의 모범적인 행동, 긍정적역할을 보여주는것은 형상창조의 일반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있는 오늘의 전형적인 성격을 그리자면 모범적인 일, 좋은 일을 하는 그자체의 재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하게는 현실적인간들이 도달한 사상정신적높이에 서서 모범적인 일, 좋은 일을 하는 그 근처에 깔린 사상적지향성, 충성의 열정을 밝혀내

야 하며 그들의 일상 생활과 사업에 관통되어있는 이 숭고한 충성심의 발현을 새롭게 포착하고 심오하게 일반화할 때에만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주인공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할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해빛을 안고 온 청년》이 보여준 경험도 매우 귀중한것이다.

이 작품은 그 중심에 사상관점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주인공인 3대혁명소조원 김준오를 비롯하여 지배인 엄영선, 직장장 박창억, 연구사 윤성학은 모두 굴뚝직장에 대한, 노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는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립장과 관점으로 하여 대립되고 얽혀져있으며 작품의 얽음새와 구성도, 선택된 소재와 생활세부도 다 이 사상관점문제를 푸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거기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일군들의 사상관점문제를 종자로 잡고 형상을 창조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관점문제가 일반적이며 개념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 뚜렷한 종자로 되게 된것은 그자체에 시대가 제기한 심각하고도 철학적인 문제성이 간직되어있기때문이다. 즉 작품에서는 그 제목이 말하여주는바와 같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것을 그들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것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며 우리 노동계급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이 일군들의 먼지진 그릇된 관점으로 하여 잘 비쳐지지 않던 굴뚝직장에도 정확히 제때에 미치게 하는가 못하는가, 또 그 관철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가 안나서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에 제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빛을 안고 온 청년》-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통하여 주어진 종자를 심오하게 해명하였으며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자기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청년지식인의 성격적미를 훌륭히 천명할수 있었다.

3대혁명소조원으로서의 주인공 김준오의 성격적미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의 무조건성, 일군들의 낡은 관점을 깨우치고 끝까지 문제를 풀고야마는 무한한 헌신성, 낡은 사상 잔재와의 비타협성에 있다.

김준오에게 있어서 일군들을 돕는다는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를 혼자서 푸는것과 같은 그런 실무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머리속에 집요하게 남아있는 낡은 사상관점으로 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고있는것을 보고 참을수 없었다.

지난날의 처지를 잊고 사람을 보기전에 생산을 먼저 생각하면서 굴뚝직장을 까맣게 잊고있는 지배인 엄영선,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면서도 눈 밖에 나있다고 굴뚝직장을 뜨겠다는 직장장 박창억, 자존심을 운운하며 책임이 두려워 일이 잘 안되는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객관 시하는 연구사 윤성학, 이들과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벌리면서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그들모두에게 주어진 립장과 자각을 깨우치고 그들을 이끌고 떠밀어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발벗고나서게 한 여기에 3대혁명소조원-준오의 새로운 성격적미가 있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낯은 사상잔재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사상과 기술, 문화 영역에서의 온갖 낯은것을 결정적으로 쓸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성격적면모를 보여주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래야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주인공들의 성격을 정치사상적면에서 두드러지게 그려낼수 있으며 그와의 연관속에서 다양한 성격적면모를 보여줄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기술실무적인 문제나 풀면서 당면한 생산공정에만 몰두하는 주인공을 그려가지고서는 3대혁명소조원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풍격을 옹게 밝혀낼수 없다.

《해빛을 안고 온 청년》이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형상에서 새로운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를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할수 있었던것도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닌 사명과 역할에 맞게 낯은 사상 잔재와의 비타협적투쟁을 벌리면서 일군들을 이끌고 그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과 같은 정치사상적면을 예술적으로 두드러지게 그렸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전기수진실의 심선을 보는 순간 그것들을 단순히 심선인것이 아니라 땅우의 모든 생활을 비쳐주시고도 모자라시여 지심속깊이에까지 뚫고들어온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빛살로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주인공의 모습을 두고 독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더 밝게, 더 뜨겁게 미치게 하기 위해 그처럼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주체의 맑은 피 끓어넘치는 우리 시대 혁명가의 참된 모습을 감명깊게 보게 된다.

그리하여 단편소설 《기쁨》이나 《해빛을 안고 온 청년》의 주인공들은 우리의 혁명문학에 새롭게 등장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3대혁명소조원들

의 성격창조에서 확실히 새로운 예술적탐구의 결실이며 시대적전형창조에서 귀중한 기여로 된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형상한 작품들가운데서 《한계점》이나 《그가 서야 할 자리》 등 작품들도 일정한 긍정적시도를 보여주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는 그 어떤 기존한계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를 실증하고자하는 《한계점》의 주인공 랑림이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뒤떨어졌던 학생도 이끌어 앞자리에 세울수 있다는 혁명적교육가의 량심과 품모를 지닌 《그가 서야 할 자리》의 주인공 영림의 형상은 다 낯은 사상에 물젖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3대혁명소조원의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려 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반영한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있는 오늘 경험은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혁명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을 깊이 탐구하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할 때 지난시기 현실주체의 그 어느 주인공과도 비길수 없는 새로운 사상정신적품모를 시대적높이에서 빛나게 창조할수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확고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3대혁명소조원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수행을 위한 전위적투사들로서 적극 활동하고있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에 의하여 지금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일대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고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바로 이 전투적구호가 3대혁명소조원들에 의하여 지금 더욱 실속있게 철저히 관철되어가고있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투쟁현실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비추어볼 때 그들의 형상창조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나르고있다.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과정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전위적역할을 충분히 보여주자면 무엇보다먼저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야 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을 공장 일면에만 치우쳐 그리거나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전반적영역에서가 아니라 기술일면에 편중하여 그린다면 그들의 역할을 옹게 보여줄수 없으며 3대혁명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다.

물론 사상주체적목적과 과업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의 생활을 그릴수도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사상이나 기술, 문화 혁명의 어느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생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전반적인 연관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따라서 기술혁명 문제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사상혁명과 문화혁명과의 연관속에서 그릴 때에만 생활적진실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간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습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전반적연관속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보지 않고 기술일면에만 치우칠 때 생산공정이나 기술실무적인 문제의 서술을 피할수 없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그들이 기술실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만을 고립적으로 보여주어서는 안되며 또 공장에서의 활동만을 그려서도 안될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쁨》이나 《해빛을 안고 온 청년》이 매우 긍정적이였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들은 정당하게도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투쟁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과의 연관속에서 그리면서 그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부각할수 있게 종자를 옮겨 설정하고 형상을 심화시켰다. 또한 《그가 서야 할 자리》는 교육부문에서의 3대혁명소조원의 활동을 그림으로써 생활적폭을 넓히고 예술적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전반적인 연관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의 활동을 다면적으로 펼쳐보여주어야 작품에서 생산기술적문제가 아니라 인간학적인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세세대 청년지식인로서의 혁명전위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가운데는 20~30대의 청년들이 많은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그들의 사상적지향과 열정, 꿈과 랑만, 리상을 펼쳐보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대혁명수행의 전조선에서 투쟁하는 전위투사-3대혁명소조

원들의 혁명적리상과 랑만, 진취적이며 혁명적인 열정의 묘사야말로 그들의 성격적미를 두드러지게 그리는 효과적인 방도로 될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을 밝히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매 등장인물에게 뚜렷한 성격적과제를 주며 특히 주인공의 성격을 모가 나게 그리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매 등장인물들에게 뚜렷한 성격적과제를 주는것은 주인공을 살리며 성격을 개성화하는데서와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심문제의 하나로 된다. 현실생활과 사람들사이의 관계에 맞게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매 인물들의 성격적과제를 뚜렷이 하여야 현실에 대한 예술적축도로서의 작품이 생명력을 가질수 있으며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사고하며 활동하는 산인간을 그릴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에 맞게 매 인물에게 과제를 똑똑히 주어야 한다. 이런 작품들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지 않으면 3대혁명소조원은 단순히 생활의 관찰자, 평가자의 역할밖에 할수 없으며 기껏해야 제기된 문제를 마무리하는 피동적인 역할밖에 더는 할수 없는것이다.

작가가 개성적인 똑똑한 종자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지 못할 때 그런 작품들에는 대체로 세사람 즉 3대혁명소조원과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이 똑같이 중심에 놓이게 되며 그 가운데서도 긍정인물과 부정인물간의 관계가 주선을 이루면서 3대혁명소조원은 단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르는 역할밖에 더는 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인공인 3대혁명소조원은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맺을수 없으며 따라서 작가의 주관적강조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형상에서는 추상성과 일반성을 면할수 없다.

3대혁명소조원-주인공이 생활의 단순한 관찰자, 조종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을 새로운 생활창조예로 이끄는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등장인물과는 별개로 그 어떤 《제3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곧 다른 인물과 다름없는 그런 생활속에 그가 놓여야 하며 또 뻔해야 뻔수 없고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는 유기적인 인간관계속에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자면 다른 등장인물들과 함께 주인공에게 뚜렷한 성격적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해빛을 안고 온 청년》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인물들의 성격적과제가 명백할뿐만아니라 그

모든것이 집중되고 그의 질적규정성을 특징짓는 3대혁명소조원인 주인공 김준오의 성격적과제가 뚜렷하기때문에 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주인공을 축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져있는것이다. 또한 주인공 준오는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에 기초한 자기의 성격적과제를 가짐으로 하여 제기된 문제의 뒤수습을 하는 정도에 머문것이 아니라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생활을 개척해나아가는 3대혁명소조원으로서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두드러지게 나타낼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작가가 3대혁명소조원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놓고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를 담당하는 뚜렷한 성격적과제를 그에게 주지 못하였을 때 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무난한 인물로 되어버리고말며 생활의 뒤를 쫓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게 된다.

경험은 3대혁명소조원이라고 해서 그와 작품의 다른 인물들과의 간격을 조성하고 그를 부정에 대하여 교양적인 말이나 몇마디 하고 걸린 문제를 손쉽게 풀어주거나 혼자 동떨어져서 좋은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그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간격없이 생활하며 그들과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맺고있는 보통사람으로, 그러면서도 3대혁명의 기수-전위투사로서의 선구자적역할을 다하는 끝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로 그릴 때에만 우리 시대 혁명문학의 빛나는 전형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 작품창작에서 작가들은 그 어느 인물보다도 그의 성격적과제를 뚜렷이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작중인물들사이의 인간관계를 유기적으로 맺어주어야 하며 시종일관 주인공의 진취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적특질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형상을 심화해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3대혁명수행의 앞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고무해나가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적높이를 심오하게 천명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작가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또한 혁명적실천투쟁과정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혁명화되어가는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청년지식인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일군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적으로 개조하였을뿐만아니라 자신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수많은 청년지식인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혁명적지식인으로

자라난것은 천량이나 만량의 금을 주고도 얻을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견결성, 집단주의정신을 배웠으며 로동계급의 무진장한 창발성과 힘의 원천을 알게 되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으며 로동계급과 로간부들, 청년지식인들이 합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매우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혁명화과정, 로동계급화과정이 진실하게 그려져야 하며 혁명적실천과정에서 사상정신적으로 성장하여가는 그들의 내면세계가 심도있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무시하고 일면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만 그린다면 생활이 진실하게 반영될수 없고 심리정신적변화와 발전과정을 제대로 보여줄수 없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면서 그 과정에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방조하고 교양개조할뿐만아니라 동시에 3대혁명소조원자신이 사상정신적으로 수양되고 성장하여가는것이 곧 현실이며 생활이다. 따라서 3대혁명수행에서의 혁명소조원들의 전위적역할과 함께 그 과정에서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키워가는 사상정신적인 성장과정을 응심깊게 펼쳐보일 때 비로소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심원하게 일반화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새로운 성격적미를 훌륭하게 창조하는데서는 이밖에도 예술적형상수법들을 널리 탐구리용하며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미학적인 문제들이 제기된다.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의 성과적해결은 우리의 작가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적극 참가하여 들끓는 현실생활과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체험할뿐만아니라 자기의 예술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아갈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3대혁명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는 혁명적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창작적열정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적시문학에 반제반미투쟁정신을 힘있게 구현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스물여섯해전인 1951년 6월 30일 작가, 예술인들을 접견하시고 우리 문학예술의 강령적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은 인류에 대한 가장 흉악한 죄악으로서, 후손들에 대한 말할수 없는 치욕으로서 천추만대에 걸쳐 세계인민들의 분노와 저주를 받을것입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의 죄악을 전세계인민들앞에 철저히 폭로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우리 인민을 교양하여야 하겠습니까.》

온갖 범죄적만행과 파쑈적만행으로 가득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과 야수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미제의 박정희파쑈악당들에게 증오와 저주의 불소나기, 멸망의 철추를 무자비하게 안길 때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은 진정으로 반제반미투쟁정신을 힘있게 고취하는 혁명의 나팔로 될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악랄한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시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주제명역을 확대하고 더욱 심화하는것이다. 주제적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시에 일관된 증오와 규탄의 기백이 생동하게 전투적으로 울릴수 있으며 커다란 사상정서적충격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적만행에 대한 시의 규탄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한편의 시에서 반제반미투쟁문제 일반을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노래하는것과 같은 경향들은 응당 극복되어야 할것이다. 물론 시창작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반제반미투쟁을 보다 포괄적으로 노래한 시편들이 창작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시들에는 시인의 사상감정을 천명할수 있는 구체적이며 정서적인 고유한 체험세계에 기초한 명확한 주제가 설정되어있어야 한다.

만일 한편의 시에서 원수들의 이리저리한 죄행을 다 폭로하려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원수들에 대한 시인의 증오와 격분을 표현하였다면 그것은 응당한 예술적효과를 나타낼수 없다.

이런 시들에서는 사실과 사건 라렬이 많은 반면에 시적대상을 정서적으로 체현하고 그의 사상미학적의미를 심도있게 천명한 시인의 독창적인 사상과 발견은 없게 될것이다.

시문학에서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죄행을

폭로단죄할데 대한 요구는 응당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 서정시는 구체적인 사실과 대상에서 체현된 감정을 일반화하여 심오한 사상을 천명하는것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원수들의 죄행도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각이한 시적계기에서 날날이 폭로단죄되어야 할것이다.

사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책동과 그 죄행들은 그 하나 하나의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을 증오에 떨게 하고있으며 복수의 심정으로 끓게 하고있는가! 시에서는 원수들의 이 모든 죄행이 하나하나 론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모에 걸쳐 타매되어야 하며 그래야 원수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과 악랄한 정체가 여지없이 폭로규탄될수 있다.

또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과 대상에 기초하여 시상을 펼쳐야 시적일반화의 심오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시의 전투적기백을 높이고 시문학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보장할수 있다. 특히 이것은 이 주제 시작품들의 단조성과 일률성을 없애고 주제의 폭을 넓히며 반제반미투쟁의 시를 많이 창작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반제반미투쟁주제의 폭과 심도를 확대하고 심화하면서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가장 강렬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적일반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오늘 반제반미투쟁을 주제로 한 시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또 하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모든 시작품들에서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규탄의 기백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침략적 및 야수적 본성을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이 발가놓고 그놈들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여지없이 짓밟는 침략과 략탈의 원흉으로 폭로단죄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전인민적인 증오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것은 반제반미투쟁주제의 시창작에서의 총적인 사상적지향으로 된다. 이 주제의 시작품들은 일치하게 이러한 사상적지향을 가져야 하며 시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이러한 사상적지향을 효과적으로 천명하는데 전적으로 복종되어야 한다. 그것은 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격분, 준렬한 규탄의 사상감정을 표현하는것이 바로 반제반미투쟁주제시문학의 목적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매 작품들이 가지는 인식교양적의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시문학창작에서 원수들에 대한 폭로와 규탄의

감정을 힘있게 표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시인이 높은 계급적 및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원썬들의 온갖 죄행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동시에 시인의 심장이 계급적증오심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것이다.

다른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의 성과의 비결이 창작가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창작적열정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지만 특히 시문학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 그가운데서도 반제반미투쟁주체의 시들은 원썬들에 대한 시인의 증오와 격분을 시종일관 강렬하게 표현해야 하는것만큼 시인의 예리한 정치적안목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인들은 높은 정치적안목과 철저한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원썬들이 저지르는 온갖 만행과 범죄행위를 꿰뚫어보아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본질적이고 전형적인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초점을 집중하여 예리한 시적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썬들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사실주의적예술이 되는것은 아니며 그러한 작품이 원썬들에 대한 적개심을 복돋아주는것도 아니다.

시인들이 높은 정치적안목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원썬들의 죄행이 사건적으로, 자연주의적으로 라렬되거나 때로는 비본질적이고 사말적인 것이 자리잡을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반제반미투쟁의 감정이 웅당한 높이에서 심오하게 표현될수 없다.

비록 하나의 작은 사실이라고 하여도 거기에서 원썬들의 악랄한 본성과 취악성을 포착하고 시인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에 비추어 날카롭게 폭로단죄할 때 커다란 증오의 감정을 폭발시킬수 있으며 사상적폭과 심도를 보장할수 있다. 시인의 심장에 의하여 진실하게 체험되고 원썬들의 죄악을 두고는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시인의 끓는 심장이 그대로 용암처럼 분출하는 증오의 격정을 가져야 시에서 원썬들의 본성이 날 날이 밝혀지고 규탄의 기백이 강렬하게 울릴수 있다. 원썬에 대한 증오와 격분으로 불타오르지 않는 시인에게서는 일반적인 구호나 웨침은 나올수 있어도 그것이 사상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에 충격적으로 작용할수는 없다.

반제반미투쟁의 시들에는 대체로 원썬들의 죄악상이 폭로되고 그에 대한 규탄의 기백이 안반침되는것만큼 여기에서는 반드시 시적형상의 예리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원썬들의 정통을 찌르는 증오의 격정이 강렬하게 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주제 시작품의 왕성한 창작을 위해서는 원썬들의 본질을 날날이 꿰뚫어보는 시인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원썬들에 대하여서는 오직 증오와 격분만을 아는 불타는 계급적증오심이 시적형상의 근저에 놓여야 한다. 그래야 반제반미투쟁감

정이 사상적심오성과 커다란 예술적감화력을 가지고 힘있게 표현될수 있다.

혁명적시창작에서 원썬들에 대한 폭로와 규탄의 기백을 강렬하게 표현하자면 또한 그것이 강렬하게 표현될수 있도록 시적계기를 옹계 설정하고 시적형상을 예리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서정시는 체험된 사상감정을 서정적으로 일반화하는 형식인것만큼 모든 시적형상은 구체적인 일정한 계기에 의하여 창조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시적계기를 가지지 못한 시들에는 사건라렬이나 대상에 대한 이러저러한 수식과 설명이 따라가기 마련이며 시인의 독창적인 사상이 참신하게 표현될수 없다.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시적계기는 그만큼 시인의 내적체험의 뜨거움과 함께 시적사상의 명백성과 독창성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신천에서의 미제의 만행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와 복수를 노래한 한편의 시가 있다. 이러한 시는 지난시기에도 많이 창작되었고 또 최근시기에도 이러저러하게 창작되었다. 그런데도 이 시가 극적심각성과 강렬한 사상정서적충격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나는 이제 떠나려나, 신천이여
어루만지듯 지붕이며 흰벽우에
달빛은 고요히 내리고
먼 하늘가 깜박이는 별처럼
가로등은 줄음에 취했건만
이 밤도 모진 아픔에 뒤척이듯
잠 못드는 너의 숨결을 안는다

시인은 처음부터 시적계기를 명백히 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있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시인이 신천을 노래한 지난시기의 시편들과는 달리 자기의 사상감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포괄적으로 토로할수 있는 새로운 시적계기를 포착한것이다.

즉 시인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과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천박물관을 돌아보고 신천을 떠나 초소로 가는 그 시각의 병사의 립장에서 시상을 펼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적특징은 이 시로 하여금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에 대한 폭로와 원썬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매우 격렬하게 표현할수 있는 내적요인의 하나로 되었다.

나는 참을수가 없다,
천백배의 복수로도 가슴은 풀리지 않으리라
더더구나 이 신천땅의 수난이
순간마다 빛어지는 담넉땅을 안고 살기엔
흐르는 세월이 너무도 모질다
수천수만의 우리 사람들을 빼앗긴 이 가슴이
어찌 또다시 그 원썬놈들의 총칼에 겨레들을

내말길수 있단말인가

 오오, 새 전쟁 도발에 분별없이 날치는 미제
 국주의가
 내 총창앞에서
 추악한 주검과 시체로 굳어지기전에는
 조선의 이 분노를 그 무엇으로도 꺾버릴수
 없으리라!

이처럼 시 《출발전 역구내에서》(변홍영 《조선문학》 1975, 7)는 시인의 절절한 체험세계에 의하여 포착된 구체적인 시적계기에 기초하여 시상을 펼침으로써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죄악상을 치솟는 증오와 격분으로 폭로단죄하고 천백배의 복수의 기백을 힘있게 표현할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진렬된 평범한 한 인민군녀전사의 편지를 두고 느끼는 시인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새세대들의 숭고한 계급적의무와 자각을 깨우치면서 남녘땅에 미제가 남아있는 한 반드시 원쑤와의 판가리결전장에 떨쳐나서 미제침략자들을 영영 소탕해버리고 조국통일의 성스런 위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반영한 시 《한장의 글발》(주정웅, 《조선문학》 1976, 3)은 매우 교훈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반제반미투쟁의 시작품들에서 시적계기를 옹계 포착하는것은 이 주제작품에 고유한 시적예리화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있다. 구체적인 시적계기에 기초한 시형상의 예리화가 보장되어야 반제반미투쟁감정이 더욱 격렬하게 표현될수 있는것이다.

이 주제 서정시에서의 시적예리화는 주로 생소한 시적계기에 기초한 시의 구성조직과 많이 관련되는바 실제적인 창작실천에서는 다양한 계기에서의 다양한 구성조직을 시도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의 앞부분에서는 원쑤들의 만행과 죄악상을 펼쳐보이고 뒤부분에 가서는 그에 대한 이러저러한 규탄을 표현하는것과 같은 일률적인 구성조직을 취한다면 시형상의 예리화를 보장할수 없고 단조성과 류사성도 면할수 없다.

물론 반제반미투쟁의 시에서는 원쑤들에 대한 폭로와 규탄의 기백이 시전반에 팽배하게 흘러넘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매 시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만 흘러나올수는 없다.

레컨대 서정적주인공-시인이 원쑤들의 만행과 죄행의 직접적인 목격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후에 전해들었거나 또 박물관을 통하여 본 사람인가, 그리고 미제와 박정희와쑈악당의 암흑통치밑에서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의 관점에 섰는가 아니면 그에 대한 참을수 없는 민족적분노를 안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심정을 대변하

였는가 또 원쑤들의 만행을 절규하는 시인의 립장에 섰는가 등에 따라 다양한 시적구성을 조직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형상창조에서도 처음부터 높은 격조를 가지고 원쑤를 단죄하면서 거기에 실제적자료를 유기적으로 안반침할수도 있을것이며 그 사실자료를 시화하면서 그자체속에 시인의 증오와 규탄의 감정을 안반침하는 등 시적감정을 각이하게 전개할수도 있을것이다.

구체적인 시적계기에 기초한 시의 구성조직과 감정전개방식에서 이러한 다양한 특성이 보장되어야 잡아진 종자를 심오하게 천명하기 위한데 모를 박고 시적형상을 예리화할수 있으며 그만큼 원쑤들에 대한 규탄의 기백을 강렬하게 표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심장속에서 불타오르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표현할수 있는 참신한 시적계기를 옹계 포착하고 사상감정을 다양하게 굴절시키고 전개하면서 시형상을 예리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에 표현된 반제반미투쟁감정이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구호나 강조에서 벗어나 사상정서적으로 독자들의 심장에 보다 깊이 파고들어 강한 충격을 안길수 있으며 예리하고 날카롭게 버려지는 시인의 증오의 감정이 시형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독자들도 함께 두주먹을 부르짖고 증오와 격분으로 심장이 끓어오르게 할수 있다.

반제반미투쟁을 주제로 한 시에서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폭로규탄의 기백을 힘있게 구현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예리하고 강한 시적표현을 적극 탐구이용하는것이다.

작품창작에서는 한가지 처방만 가지고서는 안되며 표현도 될수록 새롭게 하여야 한다.

시적표현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내용의 정확한 전달에 관한 문제에 국한하는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의 폭과 심도를 보장하면서 시인의 내적열정과 흥분을 심원하게 개방하는 시적일반화의 심오성과 관련된 문제인것이다. 때문에 시창작에서는 표현도 될수록 새롭게 찾아써야 한다. 특히

반제반미투쟁을 노래한 시에서의 표현은 시적형상의 예리화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있는것만큼 될수록 예리하고 강한 표현을 효과적으로 골라써야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을 보다 강렬하게 나타낼수 있다.

시적표현에서도 기본은 어디까지나 시인의 내적체험의 절박성과 뜨거움에 있다. 시인의 심장이 원쑤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 때 시적표현도 그렇게 탐구이용될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원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의 감정을 특별히 예리하고 강하게 나타내기 위한 힘있는 표현수단들을 탐구하는데 응당한 창작

적관심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시 《도발자들에게 징벌을 주리》(최준경, 《조선문학》 1975. 8)에 기울인 시인의 노력은 응당 평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 시에서 보여준 좋은 경험은 때 시적표현들이 원쑤에 대한 시인-서정적주인공의 끝없는 증오와 규탄의 감정을 특별히 강하게 때로는 예술적으로 과장하면서까지 예리하게 강조하고있는 점이다.

.....

이제 더 원쑤들을 그냥 둘수 있으라
이날까지 저질러온 죄악을 다 적기엔
병사의 가슴에 더는 공백이 없노라
우리의 세대에 더는 공간이 없노라

미제의 시체로 산을 이뤄도
우리의 원한은 다 갚지 못하리니
그때문에 나의 심장은 멸적의 용암으로 끓고
나의 가슴은 결전의 합성으로 가득 찼다

박정희매국역적의 검은 피로 강을 이뤄도
우리의 분노는 다 터치지 못하리니
그때문에 나는 총탄을 풀고 또 풀어도
반에 반도 못다 풀 복수의 탄창을 안았노라.
.....

오, 네놈들이 또다시 전쟁의 불수레를 끌고
온다면
나는 폭풍이 되어 번개가 되어
청와대의 지붕을 불속에 묻으리
분노의 화염을 던져, 벼락을 던져
죄악의 백악관을 불의 지옥에 보내리,
무자비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네놈들의 운명에 징벌의 종지부를 찍으리,

얼마나 예리하고 강한 시적표현들인가! 멸적의 용암, 결전의 합성, 검은피, 총탄을 풀고 또 풀어도, 폭풍, 번개, 분노의 화염, 벼락, 징벌의 종지부... 이러한 시적표현들뒤에는 마치도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분노를 안고 복수의 서리발총창을 비껴든 시인의 노한 모습이 보이는듯싶다. 그만큼 이 시에서의 표현은 원쑤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으며 독자들에게 씨원하고 통쾌한 감을 느끼게 한다.

이 시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시인들이 시적표현에 응당한 창작적관심을 돌려 체험된 사상감정을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한 예리하고 힘있는 표현들을 찾아내야만 시에서 반제반미투쟁정신을 더욱 강하게 고취할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내용이나 전달하는 정도의 《평범한》 표현, 누구나 다 늘 쓰는 그런 표현정도에서 더는 벗어나지 못할 때 거기에는 그 어떤 새롭고 강렬한

감정세계가 그려질수 없다.

만일 시에서 《싸늘한 비수》, 《가슴팍을 찌르》라고 하는 표현들만을 자꾸 쓴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매련, 매줄, 매 단어가 그대로 원쑤의 숨통을 꺾는 총창이 되어야 할 몇련 안되는 시에서 《싸늘한 비수》나 《가슴팍을 찌르》는 정도로는 아직도 가슴에 맺힌 증오와 복수를 다 표현하지 못한듯한 느낌을 가지는것이 독자들의 심정이다. 독자들에게는 《싸늘한》 이상의 비수가 요구되는것이며 《찌르》는 정도이상의 복수의 용암이 필요한것이다.

물론 이러한것은 그 어느 한두 표현에 국한하는것이 아니다.

우리 시인들은 언제나 이러한 높은 요구성의 견지에 서서 반제반미투쟁정신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될수 있도록 시적표현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욱 세련시켜야 하며 시형상을 더욱 예리하고 힘있게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날날이 폭로하고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투쟁정신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주제로 한 시작품들을 보다 심오하게, 보다 왕성하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적형식과 양상을 적극 탐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가 특별히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다른 모든 시작품들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폭로단죄하는 시에서의 형식과 양상문제는 그것이 단지 형식과 양상문제로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원쑤들의 본질을 날날이, 예리하게 드러내며 원쑤들에 대한 날카로운 조소와 규탄을 더욱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한 필수적요인의 하나로 제기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것은 주로 반제반미투쟁을 노래한 시에서의 시적대상문제와 시의 묘사대상으로서의 원쑤들의 죄악상에 대한 폭로규탄의 내용적특성과 관련된 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원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파쑈적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여주고있는 동시에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최후발악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성과 포악성, 야수성을 깊이있게 나타낼수록 또한 그의 부패성과 취약성, 멸망의 징조도 더욱더 뚜렷이 드러낼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반제반미투쟁의 시창작에서 그 시적종자에 맞게 소재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데서 다양하고 풍부한 형식과 양상을 적극 탐구리용할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원쑤놈들의 정수리에 보복의 철창을 댔다끈지는것과 같이 힘있는

정론시며 그들의 부패성과 취약성, 멸망의 운명을 예리하게 규탄하고 조소하는 통쾌하고도 서리발같은 풍자시 등 다양한 형식과 양상의 시에 대한 절박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

아마도 우리 독자들은 10여년전에 창작되었던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를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이 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제침략자들이 저지른 그 비인간적만행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참을수 없으며 원수들의 오만하고 야수적인 정체를 날날이 발가놓고 조소를 담아 예리하고도 준렬하게 단죄한 시인의 분노한 목소리와 함께 조소와 통쾌감을 금할수 없다.

바로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한 남조선 녀인에 대한 미제야수들의 치떨리는 만행을 정론적규탄과 풍자적예리화로 형상함으로써 그것이 인류의 존엄과 문명에 대한 잔혹한 유린과 모독을 일삼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체이라는것을 폭로규탄하였으며 원수들에게 던져진 폭탄과도 같은 원수들의 급소를 찌른 비수와도 같은 훌륭한 작품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오늘에 와서도 원수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놈들의 부패성과 취약성을 조소하는 정론시와 풍자시가 계속 많이 창작되어야 하며 그밖에 대상의 특성에 맞는 양상적특성이 충분히 살아나야 한다.

물론 원수들을 폭로규탄하는 시에서의 정론적인 격조는 필수적인것이며 따라서 이 주제분야에서 일반서정시와 정론시의 한계를 완전히 가를수는 없다. 또 원수들을 폭로규탄하는데서 높은 정론적격조는 그 구체적인 형상에서 풍자적예리화의 수법을 동반하게 되며 반면에 풍자적형상은 정론적격조가 안받침될 때에만 더욱 힘있고 효과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모든 시에서 정론적격조와 풍자적형상을 골고루 다

《배합》하라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론시면 정론시, 풍자시면 풍자시-이렇게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고 그 형상의 효과성을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하는데 있다. 그래야 시의 사상적기백도 명백하고 강렬하며 양상적특성도 다양해질수 있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전쟁책동과 인민들에 대한 파쇼적탄압책동이 강화되고있으며 이와 함께 그 어느때보다도 그들의 부패성과 취약성이 전면적으로 두드러지고있는 오늘 우리에게 원수들을 강렬하게 폭로규탄하고 풍자적으로 예리하게 조소하는 등의 다양한 형식과 양상을 띤 시 작품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인 동시에 우리의 혁

명적시문학의 다양하고 풍만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반제반미투쟁정신을 가장 격렬하고 힘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창작상의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시인들은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침략적 및 략탈적본성과 야수적만행을 높은 정치적인목으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다양한 시형식과 양상으로 형상함으로써 원수들에 대한 폭로와 규탄, 증오와 복수의 기백을 더욱 높이고, 더욱 심오하게 표현하여야 할것이다.

현시기 우리 시문학앞에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나서고있는 반제반미투쟁정신을 힘있게 구현한 작품을 많이 그리고 사상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창작하는 문제는 창작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시인의 창작적 립장과 자세, 준비정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시인들은 높은 당적책임성과 로동계급적관점에 튼튼히 서서 반제반미투쟁정신을 힘있게 구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에서 미제와 박정희파쇼악당들에 대한 전민족적증오와 투쟁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원수들의 본질과 일거일동에 대하여 예리하게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창작사업에 구현함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시창작에서 새로운 창작적혁신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멸망의 운명에 처한 원수들의 포악성과 악랄성, 부패성과 취약성이 전면적으로 두드러지고있는 오늘 반제반미투쟁의 시대적격류에 맞게 원수들에 대한 폭로와 단죄, 규탄의 기백을 더욱 높이는것은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그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시인들은 반제반미투쟁정신을 힘있게 표현한 혁명적인 시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류만

사업 방법과 작품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일군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일떠선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현실체험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 다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는 만났다. 그들모두를 다 잊을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작업반장이다.

그는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보이였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것이 아니라 오래동안 그와 같이 일 해온 농장원들도 다 그렇게 느낀다는것이였다. 왜 그럴가?

나는 그와 같이 일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때로는 그가 작업반원들속에서 사업하는것을 옆에서 보기도 하면서 유심히 그의 생활을 관찰해보았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패기와 정열이 넘쳐흘렀다. 성미는 급한데다가 뜨뜨미지근한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나 칼로 자르듯이 날카롭게 처리했으며 요구성이 비할바없이 높으며 때로는 큰 소리도 하고 욱도 했다.

그러나 뒤는 없었다. 그런데 알고보면 그에게는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원칙적립장에서 옮겨 행동하는것 같은데도 어떻게 된 셈인지 다른 사람들속에서는 자기가 옳지 않게 평가된다는것이였다.

그는 그것을 무슨 일이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욱욱 내밀기만 하는 자기의 급하고 거친 성격 탓으로만 여기면서 좀처럼 고치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격탓이겠는가?

나는 최근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거듭거듭 학습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에 달려있다고 하시였으며 령도에술을 소유하지 않고 다만 주관적인 충실성만 가지고는 일군들이 대중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가르치

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실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기되는 온갖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 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개선할수 없습니다.》

방법과 작품은 사상에서 흘러나오는것이며 사상의 종합적표현이다. 우의 작업반장도 사업에서의 원칙성, 강한 요구성과 함께 이신작칙하고 검박하며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과 령도에술을 소유했어야 했을것이였다.

그렇지 못했기때문에 그는 작업반원들속에서 우리 작업반장은 주관적의도만 내세우며 조건은 보장 안해주고 요구만 하며 엉당 풀어주어야 할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도 조건타발을 한다고 내려누르기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의견을 제기하기도 힘들다는 여론을 가지게 했다.

나는 이 작업반장의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아무리 그가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고 해도 사업방법과 작품이 좋지 못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고 따라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사업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지난 기간에는 이 작업반장에게서 나타난 사업방법과 작품상 결함이 그의 주관적열성때문에 어느정도 스쳐지나칠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당면일정으로 제기된 오늘에 있어서는 열성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되였다.

특히 지도일군들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열성에 대중을 옳게 발동시킬수 있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이 안반침되어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품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중의 혁명적각성과 자각적열성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옹고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다하도록 할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일군들이 따라배우고 사업과 생활에서 정확히 구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무한히 발양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의식뿐만아니라 그들의 풍모와 사업방법, 사업작품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야 한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품을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야 주체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면모를 완성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갖추수 있으며 모든 사업에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앞세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요구성만 앞세우지 말고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

게 도와주고 결린 문제를 풀어줄 때에만 모든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할수 있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이 조금이라도 결리는 사람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지 못한 사람이며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한 사람으로 될수 없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본받아 실지 사업에서 그것을 구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기 위한 근본표장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이 그러야 할 주체형의 주인공은 사상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모와 사업방법, 작품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되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반영하는 이번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마침내 군중들의 신망과 사랑을 받게 되는 농촌의 한 초급일군인 그 작업반장을 주인공으로 그리려 한다.

하정히

가사

어지돈의 노래

림호권

봉산벌을 적시며 황주벌 지나
어지돈 생명수는 흘러흐르네
어머니 대지의 젖줄기런가
세세년년 이 땅은 쏘아만가네

아, 수령님 열어주신 어지돈물결
풍년 싣고 굽이굽이 천리를 가네

봄철이면 눈석이를 벌판에 채워
함지 타고 다니던 일 어이 잊으랴
하늘 보며 한숨짓던 천수답농사

전설로나 후손에게 전해지리라
아, 수령님 열어주신 어지돈물결
풍년 싣고 굽이굽이 천리를 가네

길손에게 밥 한그릇 대접은 해도
물 한그릇 아쉽다던 이고장살림
오늘은 살기좋고 인심도 좋아
가는 손님 오는 손님 그칠길 없네
아, 수령님 열어주신 어지돈물결
풍년 싣고 굽이굽이 천리를 가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전사가 우리 시대 주체형의 주인공이다

나는 문예작품을 써본적도 없고 문예리론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선문학》에 실리는 지상토론을 흥미있게 읽어보면서 많은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지금은 그에 몇가지 보충하면서 토론에 참가하고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주인공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한길에서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풍파와 난관도 대담하게 뚫고나가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혁명의 리익이라면 자기의 한몸도 서슴없이 바치며 누가 인정해주건 말건 변함없이 충성의 꽃을 피워나간다.

그런 주인공들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소설이나 영화들을 감상할 때 독자들과 관중들은 깊은 감명을 받으며 거기서 자기들이 지향하는 참다운 본보기를 찾게 되는것이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비범한 영웅적기개와 아름다운 소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도 그들 자신이 다름아닌 평범한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속에 실지로 살고있는 보통사람들이기때문에 우리모두에게 그로록 친근하고 사랑스러운것이다.

우리의 보통사람들이 주체형의 주인공으로 우당한 자리를 차지한다는데 대하여 나는 특별히 강조하여 말하고싶다.

만일 우리 문학에서 긍정적주인공들을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 아니라 눈부신 기적적인 활동을 할하게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만 형상한다면 독자들과 관중들은 거기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겠지만 자신들도 그렇게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념, 그들의 꾸밈없는 소박한 행동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영웅들이 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므로 주체문학건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대중으로 설정되어야 할것이다.

자연의 엄혹한 피해와 준엄한 풍파가 앞을 가로막아도 그까짓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쉽게 극복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보통사람이 아닌것이다.

육체적으로 로쇠되었는데도 젊은사람들 못지않게 힘든 일을 너무나 손쉽게 척척 해제킨다면 그런 로인도 역시 비범한 존재일것이다.

너자의 몸이지만 도리어 남자들보다 힘도 더 세고 더 어려운 부문에서 험하게 사업을 혁신해 나간다면 그도 또한 특수한 녀성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인공들은 결코 이렇듯 비범한 기질을 타고나서 영웅적투쟁을 험하게 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은 그 어느 하나도 험하게 이룩된것이 없으며 간고한 투쟁을 거쳐서만 창조될수 있었다.

우리 근로자들이 창조한 기적과 혁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지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혁명적으로 각성되며 투쟁의 실천속에서 주체의 세계관을 완성해나가고 투쟁속에서 계급적립장을 더욱 튼튼히 다진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이 위하여 육체적로쇠도, 연약한 몸도 의지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주체형의 주인공은 마땅히 주체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강한 의지를 가진 보통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항상 심장을 불태우고있기때문에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진 영웅적인간으로 되는것이다.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자각하고 각성된 소박한 근로자들의 투쟁과 떨어져서 신기한 사실,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을 찾아 형상한다면 우리의 문학예술이 근로대중의 사랑을 받는 참다운 주체형의 주인공들을 형상할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창작자들은 공장과 농촌, 건설장과 배움터에서 흔히 만날수 있고 같이 살고있는 가까운 동지들과 평범한 사람들속에서 주체형의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박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한길만을 걷고있다.

그런데 그들속에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파오를 저지르고 자기의 잘못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혁명적수양을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도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해가며 자기의 파오를 고쳐나가는것이 우리 생활현실의 필연적현상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전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또 되여야 한다.

만약 자기가 저지른 소행이 어버이수령님께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쳐드릴수 있는것이라고 인정되면 스스로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의 주인공 억만대장과 같이 심장을 찢리운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 파오를 고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자기 파오를 인정하면서도 그 무슨 조건에 빙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만 탓하는 사람은 주체형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지난시기 비록 파오가 있었다 해도 지어는 현재까지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주체형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고압선》의 주인공은 일제놈들에게 민족적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순전히 벌여먹기 위하여 적들에게 복무한 치욕스런 과거를 가지고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과거를 치욕의 나날로 여기고 당을 따라 새 출발을 하며 조국의 운명이 위기에 놓일 때에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간다. 다시는 치욕스럽게 살수 없으며 오직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만 참된 삶을 영위할수 있다는 그의 혁명적신조는 그로 하여금 모든 풍파와 난관을 이겨낼수 있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었으며 지어 어떤 사람이 그의 충

성심을 외면하고 따돌리는 경우에도 외로움을 느끼지언정 그 굳은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한사람으로, 주체형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었다.

예술영화 《압연공들》의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면서도 작품상 큰 결함을 가지고있다. 그는 일부 뒤떨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고쳐주는 아량을 가지고있지 못하고 때로 신경질을 부린다. 그러나 그는 그 후과가 좋지 못한것을 깨닫고 당조직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결함을 고쳐나간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파오도 있을수 있었고 현재에도 결함이 있을수 있는 주인공을 그럴 때에는 그가 부단히 발전하며 혁명화되어가는 과정을 옹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주인공들을 반드시 한두가지씩의 결함을 가지고있는 인물로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니며 더우기 교양대상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참다운 귀감은 얼마든지 많다. 티없이 맑은 충성심을 간직한 투사들에게서 결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이 우리 문학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주체형의 주인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충성심이 늘 모자란다고 여기며 그 누가 일깨워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함을 찾아서 고치며 더욱 완성되어가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빛나는 생애의 최후를 마치면서도 자기가 다하지 못한 일로 하여 아쉬워하는것이다.

우리의 들끓는 현실속에는 혁명화된 인간의 본보기도 많지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화되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피타는 투쟁을 벌리면서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발전하는 사람의 혁명화과정을 잘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가들이 이와 같은 주체형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는 신문에 소개되는 혁신자들만 만나려 남작한 가방을 들고 떠날것이 아니라 혁신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숨은 사람들도 보고 그들과 같이 지내보기 위해 배낭을 메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창정

전국 군중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결과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도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야만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군중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높은 정치적열의를 안고 국내외의 광범한 근로자들로부터 충성의 문학, 음악, 예술 사진작품들을 많이 보내여왔다.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문학작품

-단편소설

2등 《새로 온 지배인》

(김두천-함남도 단천군 도시시설사업소
로동자)

3등 《분조장과 작업반장》

(양철웅-황남도 삼천군 방남리 농장원)

3등 《빠른 길》

(김주현-황남도 강령군 송현리 농장원)

3등 《주인들》

(리량호-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가나
가와지부 총무부장)

3등 《새 조합원》

(홍순련-조은 아이씨신용조합본점 총무

부주임)

-서정시

1등 《만경대초가집 프락에서》

(홍준성-평북일보사 기자)

2등 《영원한 그 사랑속에》

(리 용-락원기계공장 로동자)

2등 《심장의 목소리》

(한용걸-건설건재대학 건축학부 4학년
학생)

2등 《락원사람들》

(김영철-락원기계공장 로동자)

3등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허옥녀-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오사
까지부 총무부 부부장)

3등 《어머니에게》

(윤홍식-황남도 평천군 신담협동농장 농
장원)

3등 《사랑의 발판수 흘러》

(고정순-평양시 애국편직물공장 로동자)

-동시

3등 《작고도 큰집》

(김연실-함북도 청진제1사범대학 어문학
부 4학년 학생)

3등 《구름우의 누나》

(방정강-함남도 북청군 성동고등중학교
교원)

△음악작품

-가요

1등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김동원 곡-과학원 유색금속연구소 로동자)

2등 《수령님 모신 내 조국이여》

(김웅이 곡-평양시 부속품생산공장 로동자)

2등 《인자하신 그 영상을 우러롭니다》

(김철 곡-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음악부 지도원)

2등 《수령님 풍년벌에 찾아오셨네》

(조정근 곡-조선인민군우편함 11007호 (리) 하사관)

3등 《만경대의 아침》

(전유성 곡-평양음악무용대학 작곡학부 4학년 학생)

3등 《탄부들은 영원한 충성을 다지네》

(한광호 곡-평남도 순천군 령대탄광 로동자)

3등 《풍년새 찾아오네》

(리봉오 곡-함남도 함흥시 서호고등중학교 교원)

-아동가요

2등 《만경봉의 진달래 붉은 진달래》

(엄순실 곡-개성시 개풍군 인민병원 간호원)

2등 《우리모두 글씨공부 재미나지요》

(김풍강 곡-황남도 재령군 신곡리 농장원)

3등 《아버지원수님께 기쁨드려요》

(박춘화 곡-황남도 재령광산유치원 교양원)

3등 《향오동 정다운 나무》

(김풍락 곡-황남도 재령군 청천리 농장원)

3등 《새들도 노래해요》

(박호령 곡-함북도 웅기군 두만강고등중학교 교원)

△예술사진작품

1등 《은빛고압선을 기어이 이으리》

(방치옥-조선인민군화보사 사진기자)

1등 《분배받은 기쁨을 안고》

(김규덕-외국문출판사 사진기자)

2등 《위대한 수령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김광진-국제전람사 사진기자)

2등 《김일성화》

(최치수-공업출판사 사진기자)

3등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김용순-혁명력사사진제작소 사진기자)

3등 《천리물길을 따라》

(최웅수-중앙사진전람사 사진기자)

3등 《복수하리라》

(김상률-조선인민군신문사 사진기자)

3등 《비밀련락》

(박재환-함북도 웅기군

《김일성 동지혁명사상연구실》 사진사)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